

文化領土研究

JOURNAL OF CULTURE-TERRITORY STUDIES

第2卷 1號

2021年 6月 30日 發行



**‘베테랑’을 활용한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방안**

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 - 한국어교육학과 강사)



**한류 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 솔(성남 수진초등학교 교감)



**[주역]으로 읽는 봉준호 영화
[옥자]의 문화사적 의의**

- 생태주의 담론과의 지평 융합을 중심으로 -
이 찬(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부교수)



**한류의 원조 :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영토 확장**

박종범(국기원 연구소장) · 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박선옥(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題字：友山 宋河璟

文化領土研究

2021년 6월 25일 인쇄

2021년 6월 30일 발행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우)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47

전화 : (02) 741-1690

FAX : (02) 741-1691

E-mail : kish1691@naver.com

<http://www.rict.or.kr>

進行/洪起哲・編輯/張熙一

印刷 製作/大洋文化社

文化領土研究는 비매품입니다.

차례



‘베테랑’을 활용한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방안/05
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과 강사)

한류 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37
-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술(성남 수진초등학교 교감)

[주역]으로 읽는 봉준호 영화 [옥자]의 문화사적 의의/87
이찬(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부교수)

한류의 원조 :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영토 확장/123
박종범(국기원 연구소장)·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163
박선옥(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문화영토연구 회칙/193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202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208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211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213

제2권 1호 논문 심사 경위/219

임원 명단/220

‘베테랑’을 활용한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방안

정원기¹⁾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교육할 때 다양한 미디어 자료 중 한국 영화(K-movie)를 제재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을 외국인 학습자에 노출 시켜 일차적인 교육으로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된 영화와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길러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여러 단계 활동을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쓴 논문이다.

주제어 :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한국 문화 교육, 한국 영화, 단계별 활동

1)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 - 한국어교육학과 강사

1. 서론

본 논문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은 최근 몇 년을 사이에 두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의 상승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단순히 언어의 원리나 문법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한국어를 통해 좀 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논의와 교육적 핵심 논의들이 문법과 기능 중심에서 의사소통, 담화, 문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전환적 자세라기보다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²⁾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와 재외 동포에게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한국 문화의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과 교수 방안의 개발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 제재로서 ‘미디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효율성이 바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최근 K-pop, K-movie, K-drama 등 한류를 대표하는 대중 문화가 미디어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자료들은 외국인 학습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미디어 자료 중 K-movie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문식성(literacy) 및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의 개념

2.1 문식성(literacy)의 개념

문식성(literacy)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적 의미에서 문식성(literacy)은 특정 맥락과 무관하

2) 김수진(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31-58.

게 존재하는, 일련의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의 추상적 집합과 연관을 맺는다. 그리하여 일상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문식성(literacy)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을 명백하고도 당연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문식성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속성을 경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문식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미궁(迷宮)을 초래하게 된다. 문식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역사적 문식성, 윤리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경제적 문식성, 사회정치적 문식성, 환경적 문식성 등이 문식성 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식성이라는 말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문식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식성의 효과나 결과를 문식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문식성은 단순히 어떤 특정의 텍스트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문식성의 인지적 결과에 대한 탐구도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으로 조직된 활동의 영향에 관한 탐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식성은 가정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일차적 담화의 조정 능력이라기보다는 학교나 직장이나 학문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차적 담화의 조정 능력으로써 상위인지적 능력 혹은 상위언어적 능력과도 직결된다. 문식성은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으

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의 읽기와 쓰기와 연관되는 사고의 양식임과 동시에 목표 지향적인 활동임과 아울러 사회적 맥락과 언어 사용 활동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2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개념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문식성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문식성: 문자 언어의 사용과 문명 발전의 원동력
 2. 문식성: 정보 보편화와 지적 수준 고양을 통한 민주사회 확립의 원동력
 3. 문식성: 언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지식 창조의 원동력
 4. 문식성: 자신의 앎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초인지의 원동력
 5. 문식성: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 교감과 설득의 원동력
- 위의 문식성의 개념과 기능에 따라 문식성의 분석 단위가 고립된 개인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문식성은 언어교육의 국면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탐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문식성은 개인의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맥의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³⁾

3) 최홍원(2015),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600~601

문식성의 정의에 ‘문화적(cultural)’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문식성 자체가 사회 문화적 조건과 환경에 따른 문화적 능력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실제 문식성의 접근 방향을 크게 ‘독립된 자율적 모델(autonomous model)’과 ‘이념적 모델(ideological model)’로 나누기도 하는데(Street, 1999: 55-72),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주목하는 자율적 모델과 달리 이념적 모델에서는 개인의 문식성 활동이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가 개인적, 가치중립적, 인지적, 독립적이면서 기술 중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이념적 모델의 경우 그러한 활동 속에 존재하는 담화 집단간 힘의 관계, 가치, 신념, 의도, 관심사,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이다. 즉,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식은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화된 능력을 문화적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이야말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목적에 따라 일반목적, 특수목적, 학문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습자의 집단은 서로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것 중 문화적 문식성

4) 구인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cultural literacy)은 꼭 필요할 것이다.

3.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의 의의

최근의 문식성 연구와 문식성 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설명 및 관점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매체 문화 및 정보와 소통에 대한 최신 기술의 명시적인 관여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 부문과 사회 부문에 있어서 매체와 기술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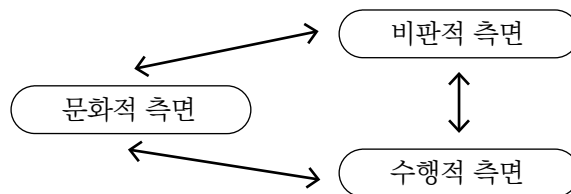
문식성 학습은 수행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 수행적 측면에는 문자의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 문자소와 음소의 대응 방식과 대응 정도에 대한 이해, 표기 규칙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 글씨쓰기와 컴퓨터 자판 이용하기 등이 포함된다. 정보기술 학습의 경우에는 컴퓨터 작동, 인터넷 접속, 데이터베이스와 시디롬 검색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식 활동과 문식 학습이 단순히 언어와 기술 체계를 작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 이상의 것으로서 그러한 작동 능력이 실제적 형식의 의미 구성 활동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 및 일상생활 맥락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살이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이용하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CT 문식력 학습에서는 학습의 목적과 실제적 맥락과 형식 등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의미 있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강

조하는 것이다.

비판적 측면에서는 맥락과 역사와 힘에 대한 명시적 고려가 중시된다. 즉, 학교에서의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언제나 사회적이고도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어떤 사회적 분야의 축을 따라 구성되고 사회 조직과 힘의 주도적 원리에 따라 구조화된 것이다. 오늘날 교육과정 개발과 개정의 주된 관심사는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 요구와 흥미를 더욱 적절하게 표상해 내는 데 있다. 문식 학습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은 건전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소프트웨어와 다른 기술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고 관련되는 문화 활동에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평가하고 재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학습이 언어 자체의 학습, 언어를 통한 학습, 언어에 관한 학습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학습 역시 기술의 이용 방법과 직결되는 기술 자체의 학습, 기술을 통한 학습, 그리고 기술에 관한 학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식력은 언어와 기술과 학습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문식성 학습의 세 가지 측면⁵⁾



5) 박영목(2003),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Vol.- No.110.

3.1. 문화교육의 목표

Patrick R. Moran은 문화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적용하면서, 또 어떤 관계의 힘, 즉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 문화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학습자들이 교실 문화 학습모형으로부터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때, 문화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⁶⁾ 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해 Seelye(1984)⁷⁾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틀을 제시하면서 7가지의 문화 교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Seelye(1984)의 문화 교수 목표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6) Patrick R. Moran -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정동빈 외 역(2004), 경문사.

7)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p. 301.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수의 목표 7가지를 다시 풀어서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 문화 이외의 문화적 행동을 이상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지도함을 목표로 한다.

2. 나이나 성, 사회 계급,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 변수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 나이, 성별, 사회계층 등의 사회적 변인이 사람들의 화법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3. 목표 문화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원어민들이 흔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가를 이해시킨다.

4. 목표어의 단어나 구절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함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

→ 영어 단어와 표현을 그저 언어적인 뜻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 문화가 각 단어에 부여하는 내포적인 의미까지도 알게 한다.

5.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표 문화에 관해 얻게 된 일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 목표 문화의 일반화된 명제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이 목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7. 목표 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문화 사람들에게로의 감정 이입을 촉진하는 것.

→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 7가지는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어 큰 비중을 두고 있다.

Seelye(1984)의 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스스로 올바른 평가와 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에 문화 지도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eelye(1984)는 7가지의 문화 교수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원리를 5가지 제시하고 있었다.⁸⁾

1. 가르치는 언어를 통하여 문화에 접근하라.
2. 문화적인 행동에 관한 학습을 매 단원의 통합요소로 삼으라.
3.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4.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목표어 문화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도 인식하게 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 이해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5. 문화에 관한 모든 교수에서 행동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관용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다시 말해 문화 교육은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논의의 범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8)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II: National Textbook Company. p. 301.

성기철(2001)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문화 교육의 목표

상위 목표	문화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
하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다원성 이해 : 다른 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게 한다. 2. 일상적 생활 방식 이해 : 대다수의 보편적 일상 생활 및 활동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3. 보편적 사고방식 이해 : 대다수의 일상 생활에서 구현되는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4. 보편적 문화 지식 이해 :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적 문화 지식을 이해하게 함.
하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 : 언어와 문화가 상호 반영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6. 인위적, 자연적 산물 이해 : 인간의 활동 결과물, 그리고 자연적 산물을 이해하게 한다. 7. 문화 이해와 실천 태도 :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게 한다. 8. 일상생활 적응력 : 문화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에의 적응력을 길러준다.

3.2.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의 필요성

오늘날의 학생들은 사소한 정보와 깊이 있는 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흘러넘치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기능과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학습자(일반목적, 학문목적, 특수목적)들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일반목적, 학문목적, 특수목적)들은 국내 학생들

과 비교하여 자료나 매체와 관련하여 문식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식성(literacy) 부족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의 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의 구성, 세상과 교실 사이의 다리 놓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학생들의 실제적 학습 경험과 연관하여 다른 학생 교사 유식한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기호 부여하기 등과 같은 21세기적 학습 맥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위한 교육 방안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자료 중 한국 영화(K-movie)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4.1 한국 영화(K-movie)의 선정 기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 영화(K-movie)는 ‘베테랑’이다. 다양한 한국 영화(K-movie) 중 ‘베테랑’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영화 ‘베테랑’의 경우 그 내용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영화의 줄거리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영화 내용 속에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베테랑’의 경우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권선징악’이라는 문화적이 요소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래되지 않은 영화이고 관객 수가 천만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 자료로써 최신 자료가 좋기 때문에 선정하였고 영화를 본 관객이 천만이 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영화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4.2 한국 영화(K-movie)를 활용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 방안

임경순(2006)은 문화 중심의 교육에서는 언어 능력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문화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업 형태, 목표, 내용, 자료, 방법, 수업 언어 등에 따른 교수·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 수업 형태의 다양성 원리 : 교수·학습은 언어와 문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학습과 교실 밖의 체험 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업과 체험의 유기성 원리** : 교실 학습과 현장 체험 학습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 능력 신장 원리** : 교수·학습의 목표는 언어 능력 신장에서 문화 능력 신장을 강화라는 방향으로 한다.
- **문화 비중 점증의 원리** : 언어와 문화가 통합적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비중이 점차 언어에서 문화로 증가되도록 한다.
- **주제(내용) 개별화의 원리** :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내용)는 보편적인 주제(내용)에서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주제(내용)를 선정한다.
- **자료 복잡화의 원리** : 언어 자료는 어휘나 문장이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사용한다.
- **지식, 수행, 태도, 경험 통합의 원리** :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수행, 태도, 경험이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 **과제 수행의 책임 이양의 원리** : 수업 과제 수행의 책임이 점차 교사로부터 학습자로 이양되도록 한다.
- **대화적 상호 작용 원리** :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대화적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목표어 증가의 원리** : 수업 언어는 학습의 모어나 목표어(한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점차 목표어를 증가시켜나가도록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교육할 때는 명확한 교수·학습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임경순(200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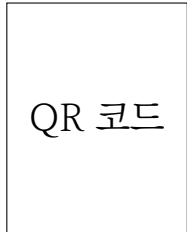
(영화의 대본을 통한 등장인물 파악-언어적 요소)

다음 영화를 비판적으로 읽어 봅시다.



- Q.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
- Q.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Q.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가?
- Q. 영화의 인물들의 관계를 유추해 보자. 어떤 관계인가?
- Q. 위의 포스터에서 다음의 정보를 찾아봅시다.

(장르, 제목, 인상적인 대사, 등장인물, 개봉 날짜)



◎ 영화의 이해

1. 내용이해 (전체 줄거리)

서도철은 의문의 사건을 쫓던 중 그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한다. 건들면 다친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서도철의 집념에 판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조태오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 나가는데...

베테랑 광역수사대 VS 유아독존 재벌 3세

○ 줄거리를 바탕으로 주인공과 인물의 성격을 연결해 봅시다.

	•	•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벌 3세 (조태오)
	•	•	한 번 꽃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행동과 형사 (서도철)
	•	•	항상 재벌 3세의 곁을 지
	•	•	20년 경력의 승부사 (오팀장)

○ 다음은 영화의 장면과 대본입니다. 분석적으로 읽어 봅시다.



〈장면의 대본 읽기〉

〈관찰〉

■영상 : 인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형사가 갑자기 나타나 재벌 3세에게 이야기를 한다.

■음향 : 고급 식당임을 알 수 있게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대사 :

서도철 : 너 내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지? → ‘나쁜 짓’ 바르지 못 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 (경찰이 반말을 사용한다?) - 생각해보기

조태오 : 나한테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사람임을 암시함. (경찰에게 경고를 한다?) - 생각해보기

○ 다음은 영화의 장면과 대본입니다. 분석적으로 읽어 봅시다.



〈장면의 대본 읽기〉

〈대본〉

(장면 설명)

최 상무가 전 소장을 다그치며 글러브를 끼게 한다. 당황하는 배 기사에게 다가가 글러브를 쥐어준다.

조태오(유아인) : 우리 기사님도 이거 끼시고, 파이팅 함 합시다. (배 기

사가 아들과 자신을 번갈아 보자 웃으며) 괜찮아요. 한판 붙으시고 받을 돈 받으시면 되지. (배 기사의 손에 글러브 끼워주며) 협박해서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맘 흘려서. 파이팅 있게.

(장면 설명)

태오가 배 기사를 일으켜 사무실 가운데 세운다. 배 기사 아들이 놀라서 울먹이자 사냥개를 끌고 와 배 기사 아들을 안고 물러선다.

조태오(유아인) : 괜찮아, 괜찮아. 어른들 다 이렇게 돈 벌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봐야 효도하지.

(장면설명)

아빠에게 달려 나가려는 배 기사 아들을 꼭 잡으며 말하는,

조태오(유아인) : 괜찮아, 괜찮아. 아빠 남자야. 아빠 저렇게 힘들게 돈 벌어. (배 기사에게) 아저씨, 그렇게 편하게 자빠지면 돈 못 받아요. 돈 받으러 왔대예요? 아들이 보고 있어. 힘냅시다! (배 기사 아들에게) 아빠 일어나, 한번 해 봐. 아빠 파이팅!

1. 여러분이 대본을 통해 느낀 성격대로 대본을 다시 읽어 봅시다.

- 1) 각자 캐릭터 별 성격대로 읽어 보기
- 2) 말투 어휘 생각하며 읽어 보기
- 3) 인물관의 관계 생각하며 읽어 보기

〈대본을 통한 이해〉

〈대본〉

(장면 설명)

최 상무가 전 소장을 다그치며 글러브를 끼게 한다. 당황하는 배 기사에게 다가가 글러브를 쥐어준다.

조태오(유아인) : 우리 기사님도 이거 끼시고, 파이팅 함 합시다. (배 기사가 아들과 자신을 번갈아 보자 웃으며) 괜찮아요. 한판 붙으시고 받을 돈 받으시면 되지. (배 기사의 손에 글러브 끼워주며) 협박해서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땀 흘려서. 파이팅 있게.

(장면 설명)

태오가 배 기사를 일으켜 사무실 가운데 세운다. 배 기사 아들이 놀라서 울먹이자 사냥개를 끌고 와 배 기사 아들을 안고 물러선다.

조태오(유아인) : 괜찮아, 괜찮아. 어른들 다 이렇게 돈 벌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봐야 효도하지.

(장면설명)

아빠에게 달려 나가려는 배 기사 아들을 꼭 잡으며 말하는,

조태오(유아인) : 괜찮아, 괜찮아. 아빠 남자야. 아빠 저렇게 힘들게 돈 벌어. (배 기사에게) 아저씨, 그렇게 편하게 자빠지면 돈 못 받아요. 돈 받으러 왔대মেয়? 아들이 보고 있어. 힘냅시다! (배 기사 아들에게) 아빠 일어나, 한번 해 봐. 아빠 파이팅!

1. 위의 대본에서 밑줄 친 등장인물의 호칭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p>조태오 최상무 전소장 배기사 배기사의 아들</p>
<p>→ 모두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호칭들이다. 하지만 ‘조태오’만 이름으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성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붙인다. 이는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인물만 해당)이고 다른 인물들은 일반 시민(다른 인물이 대입될 수 있고)이 될 수 있는 것이다.</p>
<p>여러분의 생각은? →</p>

3. 위의 대본을 통해 인물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조태오 > 최상무 > 전소장 > 배기사
 갑을(甲乙)관계 성립 갑을(甲乙)관계 성립
 갑을(甲乙)관계 성립

4. 신조어의 부정적 확산

갑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N-질’- 어떤 N를 사용하여 하는 행동 (주먹질, 바느질,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등)

신조어 ‘갑질?’의 사전적 의미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신조어 ‘갑질?’의 사전적 의미

공정위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대리점 ‘갑질’ 전수조사
직원에게 막노동 강요...부대시설 관리소장 ‘갑질논란’
수술방에서 주먹질...대형병원 교수 ‘갑질’ 논란

〈더 읽기〉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성실한 한 가정의 자존심을 짓밟고 목숨마저 빼앗아가려는 행동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은 결국 재벌들의 계급의식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 〈베테랑〉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구도만 담고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기도 전에 또 대출을 해야 하는 서민들,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들과 이를 부당하게 고용/해고 하는 하청계약, 돈과 권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언론, 그리고 윤리 의식과 도덕심을 찾아 보려야 찾아 볼 수 없는 재벌 3세 등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잘 표현된 것 같다.

영화〈베테랑〉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영화〈베테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대상이 기존 영화에서처럼 범죄 조직이 아닌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벌들을 서민을 대표하는 형사가 해결하여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영화 읽기 (장면을 통한 문화 요소 파악 - 권선징악)

■ 다음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분석적으로 읽어 봅시다.



장면 1 - 조태오(유아인이 자신의 힘(권력)을 앞세워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장면)



장면 2 - 조태오가 마지막에 자신이 지은 죄로 결국 경찰에게 잡혀가는 장면

탐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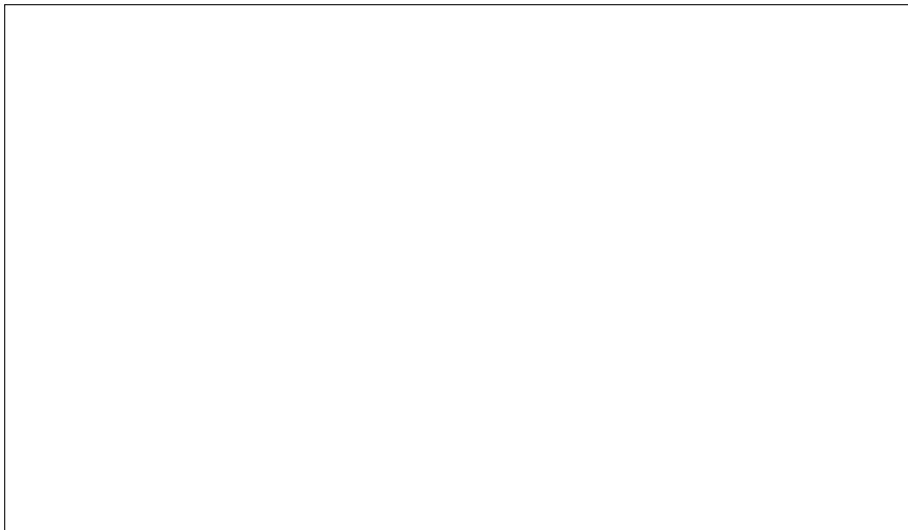
○ 여러분이 생각한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써 봅시다.

<p>〈주제〉</p>	<p>〈이유〉</p>
-------------	-------------

- 위의 장면 2에서 조태오(유아인)는 왜 경찰에 잡혀 가고 있는데 왜 웃고 있을까요?



-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새롭게 재구성해 봅시다.



‘권선징악’ VS 영화 속의 ‘권선징악’

- 권선징악 - 선은 권하고 악은 벌을 받는다.
- 영화 속의 권선징악 - 선은 권하고 악은 벌을 받지만

〈참고 및 더 읽기〉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권선징악(勸善懲惡)이란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악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위의 영화 베테랑 역시 재벌 3세의 악행에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결국 서도철(황정민) 형사의 노력으로 재벌 3세가 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재벌의 악행, 있는 사람들의 갑질 논란 등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교육할 때 다양한 미디어 자료 중 한국 영화(K-movie)를 제재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 항목을 외국인 학습자에 노출 시켜 일차적인 교육으로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항목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된 영화와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길러 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활동의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유익함 그리고 재미까지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영화를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용성은 더욱더 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위한 교육 방안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데 한국 영화(K-movie)를 제재로 활용하여 단계를 고려한 교육 방안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대한 다양한 한국 영화 중 하나의 영화를 선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앞으로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교육 방안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국의 문화 항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성출판사.
- 박금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 박영순(2006),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목(2003),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배현숙(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3권 1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어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 임경순(2006), 「문화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 (2009),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황인교(2008),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비교문화 연구소 가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Company.
- Patrick R. Moran, 정동빈 외 역(2004), 『Teaching Culture, (문화 교육)』, 경문사.

ABSTRACT

Cultural literacy education plan for foreign learners using 'Veteran'

Jeong, Won-gi

This paper is a paper on how to educate foreign learners about cultural literacy. When educating cultural literacy in communication-ori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use K-movie as a sanction among various media materials. It will not educate culture as a primary education by exposing ostensible cultural items to foreign learners, but will foster cultural literacy through movies and communication-oriented activities related to cultural items. Through educational measures to foster such cultural literacy, foreign learners are expected to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with cultural items through various stages of activity,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properly and using it in communication or discourse situations.

key word : literacy, cultural literacy, Korean cultural education, K-movie, Step-by-step activities

정월기

전 자 우 편 : jk1135@naver.com

논문 접수일 : 5월 30일

심사 완료일 : 6월 15일

게재 완료일 : 6월 25일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공토(文化共土)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솔¹⁾

[국문 초록]

한류문화가 세계적 팬덤(fandom)을 형성하면서 이를 문화적 침략으로 보는 반한류·혐한류의 정서(情緒)도 함께 심화하고 있다.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장은 일견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한 반감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한류 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로 기존의 문화영토의 개념을 한층 심화·발전시킨 문화공토(文化共土)라는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문화를 토대로 한민족생활 공간의 일체가 문화영토라면, 문화공토는 한국과 세계 각국(한류문화 진출국)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영토를 의미한다. 과거 한류정책은 한국문화의 해외 수출을 통해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인 문화공토는 한국과 세계 각국이 한류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존, 공영하는 공동의 문화영토를 만들고자 함이며, 그 핵심에는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문화공토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유도, ② 한류와 현지문화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문화콘텐츠 구축, ③ 한류 진출 주체의 사회적 책임 준수, ④ 한류 진출국의 문화적

1) 성남 수진초등학교 교감

성장을 주도하는 캠페인 전개, ⑤ 해외 한류체험관의 구축 등을 한류 문화영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한류(韓流·Korean Wave), 문화영토(文化領土·Cultural Territoty), 문화공토(文化共土·Cultural Commonland)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인의 관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k-drama)의 인기와 함께 음악(k-pop), 영화(k-movie), 미용(k-beauty), 게임(k-game)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韓流)라는 독특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류가 단순한 관심 대상을 넘어 세계의 주류(主流) 문화로 등장하는 상황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예컨대, 영화 ‘기생충’은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분야를 석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²⁾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도 BTS라는 걸출한 그룹의 활약으로 우리의 음악은 이제 세계의 변방(邊方)이 아닌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을 포함한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넘어 각광을 받은 사례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류의 성장과 한국의 문화영토 확장과정에서 마냥 호의(好意)적인 시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혐한(嫌韓)의 움직임은 한류를 위협하고 있으며³⁾, 이는 한국의 문화영토 확장이 주변국의 경계 대상이 되기에 충분함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한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

2) 세계일보, “아카데미상 4관왕’ 봉준호 감독, 할리우드 러브콜 쏟아질까?’, 2020.2.15.일자 기사.

3) 연합뉴스, ‘혐한 부추기는 日언론…K팝·가수 부정적 보도 줄이어(종합)’, 2018.11.13.일자 기사.

과 문화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충돌을 선순환의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류를 둘러싼 이상의 상황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영토’라는 개념에 대한 심화된 이론적 탐색과 함께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류는 한국인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소비시키는데 몰두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⁴⁾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류가 문화적 침략으로 오해받기도 했다.⁵⁾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영토의 개념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문화영토에 대한 개념 탐색과 함께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문화영토 확장과정을 살펴보고 광대한 해외 문화영토의 사례를 참고로 지속 가능한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연구의 방법 및 과정

-
- 4) 한류(韓流)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민간의 움직임은 한국의 문화(K-Culture)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지도와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화영토와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주력한 이러한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둔 측면도 있지만, 해당 국가와의 쌍방향적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5)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사드(THAAD)사태 이후 발생한 한한령(限韓令)이 대표적이다. 뿌리 깊은 중화사상(中華思想)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인 한류를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중국에서 한국 문화영토의 확장을 시기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정치·군사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 한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차이나통통] ‘한류 반감’ 이면엔 뿌리 깊은 중화사상’, 2017.11.17.일자 기사.)

본 연구는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였으며, 문화영토의 발전 개념인 ‘문화공토(文化共土)’를 중심으로 그 확장성과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관련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에서는 최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문화의 각 영역에서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문화(Korean wave culture)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한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시선(반한, 혐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한류문화영토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영토에 대한 개념을 시대에 맞게 심화·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개념의 연장선에서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의 확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영토’의 개념에 대해 분석·고찰하며, 한류 및 문화영토를 주제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연구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문화영토의 역사적 기원에서는 역사상에 나타난 우리의 문화영토를 시대별로 살펴봄과 동시에 한자문화권, 프랑코포니 등 광대한 문화영토를 이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영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문화영토의 발전형인 ‘문화공토(文化共土)’라는 신(新)개념을 제언하였다. 문화공토는 기존의 지리적, 정치적 개념이 강한 ‘영토(Territory)’를 모두가 공유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공토(共土/commonland)의 형태로 시대적 흐름에 맞

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문화영토 확대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류 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절차

연구의 방법 및 과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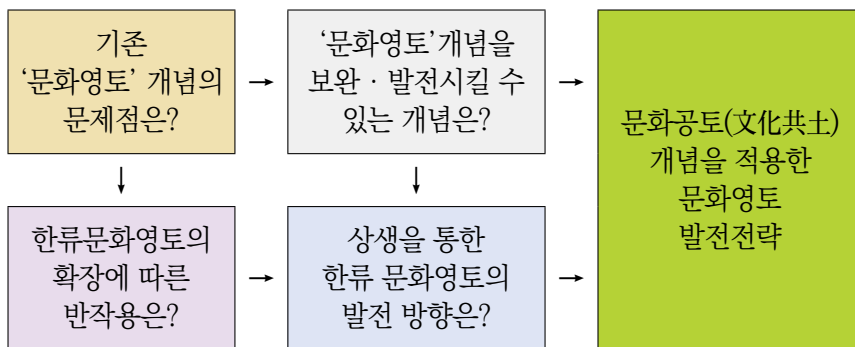
[도1]



[도1] 본 연구의 절차

3) 연구의 틀

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의 과정 및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틀(frame)을 설정하였다.



[도2] 본 연구의 틀

4) 용어의 정의

가) 한류(韓流 · Korean wave)

한류(韓流)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개념은 없으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한류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이는 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한류는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 또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선호현상’⁷⁾을 의미하며, 1999년 중국 언론이 처음 사용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한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확산된 정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제품, 기술, 생활양식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유행 및 선호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⁸⁾

나) 문화영토(文化領土 · Cultural Territory)

일반적으로 ‘영토(Territory)’라는 개념은 상대방에 대한 배타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국경과 이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국제정치

6)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57d4eed42f4680be1bdc32e62ab642>).

7) 삼성경제연구소, “韓流 지속화를 위한 방안”, 『issue paper』, (2005.11.7.), 2005. p.4.

8) 이미 한류현상은 K-pop, 드라마,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의 경계를 벗어나 방위산업(무기수출), 의료, 기술, 제품 등 경제·산업·교육을 포함한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대상도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면 한류(韓流)에 대한 정의도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상의 영토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문화영토’는 인류애(人類愛)에 기반한 친애(親愛), 화합(和合), 평화(平和), 복지(福祉)를 지향하는 개념으로⁹⁾ 정치적, 지리적 개념이 아닌 문화에 의해 영토가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¹⁰⁾ 이는 구체적으로 지리적 국경이 아닌 문화를 토대로 한 민족 생활 공간의 일체로 정의하고 있다.¹¹⁾

문화영토 개념의 출발은 1981년 4월 홍일식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내에 ‘영토문제연구실’을 발족하고¹²⁾ 문화영토를 개념화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¹³⁾

다) 문화공토(文化共土 · Cultural Commonland)

홍일식이 문화영토론을 제기할 당시(1980년대 전반)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과 현재의 그것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한국문화는 국제적으로 관심권 밖에 존재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적 경제·문화적 위상(位相)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더불어, 우리 문화를 지칭하는 한류(Korean wave)는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흐름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적 침략(침투)로 간주되어 혐한(嫌韓), 반한(反韓)이라는 문화적 충돌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공토는(文化共土)는 홍일식이 제안한 문화영토의 개념을 한

9)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p.108.

10) 문화영토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정 지역에서 꽃피운 문화의 주인이 곧 해당 영토의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종렬, [경제프리즘] ‘문화영토’ 넓히는 BTS’, 경기일보, 2020. 1.27.일자 기사.)

11) 홍일식,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 『영토문제연구』1. 1983. p.142.

12)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p.108.

13) (재)문화영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ct.or.kr/1ceo.html>).

단계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기존의 영토(領土)라는 개념이 가진 정치적·지리적·배타적인 성격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한국의 문화를 해외 각국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일방향적(一方向的) 문화진출(침략, 침투)이 아닌 한류를 세계 각국과 창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해당 국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영토를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화공토(文化共土 · Cultural Commonland)란, 한류를 통해 한국과 세계 각국(한류문화의 진출국)이 함께 공유하는 확장된 개념의 문화적 영토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문화영토의 개념 고찰

문화영토(文化領土)라는 개념은 문화(文化)와 영토(領土)라는 각각의 단어가 모여 만든 복합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문화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여기에서 문화의 개념 범주에 언어,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의 물질적·추상적 결과물들이 모두 포함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영토’의 사전적 정의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토

14) 표준대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f2a225128be43dc963c63e1ed32212f>)

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홍일식의 제안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표1> ‘문화’와 ‘영토’, ‘문화영토’의 개념 분석

분석대상		‘문화’의 개념	‘영토’의 개념
개 념 분 석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문화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어로 경작(耕作), 또는 재배(栽培)를 의미하는 colere를 어원으로 하며 인위적인 수단으로 자연을 바꿔 나간다는 의미이다.¹⁶⁾ • 주로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인 부분을 문명(文明)으로 정신적인 부분(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등)을 문화(文化)로 구분함.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개념의 성격이 강함. • 국제법상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토지의 영역으로 정치적, 공간적 의미가 큼.¹⁸⁾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의 경계인 ‘국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排他的)인 측면이 강함.

15) 표준대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df3e780ecc584d2da295786cb2d1816a>)

16)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文化)라는 단어는 라틴어 colere를 어원으로 한 독일어 kultur가 일본을 통해 도입된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야나부아키라철·박양신譯, 『한단어 사전, 문화』,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3. pp.12-13.) 다른 한편으로는 ‘문치교화(文治教化)’ 즉, 형벌이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교화한다. 라는 개념에서도 유래한다. (야나부아키라철·박양신譯, 『한단어 사전, 문화』,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3. p.14.)

17) doopedia(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778).

18) doopedia(<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463&cid=40942&categoryId=65588>).

분석대상		‘문화영토’의 개념
개 념 분 석	정의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의미의 국경에 의한 영토가 아닌 문화를 토대로 한 민족생활 공간의 일체를 의미함.
	특 징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토는 기존의 지리적 의미의 국경에 의해 획정된 영토의 개념이 아닌 문화에 의해 정의된 영토를 의미함.(문화영토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해외이주자를 예로 들 수 있음.) • 기존의 지리적 영토가 상호 배타의식, 피해의식, 적대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상 국경 및 국제정치상의 영토에 기반함. • 문화영토는 지리적 영토와는 달리 평화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특정한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현재의 국경을 ‘문화영토’라는 신(新)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국수주의, 문화적 민족주의, 패배주의에서 탈피해야 함. • 외국의 배타적인 통치권의 경계를 넘어 한류 상품과 문화가 소비되는 영역.

〈표1〉은 문화영토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화영토는 통상적인 영토의 개념과 대비해 볼 때, 영토 획정의 경계와 기준을 지리적·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생활양식(life-style)과 같은 문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정치적·지리적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 도서(島嶼)로 한정하는데 비해 문화영토는 우리 민족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그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다. 예컨대, 삼국시대 한국의 문화가 수출된 일본의 여러

19) 홍일식,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 『영토문제연구』1. 1983. p.142.

20) 홍일식,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 『영토문제연구』1. 1983. p.142. ;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pp.1-11. ; 이웅규, “미래 통일한국의 글로벌 경제영토와 문화영토 확보 전략”, 『신라리더십연구』9, 2016. p.58.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표의 형태로 재구성함.

지역(교토, 나라)이나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大阪市)와 같은 대도시, 한류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북경, 호치민) 등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 문화영토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지리적·정치적 영토와는 달리 문화영토는 타국의 주권(主權)이 미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생활양식, 물질적·정신적 산물을 통해 문화의 발생 지역과 이를 흡수한 지역 주민들 간의 문화적 동질성(同質性)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토라는 개념은 영토(Territory)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폐쇄성, 배타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²¹⁾ 예컨대,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제품과 생활방식이 인근 국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은 이를 반드시 환영하는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영토의 개념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²⁾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1) 홍일식은 이미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통해 ‘문화영토’라는 단어가 가지는 오해와 혼란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었으며, 문화영토를 ‘문화적 민족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영토라는 단어가 가지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문화영토의 의미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p.110.) ‘문화공토(文化共土·Cultural Commonland)’는 이러한 논의

22) 홍일식이 제안한 ‘문화영토’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영토(Territory)의 개념이 가진 폐쇄성(국경으로 획정되는 영토의 통상적 개념)과 독점성(주권이 미치는 배타적인 공간으로서의 영토의 개념)은 문화영토 개념 자체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호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영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영토)에 대한 재검토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변화된 단어의 사용은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에 있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과 국민들의 생각, 사고를 선순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의 탐색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영토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주제의 선행연구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리적·정치적 영토의 개념과 대비되는 문화영토와 관련한 연구사례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영토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홍일식의 연구가 대표적이었으며, 그가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킨 다수의 연구사례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화영토는 지리·정치적 영토와는 대비되는 개방적이며 평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일식(1985)은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정치적·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영토에 대비되는 문화영토(Cultural-Territory)의 의미에 대해 제안하고 있었다. 문화영토는 지리적·정치적 의미의 영토가 가진 배타성, 폐쇄성 등을 극복하고 인류의 화합, 평화를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더불어, 문화영토는 민족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영토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수주의(國粹主義), 패배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었다. (1985, pp.1-11.)

신용우(2015)는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문화영토에 대한 차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지리적인 국경의 통치자인 ‘개념적인 영토권자’와 그 속에서 문화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영토권자’로 이원화(二元化)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홍일식의 문화영토에 대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지도문화, 종교 및 잔존문화라는 측면에서 대마도를 한국의 문화적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었다.(2015, pp. 6-11, 141~145.)

둘째, 문화영토와 관련한 기존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형태의 연구를 들 수 있었다. 문화영토의 확보는 우리 고유의 지역성과 세계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문화의 전달이나 수출이 아닌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박치완(2011)은 『왜 글로벌문화콘텐츠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문화교류는 특정국가 문화의 일방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글로벌(global)이 아닌 글로컬(glocal)의 마인드를 통해 상호호혜(相互互惠)의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글로컬이란 고유의 지역성(locality)이 가미된 세계성(glob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한국적인 지역성을 드러내는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전파,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가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인 ‘마살라무비’와 영국의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문화영토의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었다. (2011, pp.9-33.)

이웅규(2016)는 『미래 통일한국의 글로벌 경제영토와 문화영토의 확보전략』이라는 연구에서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문화한류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문화영토는 국가간 국경의 경계를 초월하여 해외에서 우리의 문화에 열광하며 그에 따른 문화상품들이 소비되는 영

역으로 개념화하고 있었다.²³⁾ (2016, pp.54-59.)

3)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라는 개념은 본래 지리적·정치적 국경 사이에 놓인 배타적 토지(지역)를 의미한다. 반면, 문화영토는 이를 뛰어넘는 문화를 토대로 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문화영토를 문화 자체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규정지으려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토를 대하는 각자의 다양한 관점들이 혼재(混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홍일식이 제안한 문화영토의 개념은 문화적 우월성이 아닌 공존(共存), 공영(共榮)이라는 선순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주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영토의 개념이 반드시 일관적이며 합의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문화영토는 상호교류 및 공존과 같은 선순환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배에 의한 갈등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의 추진 방향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23) 이웅규는 문화영토가 경제영토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문화의 영역이 경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영토를 경제영토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영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인근 지역과 교류하며 우리의 문화적 고유성을 전파하였다. 멀리는 삼국시대의 대일(對日) 문화전파로부터 조선시대 내내 이어진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문화영토 확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별 문화영토 발전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외 각국의 문화영토 확대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자(漢字), 프랑코포니(Francophonie)등의 문화권 등을 통해 해외 국가들의 문화영토 확대를 위한 상호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문화권은 과거 광대한 지리적 영토(제국과 식민지)을 통해 공통의 언어권을 형성해 왔거나 우수한 문화의 전파를 통해 오늘날까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는 국제기구나 문화권의 형태로 살아남아 있다. 이들 문화권의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영토 발전을 위한 요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한류문화의 확대에 따른 반(反)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영토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문화영토의 개념 고찰과 본 연구의 추진 방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영토의 개념과는 별개로 '영토'의 개념은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는 자칫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영토 개념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신(新) 개념의 제안이 필요해 보인다.

3. 문화영토의 역사적 기원과 한류

1) 역사상에 나타난 우리의 문화영토

가) 삼국시대 디아스포라와 문화전파

홍일식은 문화영토와 관련하여 우리와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이미 주목한 바 있다.²⁴⁾ 지구상의 여타 지역에 비해 한일(韓日) 문화의 유사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고대(古代)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당시 대륙의 우수한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당연한 정설(定設)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⁵⁾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순리(順理)를 생각한다면 당시의 문화전파는 우리 민족의 문화영토 확장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²⁶⁾ 삼국시대의 문화영토 확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많은 수의 고구려·백제·신라인들이 디아스포라(이주)를 통해 일본에 정착하여 고대국가 일본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²⁷⁾ 예컨대, 기원전 3~4세기

24) 이에 대해서는 홍일식,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p.108.을 참고할 것.

25)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부터 대륙의 선진문화를 한반도를 통해 수입한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1969년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즐문토기(櫛文土器)는 1976년 한반도와 인접한 대마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마도는 일본 열도에 한반도와 대륙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이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 : 삼국의 문화』, (서울: 탐구당), 2013. pp.463-464.)

26)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민족간 대륙간 역사(문화적 발달을 포함) 진행의 차이를 각 민족별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었다.(재러드 다이아몬드著·김진준譯, 『총, 균, 쇠』, (서울:문학사상), 2014. pp.35-38.) 이를 한일 문화교류에도 적용하면 선사시대 이래 이루어진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문화전파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환경적 요인(반도와 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7) 특히,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수한 왕인을 비롯한 백제인들은 일본의 학문과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 : 삼국의 문화』, (서울: 탐구당), 2013. p.468.)

의 일본 야요이(彌生式) 토기, 아스카 문명(飛鳥文明) 등은 당시 한반도 삼국의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중 백제에서 이주한 하타씨(秦氏), 소가씨(蘇我氏) 등은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구현한 주체였다.²⁸⁾ 더욱이 백제의 왕실과 일본의 왕가가 결혼에 의해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음은 당시의 일본열도가 사실상 한국의 문화영토의 일부로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²⁹⁾ 삼국인의 이주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생활방식을 포함한 문화 일체를 일본에 이식(移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조선왕조의 창업 이후, 약 20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평화는 16세기 후반 임진왜란(1592~ 1598)을 통해 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의 영토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특히, 전쟁 과정에서 사로잡힌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는 대규모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인 포로(노예) 중에는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

28)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 경세원), 2004. pp.143-145.

29) 당시 백제와 일본 왕실의 혈연관계는 마치 중세 및 근대의 유럽 각국의 그것과 흡사해 보인다.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통치했던 부르봉 왕가(1589년~1792년, 1815년~184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을 통치한 합스부르크 왕가(1273년~1918년) 등은 상호 복잡한 정략결혼에 의해 중흥으로 묶여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륙이 육로(陸路)로 연결되어 있던 유럽의 문화교류는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켰으며 이는 후일 유럽연합(EU)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대와 중세시대의 문화영토의 확장은 상단 부분 이러한 디아스포라(이주)를 통해 이루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으며³⁰⁾³¹⁾, 이들에 의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후 유럽에 까지 수출되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의 종전 이후 조선과 일본은 단절되었던 양국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에도(江戶)막부에 파견하였으며 조선인 전쟁포로(被虜人)을 송환해 오기도 하였다.³²⁾ 이후 한·일간의 이러한 교류는 조선통신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통신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일본의 막부 대장군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은 12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표2>

30) 가장 대표적인 조선의 도공(陶工)으로는 이삼평(李參平), 심당길(沈當吉) 등이 있었으며 특히, 심당길은 일본 도자기 문화를 대표하는 심수관(沈壽官)의 조상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은 이후 광해군 때 7천여명이 귀환하였지만, 안토니오 코레아의 사례에서 보듯 유럽 각지로 팔려나간 조선인들이 상당수에 달했다.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 경세원), 2004. pp.371-372.)

31) 일본 승려 게이넨(慶念)의 일일기(日日記)는 임진왜란 당시 전쟁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일본에서 온갖 상인이 왔는데 그 중에 사람을 사고 파는 자도 있어서 본인의 뒤를 따라 다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서 줄로 목을 묶어 모아서 앞으로 몰고 가는데...(중략)...지옥의 아방(阿防)이라는 사자가 죄인을 잡아들이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생각될 정도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음, 『세상사람의 조선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p.86.)

32) 회답겸쇄환사의 주요 임무는 전쟁포로의 송환이었으며 총 3회(1607년, 1617년, 1624년) 파견되었다.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은 1636(인조14년)이후 붙여지게 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음, 『조선사람의 세계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p.92.)

〈표2〉 조선통신사의 일정 및 규모

회차	서기	조선의 연대	정사	임무	사행 인원	출발 시기
1	1607	선조 40년	여우길	강화, 국정탐색, 피로인 쇄환	540명	1월
2	1617	광해군 9년	오윤겸	피로인 쇄환, 오사카 평정 축하	428명	7월
3	1624	인조 2년	정립	피로인 쇄환, 쇼군 습직 축하	460명	8월
4	1636	인조 14년	임광	태평축하	475명	8월
5	1643	인조 21년	윤순지	쇼군 탄생 축하	477명	2월
6	1655	효종 6년	조형	쇼군 습직 축하	488명	4월
7	1682	숙종 8년	윤지완	쇼군 습직 축하	473명	5월
8	1711	숙종 37년	조태억	쇼군 습직 축하	500명	5월
9	1719	숙종 45년	홍지중	쇼군 습직 축하	479명	4월
10	1748	영조 24년	홍계희	쇼군 습직 축하	475명	11월
11	1764	영조 40년	조엄	쇼군 습직 축하	472명	8월
12	1811	순조 11년	김이교	쇼군 습직 축하	336명	12월

※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음, 『조선사람의 세계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p.97.의 〈조선통신사행 일정과 규모〉 ; 손승철, 『조선통신사의 길 위에서』, (파주:역사인), 2018. p.28. 〈조선 후기의 일본사행 일람〉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통신사는 1607년 이후 12회 동안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그 규모는 최저 336명(순조11년 1811년)에서 최대 540명(선조40년 1607년)정도였다. 이는 오늘날의 국가 간 경제·문화사절단의 규모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12차례의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해 일본 땅을 밟은 조선사절단은 연 인원 5,603명이었으며, 204년간 12차례 파견임을 고려할 때 평균 17년에 한번 씩 466명 규모의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향해 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통신사 일행에는 정치인과 관료 뿐만 아니라, 통역관, 제술관, 화원, 악공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동행했던 점도 매우 흥미롭다.³³⁾ 결국, 조선통신사의 일본 파견은 조선의 선진 문화가 일본에 전수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문화영토가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후기까지 일본 곳곳에 서 단단하게 뿌리내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의 확대

본 연구자는 앞서 I 장. 4절. 용어의 정의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제품, 기술, 생활양식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유행 및 선호현상을 한류(韓流)로 정의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한류문화의 전파지를 한국의 새로운 문화영토라고 가정할 때, 한국이 외국에 전파한 문화적 영역은 다음과 같은 11개 범주로 압축해 볼 수 있었다.<표3>

<표3> 한류문화의 11대 영역

대중문화 콘텐츠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① 방송	⑧ 뷰티
② 영화	
③ 음악	⑨ 패션
④ 공연	
⑤ 게임	⑩ 음식
⑥ 만화	
⑦ 출판	⑪ 관광

※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9 한류백서』, 2019. pp.1-2.

33)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의 행렬은 일본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통신사가 지나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당시의 행렬을 모방한 마쓰리(祭り)가 지역축제로 재연되고 있으며 당인(唐人)행렬과 당자(唐子)춤은 조선통신사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춤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조선사람의 세계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pp.120-123.)

〈표3〉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류문화가 강세를 보인 영역이 방송, 영화, 음악, 공연 등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연예산업이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영화, 드라마, K-pop,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세계인이 접해 보지 못했던 독특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유전자와도 연결되며³⁴⁾, 이들 요소가 기존의 장르(pop음악, 영화, 공연, 방송)와 상호 융합되면서 세계인이 열광할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한 영화〈기생충〉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의 문제를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독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⁵⁾

이러한 한류문화의 발달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발달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표4〉

〈표4〉 한류문화 발달과정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신한류 (K-Culture)
시기	1997년 ~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 2019년	2020년~

34) 문화관광부 및 한국국학진흥원이 꼽은 한국인의 10대 문화유전자로는 ①정, ②흥, ③역동, ④자연스러움, ⑤어울림, ⑥공동체, ⑦예의, ⑧곰삭음, ⑨끈기, ⑩해학 등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대 전략”, 『CEO Information』, 제899호 (2013.06.19.), 2013. p.12.)

35) 한국 영화중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영화로는 기생충(12.4%), 부산행(7.9%), 극한직업(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류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 51.8%(2016년)에서 70.5%(2019년)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0, p.10. ; p.18.)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신한류 (K-Culture)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세계화 세계적 스타 상품 등장	한류의 다양화+ 세계화 (온라인 소통)
핵심분야	드라마	대중음악	대중문화	한국문화 +연관산업
대상국가	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일부 등	전세계	전 세계 (전략적 확산)
소비자	소수 매니아	10~20대	세계시민	세계시민 (맞춤형 접근)
주요매체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	유튜브, SNS	모든 매체	모든 매체
키워드	한류생성	한류심화	한류 다양화	新한류
대표 콘텐츠	〈사랑이 뒤통스〉, HOT, NRG	〈겨울연가〉, 〈대장금〉	K-pop, 싸이	〈기생충〉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2020.7.16.), 2020. p.2. 표〈한류의 구분〉 ; 고정민, 『한류와 경영』, (서울:(주)푸른길), 2016. p.71. [그림 3.1]한류의 발전단계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4〉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류의 발달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초창기 한류(1.0)은 한국의 드라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매니아층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향유지역도 현재와 달리 일부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에 편중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음악의 해외진출과 함께 10~20대의 젊은 층이 열광하는 팬덤(fandom)을 형성하게 되었다. 뒤이은 한류문화 3.0은 싸이와 같은 세계적 스타의 등장과 함

계 한류가 일부 지역이나 연령층이 열광하는 문화가 아닌 전세계인이 환호하는 문화상품이자 한국의 문화영토로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류문화는 단순히 드라마나 대중음악에 편중되지 않고 공연, 방송,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COVID-19)의 등장과 함께 한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전세계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급감했지만, 이제 한류는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들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2) 해외 각국의 문화영토

가)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과거에 비해서는 덜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한자(漢字)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한 편이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나듯 한자는 한글이 탄생하기 전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글 전용정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식인들이 사용한 문화적 표현 도구이기도 했다. 가히 동양의 라틴어 역할을 했던 한자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해져 현재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이라는 용어 자체는 20세기 이후 생겼지만, 한자문화권의 실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음을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자문화권이 가진 특성은 한자(漢

字)라는 공통의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면서도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³⁶⁾

한자문화권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갑골문(甲骨文)이 사용되기 시작한 상(商) 왕조(B.C.1600~B.C.206)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된 것은 고조선 후기(철기시대)로 추정된다.³⁷⁾ 하지만, 중국과 언어권이 다른 특성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한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언어적 특성에 맞게 한자를 변용하여 활용하였다. 이두(吏讀), 향찰(鄉札), 구결(口訣)은 이러한 중국의 한자문화가 한국에 지역화(locality)하여 정착되는 과정이었다.³⁸⁾ 당시 지식인들은 한자를 이용하여 글을 쓰거나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당시 한자가 가진 동아시아에서의 위상(位相)이라틴어에 비견될 정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 있듯 한자문화권에서의 한자수용은 일방적인 중국 문화의 전파라기보다는 지역과 민족의 특성에 맞게 변용되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자문화의 지역화와 관련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도 각 민족 간의 소통은 여전히 한자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한자가 가진 문화영토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의미의 한자문화권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³⁹⁾ 한자어를 통한 어휘와 문화적 유산들이 여전히

36) 허철, “한자문화권의 변화와 한자·한문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자한문교육』27. 2011. pp.78-79.

37)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 경세원), 2004. p.127.

38) 이러한 과정은 일본의 한자 전래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한자를 변형한 가나문자를 만들어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9) 한국에서의 한글창제 및 한글전용 어문정책의 도입, 일본의 히라카나, 카타카나로 한자어 대체, 중국의 간체자(簡體字) 도입으로 사실상 한자문화권이 해체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여전히 한·중·일 3국에 있어 한자는 중국의 문화적 영토로 실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요소로 견재하고 있다는 점은 한류문화 영토의 지속과 발전방향 탐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⁴⁰⁾

나) 프랑코포니(Francophonie)

중상주의 시대 이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들로는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 중 프랑스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랑코포니(Francophonie)는 문화 영토의 의미와 발전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프랑코포니(francophonie)는 ‘프랑스어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며(OIF정의),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 (Francophonie)’ 등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⁴¹⁾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영토로서의 프랑코포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한자문화권과는 다르게 프랑코포니는 OIF(국제프랑코포니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라는 국제기구를 결성한 점이 특이하다. 이 기구의 가입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 61국, 참관국 27국 등 총 8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⁴²⁾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의 출발은 프랑스의 주도가 아닌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던 식민지 지도자들에 의해서였다. 1970년 3월 20일 창설된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의 가입국들은 주로 프랑스의 구(舊) 식민지 국가들

40) 본 연구의 주제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인 한류(韓流), 문화영토(文化領土)라는 개념도 한자에서 기반한 기법이며 이는 한글로 표현되었을 때와 달리 한자로 표현될 때,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41) 서옥원, “프랑코포니의 이해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프랑스문화연구』36, 2018. pp.175-176.

42) 프랑코포니 국제기구(<https://www.francophonie.org/>).

이 다수였지만, 그와 무관하게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과 국가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⁴³⁾ 예컨대, ①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프랑스어 사용국가(또는 지역), ②프랑스의 인접국은 아니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또는 지역), ③전통은 아니나 프랑스어 사용 국가(또는 지역)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코포니 국가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국가 분류

참여형태	국가 및 지역명
회원국 (61개국)	가나, 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도미니카 연방, 라오스,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도바, 바누아투, 베냉, 베트남, 벨기에, 왈롱-브뤼셀 연방(벨기에),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 루시아, 스위스, 아랍 에미리트, 아르메니
회원국	아, 아이티, 안도라, 알바니아, 이집트,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퀘벡(캐나다), 뉴브런즈윅(캐나다), 코모로, 코소보,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토고, 튀니지, 프랑스, 누벨 칼레도니(프랑스)
참관국 (27개국)	감비아,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타, 루이지애나(미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온타리오(캐나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폴란드, 헝가리

※ 출처 :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https://www.francophonie.org/>).

43)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가입국도 있지만, 지역 단위의 가입도 있다. 캐나다 퀘벡주지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 더불어,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도 회원국 내지는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의 역할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프랑스어와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증진, 둘째, 평화·민주주의·인권의 증진, 셋째, 일반 교육연수·고등교육 및 연구 지원,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⁴⁴⁾

이상에서 프랑코포니 국제기구는 프랑스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근 국가(지역) 및 과거 식민지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이는 프랑스어 사용권 공통의 문화영토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었다.⁴⁵⁾

3) 시사점

3장에서는 문화영토의 역사적 기원과 한류 현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는 문화영토 확대 및 발전을 통한 문화 전수 및 교류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아득

44) 조윤미, “프랑스어 교재의 프랑코포니 문화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20.

45)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해외 식민지를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독립전쟁 등으로 인해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프랑스어의 영향력은 점차 영어에 밀려 줄어들게 되고 알리앙스 프랑세스(프랑스어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필두로 한 프랑스어 학습자도 감소하게 된다. 미테랑 정부는 프랑코포니 확대를 위해 비(非) 프랑스어권 사용국(지역)도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문화외교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국도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프랑코포니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 (; 광민경, “미테랑 정부의 프랑스 문화외교 변환: ‘알리앙스 프랑세스’와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76-82.)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영토 발전정책은 한류문화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히 먼 선사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줄 곳 이어지고 있었으며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우리 고유의 지역성이 가미된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거에도 현재의 한류와 비견되는 문화영토의 확장과 발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예컨대, 삼국시대 때의 일본에 대한 문화 전수,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한 한·일간 상호교류 등은 현재의 한류가 과거로부터 기원하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었다. 더불어, 그 형태는 한반도에서 디아스포라(이주) 또는 문화사절(조선통신사)의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해외 각국의 문화영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자문화권과 프랑코포니(Francophonie)국가들에 대해 주목하여 보았다. 이 두 문화권은 한자와 프랑스어라는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진 문화영토의 확대 현상이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주변 국가로 문자가 전해진 후 물질문명(文明)과 정신문화(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가 물 흐르듯 전파되는 문화영토 확대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장은 한자문화권이나 프랑코포니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예컨대, 앞의 두 문화권과는 달리 문자나 언어가 아닌 철저히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영토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에 열광하면서 시작된 한류 팬덤이 한국어 사용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문화영토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언어(문자)의 자리를 문화콘텐츠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공토 확대를 통한 한국의 문화영토 발전 방향

1) 혐한(嫌韓)과 반한(反韓)의식의 확대

한류문화를 통한 문화영토 확장에 대해 긍정적이며 장밋빛 전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역풍(逆風)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물론, 한류현상 자체를 그 원인으로 전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혐한과 반한의 감정은 단순히 한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일 삼국간 역사인식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한류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류문화영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류문화 콘텐츠만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적 리스크(Risk)를 극복하고 국가간의 선순환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상호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일본의 혐한 감정은 대규모 시위, SNS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간의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⁴⁶⁾ 중화권(中華圈)인 중국, 대만 등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⁴⁷⁾ 이러한 일부 사례는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혐한과 반한의식은 본 연구의 주제인 한류문화영토의 발전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한류문화에 대한 좋지 못한 감

46) 조선일보, '日 가와사키市 "혐한시위 처벌"', 2020.7.1.일자 기사.

47) 파이낸셜 뉴스, "'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2018.12.1.일자 기사.

정이 심화·확산될 경우, 이는 한류가 본래 추구했던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과 교류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문화 제국주의 내지는 문화적 침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류의 미래에 대한 시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표6>

〈표6〉 한류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한류 ‘지속’ 시나리오	한류 ‘일시적 유행’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순환 모델을 통해 한류가 확대·재생산되는 가설임. • 한류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냄. •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확대됨. • K-pop와 같은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미용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됨. • 한류 확대로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투자증가로 연계됨. • 위의 과정을 통해 한류는 지속적으로 확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일로에 있던 한류가 경쟁력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 유행으로 끝남. • 반한류 정서나 혐한류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제작비가 상승함. • 문화적 상호교류가 아닌 문화침투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문화적 자존감을 상하게하며, 이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함. • 반한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류가 타격을 받으며 그 자리를 자국의 대중문화가 점유함. • 한류문화콘텐츠의 경쟁력 상실로 제작비가 증가하며 이는 다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함.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韓流 지속화를 위한 방안”, 『issue paper』, (2005.11.7.), 2005. pp.64-67.의 내용을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재구성함.

〈표6〉은 한류의 ‘지속’과 ‘일시적 유행’을 예측한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한류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 볼 수 있었다. 한류 지속 모델은 한류문화가 미래에도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문화영토로 남게 된다는 가설이다. 반면, ‘일시적 유행 모델’은 한류가 조만간 쇠퇴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한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점은 한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각국의 정서(情 緒)와 관련한 부분일 것이다. 특히, 혐한류나 반한류의 정서가 확대되어 한류문화를 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악순환은 한류의 쇠퇴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류문화의 쇠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한류를 문화교류가 아닌 ‘문화침투’ 내지는 ‘문화적 침략’으로 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거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계가 한국의 영화관을 석권했던 우리 사례에서도 살펴보듯 한류문화의 활발한 국외 진출과 이로 인한 해당 국가의 문화적 위기감 표출은 한류의 쇠퇴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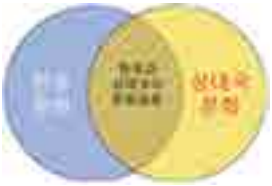
2) 문화공토(文化共土)의 개념 제안

앞서 용어의 정의에서 본 연구자는 문화공토(文化共土)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한 바 있다. 문화공토는 홍일식이 제안한 문화영토의 기존 개념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영토 개념이 가진 정치적·지리적·배타적인 성격을 완화하고 한류문화를 수용하는 국가들과의 창조적인 문화공유 활동을 통해 상호 공존·공영하기 위해 필요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표7>

48)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스크린쿼터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확보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개봉관(開封館)을 선점함에 따라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매년 의무 상영 일수를 정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국내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의한 항의와 시위 등이 줄을 잇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선례는 한류문화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7〉 문화영토(文化領土)의 개념과 대비한 문화공토(文化共土)의 개념

대상 항목	문화영토	문화공토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문화영토 • 한자: 文化領土 • 영문: Cultural-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문화공토 • 한자: 文化共土 • 영문: Cultural-Commonland
개념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의미의 국경에 의한 영토가 아닌 문화를 토대로 한 민족생활 공간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세계 각국(한류문화 진출국)이 함께 공유하는 확장된 개념의 문화영토
개념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정의되는 영토가 아닌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영토의 개념 • 배타적, 피해의식, 적대의식을 탈피한 평화적 개념 • 한류상품 및 문화가 소비되는 영역 • 기존의 지리적 국경을 문화영토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영토(領土) 개념이 가진 지리적·정치적 의미를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공토(共土/commonland)라는 신(新)개념을 도입함. • 문화공토는 기존의 문화영토가 가진 진출, 소비, 점유의 의미를 벗어나 한류문화라는 공통의 키워드 (key-word)를 바탕으로 공동의 문화적 영토로서의 의미를 지님.
반한(反韓) · 혐한(嫌韓)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토 자체의 의미는 평화적인 의미이나 영토라는 개념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힘들. • 영토라는 개념 및 어휘 자체가 가지는 폐쇄성, 배타성으로 인해 한류 문화 진출국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개념이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토(共土/commonland)라는 공유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한류 문화가 진출하여 각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영토를 양국 공통의 문화적 영토(업적)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한류가 문화적 제국주의나 문화침투의 일환이 아님을 강조함.

대상 항목	문화영토	문화공토
<p>개념 도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문화가 타 지역 진출을 통해 경제·문화적 영토 확장 • 한류문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이익 추구 • 한국 문화중심의 문화영토 확장 • 한류문화와 한류문화 진출 해당국간의 상호 문화적 교류를 추구하나 한류문화의 해외전파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문화가 해외로 진출하고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문화영토를 확장 • 상대국 문화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문화의 문화적 교집합 형성 (문화적 하이브리드(hybrid) 추구) • 상호문화가 교차하는 제3섹터 형성 (한국과 상대국의 문화적 공토)
<p>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한류)에 대한 자긍심 확인 및 대외 전파 (한류문화 > 해당국(타국) 문화) * 한국적 문화의 전파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한류)에 대한 자긍심 및 한류 진출 해당국 문화에 대한 존중 (한류문화≒해당국(타국) 문화) * 한국적 문화와 해당국(한류문화 진출국)의 문화적 융합을 통한 공동의 문화영토 추구
<p>궁극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적 문화교류를추구하기도 하나, 한류문화의 대회 확장에 주력 (경제적 이익 + 문화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존, 공영하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전략 추구

구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 (진출) (대중문화, k-pop, 대중예술, 게임, 공연, 생활방식(life-style)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추구) • 한류 콘텐츠와 타 산업의 융합 • 세계 각국의 한류문화 팬덤 (fandom) 형성 및 창출 • 한류 유통 플랫폼 구축 •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을 통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파 • 한국어의 제2외국어화 지원 • 근본적으로 한류문화를 통한 세계 진출을 통해 한국의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문화적 성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가치를 해외 진출국의 문화적 콘텐츠와 결합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맞춤형 현지화 전략) • 한류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기구 구축을 통한 한류 협의기구 구성 (가칭)한류문화 국제협력기구 • 해당 국가에 대한 한류문화 진출 기업(주체)의 사회적 책임 실천(해당 국가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 해당국 문화에 대한 존중 + 한류 스타의 윤리적 규범 준수) • 지나친 상업성은 경계하고 해당국 (지역)의 문화적 성장을 돕는 캠페인 전개 (긍정적 이미지 구축) • 지나친 자국성, 선정성 지양
------	--	--

〈표7〉은 문화영토의 개념과 대비한 문화공토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문화공토는 한국과 한류문화진출 대상국(해당국)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영토로서 기존 문화영토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더 개방적이며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문화공토는 우리만의 문화영토가 아닌 한국과 한류문화를 수용한 해당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통의 문화영토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한류문화와 한류문화 수용국의 현지문화가 융합된 하이브리드(hybrid)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문화적 우위에 초점을 두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류문화의 일방적 전파와 수용이 아닌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적 협력

(collabaration)에 방점(傍點)을 두고 있으며, 한류문화와 해당국 현지(現地) 문화의 우열성(優劣性)이 아닌 동등성(同等性)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상호 교차하는 교집합을 형성하는 제 3섹터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한류문화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한류문화 진출 대상국 문화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다.

3) 문화공토를 통한 한류문화영토의 확대방안

가)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

기존에는 우수한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진출하여 경제적·문화적 영토를 확대하는 형태의 패러다임(paradigm)을 중심으로 한류문화 관련 정책이 전개되었다. 한류문화 콘텐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예컨대, K-pop, K-food, K-beauty, K-drama 등 다양한 형태의 K-culture는 SNS나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지구촌 곳곳으로 확대되어 한류 팬덤(fandom)을 구축하고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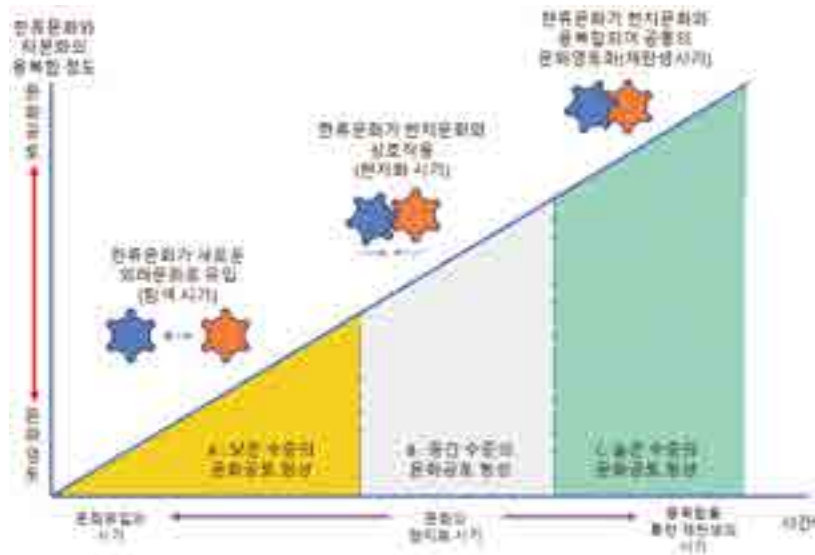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한류문화의 해외 진출에 대해 이를 문화적 침투, 나아가 침략으로 받아들이는 반한류·혐한류 정서가 증가하면서 한류의 지속성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한류 진출 대상국의 부정적 정서(情緒)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영토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예컨대,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 中心主義)의 관점에서 문화영토를 확대한다는 관점보다는 문화공토를 공동으로 형성한다는 마인드 변화를 통해 해당 문화권과의 정치적·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류의 세계 진출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여 해당국과의 평화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는 한류문화의 진출은 세계인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류문화영토의 확대과정에서 상대국과의 문화공토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앞세운 한류영토확대가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리스크(Risk)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정부는 직접적으로 한류영토 확대에 개입하기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류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양성 및 교육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류문화의 확대와 관련한 스타트업(Start-up) 육성을 위한 생태태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영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공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문화영토에서 문화공토로의 전환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해질 때에는 현지화(現地化)과정을 거쳐 상대국의 문화와 융·복합의 과정을 통해 공통의 문화영토(문화공토)로서 재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영토 개념의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문화공토는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화가 아닌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문화공토의 개념은 상호교류를 통해 문화적 공통분모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문화적 영토개념의 진화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3]



[도3] 한류문화의 문화공토 형성과정

나) 한류와 현지문화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문화콘텐츠 개발

한류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문화의 고유성이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류문화 진출국의 현지문화와 융합한 하이브리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인 K-food인 김치는 이제 한국만의 음식 문화가 아닌 전세계로 뻗어나간 글로벌 음식문화의 대표 아이콘(icon)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현지의 문화, 종교, 관습과 맞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

다. 중동지역의 경우, 할랄푸드(halal-food)로 인증받은 음식만이 유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food도 현지문화와 결합된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띠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할랄문화를 고려한 제품가공, 식재료선정, 유통에서부터 해외 현지를 배경으로 한 공연, 드라마, 영화 제작 등 대한민국과 해당국가의 문화적 공통분모를 찾아나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게임과 e스포츠의 경우 해당국에서 이벤트성 대회를 개최하거나 e스포츠 게임의 배경을 한국이 아닌 해외로 설정하고 게임 등장인물을 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로 선정한다면 한류문화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구현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9>

<표9> 한류와 현지문화의 하이브리드 결합 전략

문화영역	한류와 현지문화의 결합 전략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지역의 할랄문화를 고려하여 K-food의 수출·진출시 할랄푸드 인증을 받은 유통과정, 식재료 등을 활용 • 국내 다문화 인구(결혼이주민,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와 연계한 한국과 현지문화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음식 개발사업 진행 • 외국 현지의 식재료와 한국의 조리법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K-food 개발 및 홍보
게임 및 e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를 배경으로 한 K-game과 e스포츠 게임 출시 • 현지 인물(캐릭터, 배경, 환경)을 고려한 게임 제작과 출시로 한국의 기술과 현지의 문화가 결합된 하이브리드적 문화콘텐츠 개발 • 영화·드라마와 연계한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개발(한류 및 해외 진출국의 문화적 아이템을 소재로 한 게임 콘텐츠 개발)
영화,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인 것과 해외의 문화가 상호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 현지(해외)를 배경으로 한 캐스팅(등장인물, 캐릭터, 지역, 사건 등)을 통해 한국이 만든 드라마이자 현지인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 영화를 제작

영화,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또는 국내 다문화 인구(결혼이주민,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를 활용한 정확한 번역(翻譯)을 통해 오역(誤譯) 방지 • 영화, 드라마를 활용한 파생상품의 개발(음식, 화장품, 공연, 음악 등) • 외 현지의 문화적 정서, 종교, 인종, 문화 등을 존중하는 영화, 드라마 제작(인종차별, 한국문화 우위(중심적)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은 지양, 현지인·외국인 비하 등에 대한 예방을 통해 반한류, 혐한류 예방)
---------	--

〈표9〉의 내용은 [도3]에서 제시한 한류문화의 문화공토 형성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예컨대, 한류와 현지문화의 하이브리드화 전략은 높은 수준의 문화공토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한류와 현지문화가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공토로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지문화를 고려한 한류문화의 확대는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활발하게 현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한류 진출 주체의 사회적 책임 준수

최근 한류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risk)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한류스타의 잘못된 발언과 일탈로 인해 어렵게 다져진 한류의 문화적 위치와 영토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한류스타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한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도 함께 증가하여

한국과 한류문화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⁹⁾ 그 과정에서 특히 해외 각국에 진출한 한류문화 관련 기업이나 주체들이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로 인해 반한·혐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한류 진출 주체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해외에서의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류문화를 통해 문화공토를 확장하여 공동의 문화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된다. 해당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상호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 나라의 종교나 관습,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경솔하게 표현하거나 한류스타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분명한 규범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한류 진출국의 문화적 성장을 주도하는 캠페인 전개

앞서 문화공토의 형성 및 발전에 관한 내용에서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문화 중심적인 문화제국주의 내지는 문화 침략적 관점에서 한류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쪽에서는 열광적인 팬덤(fandom)이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반한, 혐한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한류문화의 확산을 자국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에게

49) 뉴시스, "몰카, 뇌물 그리고 한류'...WSJ, 정준영사건 파장 조명', 2019.3.19.일자 기사.

게 적잖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⁵⁰⁾ 한류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주체들이 한류 진출국가의 현지문화를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한류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부분이다. 자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거두는 한류스타나 기업, 그 밖의 한류문화의 주체들이 정작 해당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기여함이 없다면 이는 한류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문화적 침략자로 보이기엔 알맞은 행동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류 진출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제안한다.〈표10〉

〈표10〉 한류문화진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 전개

활동영역	캠페인의 세부적 내용
문화유산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문화진출국 대상 문화재(무형, 유형) 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문화재 유적 보호 캠페인(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등 불교권 국가) - 파손 문화재·문화유산 보존(보수)를 위한 펀드 조성 캠페인 - 국내 기업과 한류스타의 제휴를 통한 현지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 한류 진출국 현지의 문화유산을 국내에 알리는 전시활동 진행 (한류문화와 현지문화의 상호교류 촉진)
학술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문화와 현지문화의 문화적 공통성을 찾고 상호발전을 위한 취지의 학술모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한류문화협력기구, 세종학당, 현지 한국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 문화이해를 위한 학술 모임의 정례화

50) 노컷뉴스, '파고들기韓 스타들이 희생양?...中 문화 테러 어쩌나', 2021.2.18.일자 기사.

<p>학술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모임을 통한 한류와 현지문화의 상호발전적 협력방안 마련 - 한류문화의 발전방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해외 전문가 육성 (국내 초청 및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운영) - 한류와 현지문화를 함께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술지 창간, 운영
<p>문화제국 주의·침략 주의배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와 현지문화의 상호 발전을 위한 상호 문화교류 활동 및 이벤트 - 한류 진출국의 현지문화 이해를 위한 한류 진출국 현지문화 합동 컨퍼런스 축제 운영(매년 국내에서 개최) - 한류 진출국에 한류문화를 폭넓게 전파하고 한국에는 한류 진출국의 문화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소비 프로그램 운영

마) 해외 한류체험관의 구축

한국적인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 메이킹(image-making)이 필요하다. 물론, SNS나 공연, 전시 등을 통해 한국의 한류문화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류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적 요소의 전달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예컨대, 전세계의 명품 브랜드는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거친 과정을 스토리(Story)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한류 역시 그 역사는 짧으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한류 문화가 거쳐온 성장 과정을 해외의 한류 팬덤에게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발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한류문화 체험관을 한류문화가 진출한 세계 각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문화영토를 확대하고 한국과 해외 각국의 문화공토로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세종학당이나 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의 일부를 한류문화체험관으로 구축하여 한류문화의 발달과정과 주요 문화적 아이템(item)을 스토리텔

링 형태로 전시·체험함으로써 해외 한류 팬덤의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류문화체험관은 한국의 한류문화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체험과 함께 해외 팬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개방함으로써 양국간의 문화외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문화공토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영토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기생충(2020)’, ‘미나리(2021)’의 수상과 함께 한류는 영향력있는 문화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한류가 코로나19의 확산, 혐한·반한 정서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둘째, 문화영토는 문화를 토대로 한 민족생활 공간의 일체로 정의되고 있다. 홍일식이 제안한 이 개념은 지리적·국제정치적 관점의 영토가 아닌 문화향유자들이 해당 영토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영토’가 가진 개념적 폐쇄성이 너무 강하여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한류문화의 해외 진출에 적용할 경우, 문화적 침투나 침략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셋째, 현재의 한류 이전에도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이에 버금가는

문화영토를 넓혔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멀리 선사시대에 일본에 선진문화를 전수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주민들에 의해 일본의 정치·문화적 시스템이 형성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조선 후기에는 12차례의 통신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수한 바 있다.

넷째, 해외 각국의 문화영토 확대와 관련하여 한자문화권과 프랑코포니(Francophonie)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자문화권과 프랑코포니는 언어(문자)를 매개로 광대한 문화영토가 형성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한류문화는 앞의 두 문화권과는 달리 철저히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영토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영토 확장의 중요 매개체로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한류문화 영토의 발전을 위해 본 연구자는 기존 문화영토의 개념을 한단계 심화·발전시킨 문화공토(文化共土·Cultural Commonland)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문화공토는 기존의 ‘영토’개념이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국과 세계 각국(한류문화 진출국)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영토라는 의미를 가지며 문화제국주의나 침략주의적 관점이 아닌 상호문화 이해를 통한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류를 통한 문화공토 확장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수출, 소비가 아닌 한국과 해외문화의 협력(collaboration)을 통한 문화적 하이브리드(hybrid)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이는 한류문화가 현지문화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융복합과정을 거쳐 구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문화공토를 통한 한류문화 영토 확대를 위해 본 연구자는 ① 문화공토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유도, ② 한류와 현지문화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문화콘텐츠 구축, ③ 한류 진출 주체의 사회적 책임 준수, ④ 한류 진출국의 문화적 성장을 주도하는 캠페인 전개, ⑤ 해외 한류체험관의 구축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영토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980년대 초, 홍일식의 연구 이후 문화영토에 대한 진전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을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영토 개념을 심화·발전시킨 연구이며, 추후 문화공토의 개념을 포함한 문화영토의 개념에 대한 발전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류문화의 해외 진출과정에서 반한류, 혐한류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한류문화는 한국문화가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 진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한류문화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수익 창출은 한편으로는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1. 고정민, 『한류와 경영』, (서울:(주)푸른길), 2016.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 : 삼국의 문화』, (서울: 탐구당), 2013.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4. _____, 『조선사람의 세계여행』, (서울: 글항아리), 2014.
5. 손승철, 『조선통신사의 길 위에서』, (파주:역사인), 2018.
6. 아나부아키라著·박양신譯, 『한단어 사전, 문화』,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3.
7. 재러드 다이아몬드著·김진준譯, 『총, 균, 쇠』, (서울:문학사상), 2014.
8. 차종환, 『세계 각국 문화와 한류 열풍』, (서울: 도서출판 예가), 2016.
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9 한류백서』, 2019.
10. _____, 『2020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0.
11.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2004.

□ 학위논문

1. 곽민경, “미테랑 정부의 프랑스 문화외교 변환 :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신용우,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 조윤미, “프랑스어 교재의 프랑코포니 문화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학술논문 및 보고서

1. 박치완, “왜 글로벌문화콘텐츠인가?”, 『인문콘텐츠』20. 2011.
2. 삼성경제연구소, “韓流 지속화를 위한 방안”, 『issue paper』, (2005.11.7.), 2005.
3. _____,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대 전략”, 『CEO Information』, 제899호 (2013.06.19.), 2013.
4. 서옥원, “프랑코포니의 이해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프랑스문화연구』36, 2018.
5. 이윤규, “미래 통일한국의 글로벌 경제영토와 문화영토 확보 전략”, 『신라리더십연구』9, 2016.
6. 허철, “한자문화권의 변화와 한자·한문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자한문교육』27, 2011.
7. 홍일식,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 『영토문제연구』1. 1983.
8. _____,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2. 1985.

□ 신문 및 언론매체

1. 노컷뉴스, [‘파고들기’]韓 스타들이 희생양?…中 문화 테러 어쩌나, 2021.2.18.일자 기사.
2. 뉴시스, “몰카, 뇌물 그리고 한류’…WSJ,정준영사건 파장 조명”, 2019.3.19.일자 기사.
3. 박종렬, [경제프리즘] ‘문화영토’ 넓히는 BTS’, 경기일보, 2020. 1.27.일자 기사.
4. 세계일보, “아카데미상 4관왕 봉준호 감독, 할리우드 러브콜 쏟아질까?”, 2020.2.1. 일자 기사.
5. 연합뉴스, ‘험한 부추기는 日언론…K팝·가수 부정적 보도 줄이어(종합)’, 2018.11.13. 일자 기사.
6. _____, [‘차이나통통’] ‘한류 반감’ 이면엔 뿌리 깊은 중화사상’, 2017.11.17.일자 기사.

7. 조선일보, '日 가와사키市 "혐한시위 처벌"', 2020.7.1.일자 기사.
8. 파이낸셜 뉴스, "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2018.12.1. 일자 기사.

□ 홈페이지 및 인터넷 자료

1. (재)문화영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ict.or.kr/1ceo.html>).
2.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57d4eed42f4680be1bd32e62ab642>).
3.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f2a225128be43dc963c63e1ed32212f>).
4.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f3e780ecc584d2da295786cb2d1816a>).
5.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https://www.francophonie.org/>).
6. doopedia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778).
7. _____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463&cid=40942&categoryId=65588>).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Wave Cultural Territory -Focusing on the concept of cultural commonland-

Kim, Sol

As the Korean Wave culture forms a global fandom, the anti-Korean and anti-Korean sentiment, which sees it as a cultural invasion, is also deepening. The expansion of cultural territory through the Korean Wave is welcome at first glance, but the antipathy must be burdensome.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Wave cultural territory, and presented the concept of cultural commonland, which further deepened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existing cultural territory, as a new paradigm. If all of the national living spaces based on culture are cultural territories, cultural commonland refer to cultural territories shared by Kore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n Wave Culture Advancement Countries). In the past, the Korean Wave policy focused on expanding our cultural territory and obtain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overseas exports of Korean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 new paradigm, cultural commonland, aims to create a common cultural territory in which Kore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exist and share the keyword korean wave culture, and at its core lies respect for mutual culture. To materialize this, this study suggested inducing a paradigm shift to cultural territory, establishing hybrid

cultural contents that combine korean wave and local culture, complying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wave participants, developing campaigns leading the cultural growth of korean wave countries, and establishing overseas korean wave experience centers.

key word : Korean Wave, Cultural Territoty, Cultural Commonland

김 솔

전 자 우 편 : kimsol1972@naver.com

논문 접수일 : 5월 30일

심사 완료일 : 6월 15일

게재 완료일 : 6월 25일

『주역』으로 읽는 봉준호 영화 〈옥자〉의 문화사적 의미 - 생태주의 담론과의 지평 융합을 중심으로

이 찬¹⁾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주역』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삼아 봉준호 영화 〈옥자〉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나아가 〈옥자〉와 봉준호 영화 전반에 깃든 생태주의 세계관을 『주역』의 용어와 담론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양자의 상생(相生)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평 융합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국수주의적 차원의 민족주의나 자기중심적 전통성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이미 발흥한 탈근(현)대 사유와의 ‘생산적 대화’를 통해, 『주역』의 현대적 해석 및 계승 가능성을 충실하게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표상될 수 있을 생태주의 담론과의 교호 및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 시도된 『주역』과 생태주의 담론의 지평 융합은 〈옥자〉와 봉준호 영화 전체의 연구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창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서구 생태주의 담론에 깃들어 있는 공생의 세계관과 더불어, 『주역』의 해석 담론에서 연면히 계승되어온

1)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부교수

“시중(時中)”의 윤리학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시도한 동·서 사유의 지평 융합 시도가 다양한 여러 논의를 촉발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후속 연구들이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계승의 맥락을 통해서만, 인간과 자연,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남성과 여성 다수자와 소수자 등으로 표상되는 세계의 무수한 이원 대립 구도들을 “중(中)”의 사유 또는 “시중(時中)”의 윤리학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주의 담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 담론이자 실천 전략으로서, 긍정적인 비전과 ‘선한 영향력’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봉준호, 옥자, 주역, 생태주의, 감응(感應), 대대(對待), 시중(時中), 상보성의 원리

가.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주역』으로 표상되는 한국 및 동아시아 전통 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취택하여 봉준호 영화 〈옥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또한 이 해석이 함유하게 될 문화사적 의의를 명시하면서, 근·현대 세계의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 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한류”로 지칭되어 온 우리 문화의 세계적인 유행과 영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문제들(problematic) 역시 18세기 근대과학문명의 발생 이후로 세계의 지배권을 행사해온 서구중심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그 문명사적 맥락 전체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미래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기원한다. 또한 〈옥자〉와 봉준호 영화 전반에 깃든 생태주의 세계관을 『주역(周易)』의 용어와 담론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양자의 상생(相生)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평 융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 것이면 모든 것이 좋고 우수하다는 국수주의적 차원의 민족주의나 자기중심적인 전통성으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구 근대과학문명의 한계와 폐단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와 비전을 저 문명권 자체에서 생성된 생태주의 담론과 더불어 한국 및 동아시아에서 연면히 계승되어온 『주역』 담론의 지평 융합을 통해 모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20세기 이래 서구 사회에서 이미 발흥한 근대과학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흐름, 곧 탈근대 사유와의 ‘생산적 대화’를 통해 『주역』의 현대적 해석 및 계승 가능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표상될 수 있을 생태주의 담론과의 교호 및 융합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옥자〉는 2021년 현재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업체인 넷플릭스의 자본 투자로 탄생한 영화이다. 또한 2017년 신작 상영관에서 먼저 공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개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제70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제17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주인공 “미자” 역을 맡은 안서현을 제외한다면, 등장인물 대다수와 촬영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제작 관계자들이 미국 할리웃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자들로 채워지게 된 요인 역시 넷플릭스가 7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제작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제작 조건과 투자 환경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문화산업자본과의 연결 고리에도 불구하고, 〈옥자〉는 〈괴물〉과 〈설국열차〉에서 나타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초대형 인프라와 스케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서도, 사회비판적인 관점과 생태주의적인 세계관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계승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 세계에서 첨예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생태의 문제, 곧 유전자조작(GMO)식품의 위험성과 공장식 대량 사육 체제와 식품 생산방식의 잔혹한 진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위선적 운영이나 대중 미디어의 기만과 은폐효과 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준호 영화의 주요 특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어 온 현대 세계에 대한 풍자적 비판의 요소들을 충실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옥자〉는 봉준호의 이전 영화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고유한 담론과 세계관을 명시적인 문법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생태

주의 담론과 수평적 세계관 같은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주역』으로 표상되는 한국 및 동아시아 전통 담론과 현대의 생태주의 담론이 맺을 수밖에 없을 친연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가령 『주역』에서 나타나는 감응(感應)이나 감통(感通)이란 용어는 인간인 “미자”와 동물인 “옥자” 사이에서 형성된 “가족”과도 유대관계를 적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통해, 현대 생태주의 담론 가운데 한 분파를 이루는, 인간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제각각 고유한 존재의 권리와 영성(靈性)을 지니고 있다는 근본 생태주의 세계관의 기본 전제와 『주역』으로 표상되는 한국 및 동아시아 전통 담론의 상호 접맥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옥자〉에 관한 선행 논의들 가운데서도 생태주의 담론으로 그것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려 한 연구들²⁾은 하나의 주요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옥자〉를 그 미장센(mise-en-scène)이나 촬영 기법, 서사 구조 등과 같은 영화 미학이나 형식 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한 논의들³⁾보다는, 그것의 주제와 담론의 가치 지향

2) 고영민, 「'옥자'와 바이오산업... 육식의 종말은 가능할까?: 반려동물로 변신한 유전자 변형 슈퍼돼지」, 『지역정보화』 10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

김영수, 「김영수의 의외로 쓸모있는 개념어 사전-영화 〈옥자〉로 본 육식에 대한 고찰」, 『이코노믹리뷰』, 2017. 07. 18.

김규훈, 이원영, 김효연, 「생태학 관점의 비판적 언어인식을 위한 매체 수용의 학습 활동 설계-영화 〈옥자〉의 생태언어학적 비평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161, 2018.

진은경·안상원, 「영화 '옥자'에 나타난 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 『문학과환경』 제17권 제3호, 문학과환경학회, 2018.

3) 임정식, 「한국영화 속 괴물의 형상과 모험 서사의 변주 - 〈옥자〉와 〈미스터 고〉를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3호, 한국어문학학술포럼, 2018.

가음, 「영화 〈옥자〉를 중심으로 봉준호 영화의 서사모델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1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장세영, 「영화 '옥자'에 나타난 만화적 미장센」, 『조형미디어학』 제23권 3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20.

박진후·임대근, 「봉준호 장르의 가능성: 〈기생충〉의 크로노토프 서사전략」, 『영화연구』

성 또는 세계관적 좌표 등을 규명하려 한 연구들⁴⁾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옥자>가 기존의 봉준호 영화에서 나타났던 주제나 세계관을 혁신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특질과 의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국 <옥자>의 생태주의 담론과 세계관의 명시적인 도입을 가리킬뿐더러, 이에 입각한 스토리텔링의 전개와 다양한 미장센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행 논의들이 집적해온 생태주의 담론에 입각한 <옥자>의 주제론 탐구라는 주요 흐름을 계승하는 가운데, 『주역』으로 대변되는 한국 및 동아시아 전통 담론과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봉준호 영화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무대로 널리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온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을, 이른바 ‘한류’가 이후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담론과 문제를 역시 우리 문화 전통과 접맥된 것이어야 한다는 방향성과 비전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도가 후속 연구들로 이어지면서, 봉준호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류 콘텐츠를 우리의 전통 담론이나 문제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론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84호, 한국영화학회, 2020.

4) 주석 1)에서 명기한 논의들 역시 이 범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가치지향성과 세계관의 문제틀로 <옥자>를 해석했다고 하겠다.

오은경,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문화기술-세계화에 대한 우화로써 <옥자> 분석」,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7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9.

홍지수, 「영화 옥자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박부순, 「에코페미니즘으로 읽어 본 <옥자>」, 『영어영문학』 제25권 제3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20.

나. 感應의 우주관과 仁의 실천론

〈옥자〉의 주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표상할 수 있는 대목은 주인공인 인간 “미자”와 동물 “옥자”가 특정한 분절적 음성구조와 변별적 의미체계를 지닌 인간의 음성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의 느낌과 기분, 감정과 욕구를 충실하게 소통하는 장면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면들은 실상 인간중심주의 시선과 사유에 갇힌 우리들의 상식과 통념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낯선 느낌과 충격을 가져다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란도 그룹의 실험실로 끌려간 “옥자”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자”가 동물인 “옥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를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론적 계기와 비전을 품는다. 이는 인간이 소유한 분절적 음성구조와 변별적 의미체계로서의 음성언어보다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감응(感應) 또는 감통(感通)이 훨씬 더 근본적인 언어이자 소통 방식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일뿐더러⁵⁾, 이를 통해서만 인간이라는 특정 존재의 테두리를 넘어서, “천지만물(天地萬物)”이 화합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랑(愛) 개념, 곧 “인(仁)”이

5) 이 문제를 자끄 데리다가 말하는 ‘원초적 글쓰기’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초적 글쓰기’란 모든 목소리와 언어, 문자, 기호 등과 같은 것에 이미 깃들여 있는 ‘차연’ 그 자체인 동시에 그것이 그려놓은 ‘궤적, 흔적, 선, 표기’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미자와 옥자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교환, 곧 감응과 감통 현상을 음성언어 이전에 그 바탕을 이루는 ‘원초적 글쓰기’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초적 글쓰기’가 그 모든 감각 기관들의 ‘공조(synergy)’와 ‘공감각(synesthesia)’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해보면, “미자”와 “옥자”가 주고받는 무수한 교신 행위들은 모두 데리다가 제시한 ‘원초적 글쓰기’로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J.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lated by G. C.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 89;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민음사, 2010, 251쪽; 김상환, 「데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기호학연구』 제29집, 한국기호학회, 2011, 18쪽)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지만물”의 감응과 감통의 관계를 언술하고 있는 『주역』의 괘로는 “풍택중부(風澤中孚)”와 “택산함(澤山咸)”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풍택중부” 괘사에서 등장하는 “中孚는 豚魚면 吉하니 利涉大川하고 利貞하니라.(中孚는 민음이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니, 大川을 건넘이 이롭다)”⁶⁾는 구절은 <옥자>에서 형상화된 인간 “미자”와 동물 “옥자” 사이의 감응(感應) 현상을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구절에 관한 무수한 주석 가운데서도,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표준적 해석의 준거점으로 기능해왔던 정이천의 주석을 참조하면, 진정한 “감응”은 “가장 조급하고 어두운 물건”인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진실한 믿음(中孚)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⁷⁾ 또한 인간과 다른 못 존재와의 구분이나 차별을 넘어서, 또는 서로 다른 그 모든 존재 사이의 위계와 차이를 가로지르면서, “천지만물”과 우주 삼라만상으로 퍼져나가는 힘과 느낌과 분위기의 상호 침투이자 융합 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감응”임을 좀 더 명료하게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옥자>에서 “미자”와 “옥자” 사이의 감응 관계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뿐더러 다양한 미장센(mise-en-scène)⁸⁾을 통해 변주되

6)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下』, 전통문화연구회, 2019, 467-468쪽.

7) “豚躁魚冥하니 物之難感者也라 孚信이 能感於豚魚면 則无不至矣니 所以吉也라(돼지는 조급하고 물고기는 어두우니 물건 중에 감동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孚信이 돼지와 물고기를 감동시키면 지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길하다.)”(같은 책, 468쪽)

8) 미장센은 본래 프랑스 연극용어로서, “무대 위에 배치한다”는 뜻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화 장르에서 연극의 시각적 요소에 조형 미술이 더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의미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변모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에서의 미장센은 프레임 안 배우의 연기, 의상, 무대 디자인, 소품 등의 시각적 요소 뿐 아니라 조명, 카메라의 앵글, 카메라의 움직임, 프레임의 구성 등을 총망라 하는 개념으로, 연극과 촬영이 혼합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헐리웃 감독들은 대형 영화사 아래에서 작업하면서

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령 “옥자”가 첩첩산중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미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고즈넉한 풍경을 클로즈업 앵글로 보여주고 있는 도입부의 장면 전체는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수 천 년의 역사로 이어져 내려온 『주역』의 근본 전제로 기능하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감응(感應)⁹⁾ 현상, 곧 그 문화권이 추구해온 이상(理想) 세계이자 윤리적 유토피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달리 말해, 〈옥자〉의 도입부는 동물인 “옥자”와 인간인 “미자”가 “자연(自然)” 또는 “천지(天地)”에 부여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삼재(三才)의 비가시적인 감응 세계를 드러내고 있을뿐더러, 이를 통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조화로운 균형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는 『주역』의 전통적인 사유와 미학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돌을새김의 영상 미학으로 드러난 장면들로는,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미끄러져 벼랑 끝에 매달린 “미자”를 “옥자”가 제 온몸을 다해 구출하는 대목이나, “미자”가 계곡물에서 얻게 된 물고기들 가운데서 다 자란 것만을 취하고 작은 새끼는 다시

편집 통제권이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만큼은 구도와 조명, 소품, 배우의 행동들을 구성하여 자신만의 쇼트를 꾸밀 수 있었으며, 그러한 쇼트들이 모여 감독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즉, 미장센은 감독이 구사할 수 있는 표현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이지연, 장윤경, 김지은, 「시각문화 미술교육으로서 영화의 교육적 가능성 탐구: 미장센의 이해와 활용」, 『미술과 교육』 제20집 제4호,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19, 136-137쪽)

9) 『주역』 “계사전(繫辭傳)”의 “第二章”에는 “變化者是 進退之象也요 剛柔者是 晝夜之象也요 六爻之動은 三極之道也”라는 구절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주자는 “삼극이 천지인의 이치이며, 삼재가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다.”라는 주석을 제시한다. 이를 성백효의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三極은 天地人之至理니 三才各一太極也라 此는 明剛柔相推而生變化하고 而變化之極이 復爲剛柔하여 流行於一卦六爻之間하니 而占者得因所值하여 以斷吉凶也라(삼극은 天·地·人의 지극한 이치이니 三才가 각기 한 太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剛·柔가 서로 미루어 變·化를 낳고 變·化의 極이 다시 剛·柔가 되어서 한 卦 여섯 爻 사이에 유행하니, 점치는 자가 만난 바를 인하여 吉·凶을 결단함을 밝힌 것이다.)”(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下』, 528쪽)

방생하는 대목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들은 “천지만물” 가운데서 ‘저절로 그리한’으로 풀이될 수 있을 자연(自然)의 순리와 그 화육(化育)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하기에 “만물”은 그 어떤 차별이나 구분도 없이 자연의 순리인 “극즉반(極則反)”, 곧 우주 삼라만상의 ‘역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의 과정에 일부를 이루는 가치의 존재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주역』 “택산함”괘의 대상전(大象傳)에 등장하는 “天地感而萬物化生하고 聖人이 感人而天下和平하니 觀其所感이 天地萬物之情을 可見矣리라.(천지가 감동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동시키면 천하가 화평하니, 감동하는 바를 보면 천지 만물의 정을 볼 수 있으리라.)”¹⁰⁾라는 구절을 <옥자>의 도입부 장면¹¹⁾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연출한 봉준호의 사유와 세계관이 『주역』과 동아시아의 유기체적 자연주의¹¹⁾에 대한 깊은 교감과 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택산함”괘의 저 구절을 “觀天地交感化生萬物之理와 與聖人感人心致和平之道면 則天地萬物之情을 可見矣라.(천지가 서로 감동하여 만물을 화생하는 이치와 성인이 인심을 감동시켜 화평을 이루는 도를 보면 천지 만물의 정을 볼 수 있다)”¹²⁾라는 문장으로 풀이한 정이천의 주석에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활용하고 있는 “천지교감(天地交感)” “화생만물지리(化生萬物之理)” “천지만물지정(天地萬物之情)”이란 표현은 인간과 그 외부의 무수한 존재들을 차별 짓거나 구분하기보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로 표상되

10) 같은 책, 10쪽.

11) 조셉 니담, 『중국의 과학과 문명 II』, 이석호·이철주·임정대 옮김, 을유문화사, 1986, 389-391쪽.

12)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下』, 10-11쪽.

는 존재론적 유비 관계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역』으로 표상되는 동아시아 우주관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역』의 “천인합일” 세계관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 인(仁)으로 표상되는 사랑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옥자>의 스토리텔링 전체를 좌우하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f)가 “옥자”의 행방을 뒤쫓는 “미자”의 추격극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좀 더 섬세한 차원에서 요해할 수 있을 듯하다. 저 추격극의 배경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옥자”와 “미자” 사이의 돈독한 사랑의 관계, 곧 “인(仁)”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천지만물”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역』과 동아시아의 전통 사유와 담론이 <옥자>의 표면적 서사 전개와 뼈대를 구성하는 추격극의 원천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옥자>에 나타난 추격극의 요소들을 단지 거대 문화자본의 물량 공세나 블록버스터 장르의 컨벤션이나 형식적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상 헐리웃 영화의 기성 장르 문법이나 그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봉준호가 계속 시도해온 다양한 장르 크로스오버의 실험들이 마련한 성과와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성의 가치 전복과 새로운 의미 창안이라는 예술적 효과들을 발견치 못하게 강제하는 일종의 억압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등장하는 “與天地相似라 故로 不遠하
나니 知(智)周乎萬物而道濟天下라 故로 不過하며 旁行而不流하여 樂
天之命이라 故로 不憂하며 安土하여 敦乎仁이라 故로 能愛하나리
라.(천지와 더불어 서로 같으므로 서로 어기지 않으니, 지혜가 만물

에 두루하고 도가 천하를 구제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며, 사방으로 행하되 흐르지 아니하여 천리를 즐거워하고 천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며, 자리에 편안하여 仁을 돈독히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¹³⁾라는 구절에서 포착할 수 있듯, 봉준호 영화 <옥자>에서 “미자”와 “옥자”의 비상식적인 관계가 표상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우정이나 감정적 차원의 교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범주의 인(仁), 이른바 억조창생(億兆蒼生)으로 일컬어지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에 가깝다고 하겠다.¹⁴⁾

따라서 영화의 도입부 장면에서 동물인 “옥자”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위험에 처한 “미자”를 제 온몸을 바쳐 구출하는 장면이나, 첩첩산중의 산골에 묻혀 살았던 “미자”가 “옥자”를 구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추격전을 벌이면서 서울과 뉴욕이라는 냉혹하고 살벌한 자본주의적 상징 질서를 헤집어 놓는 장면은, 단지 흥미 요소를 증대시키고 상업적 흥행만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옥자>의 궁극적 주제의식이자 감독의 세계관으로 추정되는 생태주의 철학과 세계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지만물”의 감응과 더불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 조건으로서의 “인(仁)”의 실천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옥자>에서도 봉준호 영화의 특이점으로 명명할 수 있을 기성 장르 융합을 통한 ‘봉준호 장르’¹⁵⁾의 창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또

13) 같은 책, 532-533쪽.

14) “天地二氣 交感而化生萬物하고 聖人至誠以億兆之心而天下和平하니 天下之心所以和平은 由聖人感之也라.(天·地の 두 기운이 서로 감동하여 만물을 化生하고 聖인이 至誠으로 억조의 마음을 감동시켜 天下가 화평하니, 天下의 마음이 화평한 까닭은 聖인이 감동시키기 때문이다.)”(위의 책, 10-11쪽.)

15) 허문영은 봉준호 영화의 서사적 특질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봉

한 헐리웃 블록버스터 장르의 콘벤션을 영화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에서 오랜 역사로 견지되어온 감응(感應)의 우주관과 인(仁)의 실천론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對待의 존재론과 文明化의 성찰

〈옥자〉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그들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무대인 공간을 배치하는 원리로 무수한 이원(二元) 구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옥자”와 “미자”의 관계를 자연과 인간의 이원 구도로 해명할 수 있다면, 극 중에서 적대자(antagonist) 역을 수행하면서 미란도 그룹의 총수로 설정된 쌍둥이 자매 “낸시”와 “루시”는 각각 강(剛)과 유(柔), ‘구세대 자본의 폭력성’과 ‘신세대 자본의 기만성’을 알레고리 기법으로 형상화한다. 더 나아가, 〈옥자〉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이원 구도는 인간과 자연, 강과 유, 시골과 도시, 뉴욕과 서울, 서양과 동양으로 계열화되면서 거시적인 차원의 텍스트 구성 원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미란도 그룹”이라는 동일 조직 내부

준호 장르’로 일컬어지는 장르 융합적 특이성을 충실하게 묘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봉준호가 만든 네 편의 장편은 정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스틸러 혹은 누아르의 게임 구조를 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준호는 게임1(일반적인 범죄스틸러 혹은 고전적 추리물로써 빛나가던 공이 표적/범인을 명중하는 지점에서 끝남)을 진행시키는 척하면서 게임2(사건을 해결하려던 주인공 자신이 표적/범인으로 밝혀지는 필름누아르)를 다른 층위에서 은밀히 가동한다. (중략) 봉준호 식 스틸러의 고유성은 게임1의 대중적인 장르 서사를, 지역정치학으로 변안된 게임2의 서사에 결합하는 방식에 있다. (중략) 봉준호 영화의 대중성은 오인의 게임이 빚어내는 긴장과 반전의 흥분에 있을 것이며, 비평적 찬사는 주로 오인과 자기오인이 분기하고 배열되는 그 구조의 정교함과 의도된 모호함, 그리고 복합적 함의에 바쳐질 것이다”(허문영, 「농촌 스틸러의 당당한 심화」, 『시네 21』, No.709, 2009. 7, 100-104쪽)

에서 “낸시”와 “루시”로 대변되는 강과 유의 대립이 나타나는 것처럼, 텍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집단 내부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강과 유, 보수와 진보, 중심과 주변, 곧 저 이원 대립 구도가 다양한 중첩을 이루면서 이분법적 선악의 대결이나 구분으로 포착되지 않는 복잡미묘한 윤리적 상황과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 대립 구도는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경계를 가로지르는 열혈 성정의 소녀 영웅 “미자”(안서현)와 대세를 추종하고 지배적 현실 원리에 타협하는 “희봉”(변희봉)의 캐릭터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도입부의 장면에서부터, 서울에서 “옥자”를 운송하는 임무를 맡은 미란도 그룹의 정규직 사원 “박문도”(윤제문)와 “김군”(최우식)이 표상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는 모티프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곳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한다.

또한 “ALF(동물해방전선)”가 “옥자”가 “버지니아의 실험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자 여성단원 레드(릴리 콜린스)와 다른 단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쟁 장면이나, “옥자”의 미국행에 대한 “미자”의 의사를 정반대로 번역하여 단원들에게 전달한 “케이”(스티븐 연)와 이를 폭력으로 응징하는 “제이”(폴 다노)가 나타내는 갈등 장면 역시 강과 유,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이라는 다양한 차원의 이원적 구도를 반복하면서 보이지 않는 의미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옥자>의 이러한 구도가 한편으로는 인물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의 관계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갈등과 대립의 관계라는 모순적인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이중성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이면적 진의(眞義)와 더불어 봉준호의 철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심부

를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봉준호 장르” 또는 “빽사리의 미학”으로 널리 알려진 봉준호의 혼종성의 장르 창안이나 우발성의 세계관과 미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저 모순적인 이중성이야말로, 봉준호의 모든 텍스트가 서로 다른 여러 장르와 미학들이 제각각 구축하고 있는 그 완고한 경계를 해체하는 과감한 크로스오버의 시도와 혼종성의 실험으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옥자>가 생태주의 윤리의 당위성이라는 주제의식을 명시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투적인 서사 전개나 단순한 윤리의식의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그 내부에서 미학적 긴장과 스토리텔링의 탄력을 수미일관하게 부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형된 다양한 이원적 대립 구도의 복합적 배치, 곧 모순적인 이중성의 섬세한 짜임관계 (Konstellation)에서 유래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옥자>에서 구현된 이원적 구도는 단순한 이분법이나 선악의 대립 구도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음(陰)의 기운 속에 들어 있는 양(陽)’, ‘양(陽)의 기운 속에 들어 있는 음(陰)’이라는 『주역』의 기본 전제, 또는 음(陰)과 양(陽)은 서로 대립적인 동시에 보완적이라고 파악하는 관점을 집약하고 있는 “대대(對待)”라는 용어를 통해서만 충실하게 이해될 수 있을 듯 보인다. “대대”는 한국 및 동아시아 고전 문헌들에서 지속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쓰임새를 지닌 것이지만, 『주역』 해석의 표준 판본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이천의 주석과 용법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天文也文明以止人文也는 此乘上文하여 言陰陽剛柔相文者是 天

地文也요 止於文明者는 人之文也니 止는 謂處於文明也라 質必有文은 自然之理요 理必有對待는 生生之本也라 有上則有下하고 有此則有彼하고 有質則有文하여 一不獨立이요 二則爲文이나 非知道者면 孰能識之리오 天文은 天之理也요 人文은 人之道也라(‘天文也文明以止人文也’는 이는 上文을 이어서 陰陽과 剛柔가 서로 文飾함은 하늘의 文이요, 文明에 그침은 사람의 文임을 말한 것이니, 止는 文明에 머뭇음을 이른다. 質에 반드시 文이 있음은 자연의 이치이고, 이치에 반드시 對待(상대)가 있음은 生生의 근본이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質이 있으면 文이 있어서 하나는 홀로 서지 못하고 둘이면 文이 되니, 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天文은 하늘의 이치이고, 人文은 사람의 道이다.)”¹⁶⁾

인용 구절들은 산화비(山火賁) 괘의 단전(彖傳)에서 등장하는 “賁亨은 柔來而文剛이라 故로 亨하고 分剛하여 上而文柔라 故로 小利有攸往하니 天文也요 文明以止하니 人文也니 觀乎天文하여 以察時變하며 觀乎人文하여 以化成天下하나니라.(〈彖傳〉에 말하였다. 賁가 형통함은 柔가 와서 剛을 文飾하기 때문에 亨通하고, 剛을 나누어 올라가 柔를 文飾하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조금 이로운 것이니 이는 天文이요, 文明에 그치니 人文이니, 天文을 관찰하여 四時의 변화를 살피며, 人文을 관찰하여 天下를 化成(교화하여 이룸)한다”¹⁷⁾라는 구절에 대한 정이천 주석의 일부이다. 여기서 “산화비” 괘가 문명(“文”)의 꾸밈(“飾”), 곧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내부에 구축하게 되는 무수한 제도와 예식, 의전 절차와 장식품 등

16)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 502-503쪽.

17) 같은 책, 501-504쪽.

을 표현한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옥자>에서 “루시 미란도”가 “슈퍼 돼지 콘테스트”를 기획하고, 방송과 인터넷, SNS 등등의 미디어를 통해 끔찍한 진실이 말끔하게 윤색되어 나타나는 기업과 상품 이미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설정 역시, “산화비” 궤를 통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문명과 진보와 교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문화적 장식들이 그 내부의 실질들과 괴리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몰락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 역시 “산화비” 궤를 통해 얻을 수 있을 듯 보인다. “賁는 亨하니 小利有攸往하니라(賁는 亨通하니 가는 바를 둬서 조금 이롭다)”¹⁸⁾라는 궤사(卦辭)에서 “소리(小利)”에 내포된 진의는 그것이 실질, 곧 실제적인 정황과 맞닿지 않을 때 부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옥자>에 대입해보면, “루시”가 기획한 “슈퍼돼지 콘테스트”나 “미란도 그룹”이 추구하는 모든 친환경사업과 허황한 광고 전략이 그저 대중 기만술에 불과할 뿐이며, 그 진상이 “ALF”에 의해 만천하에 폭로되자 자본주의의 냉혹한 적자생존과 교환가치의 원리에 충실한 “낸시”가 총수로 복귀하게 되는 서사의 흐름을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화비”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세련됨과 형통함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꾸밈과 장식의 지나침이나 구체적 상황과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허례허식을 그 뒷면에서 계고(戒告)하는 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에 대한 섬세한 통찰은 자본주의가 최대 이윤의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신문 방송과 인터넷, SNS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만과 은폐효

18) 같은 책, 500쪽.

과 등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자>에서 폭로된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의 문명화 과정이 은폐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나, 문화와 진보와 교양의 이름으로 다수자(majorities)가 그 모든 소수자(minorities)에게 자행하는 억압과 착취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의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대안 담론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용 구절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質必有文은 自然之理요 理必有對待는 生生之本也라 有上則有下하고 有此則有彼하고 有質則有文하여 一不獨立이요 二則爲文이나 非知道者면 孰能識之리오(質에 반드시 文이 있음은 자연의 이치이고, 이치에 반드시 對待(상대)가 있음은 生生의 근본이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質이 있으면 文이 있어서 하나는 홀로 서지 못하고 둘이면 文이 되니, 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일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理必有對待 生生之本也(이치에 반드시 對待(상대)가 있음은 生生의 근본이다)”라는 대목이 그러하다. 그것은 음과 양, 낮과 밤, 해와 달, 남과 여 등으로 표상될 수 있을 이원 대립의 쌍을 이루는 “대대(待對)”가 결국 낳고 낳음의 근본, 곧 “만물(萬物)”을 부단히 생성시키는 “역(易)”의 기원을 이룬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사상전(繫辭上傳)” 5장에 등장하는 “生生之謂易(낳고 낳음을 역이라 이르고)”¹⁹⁾이라는 구절에 대하여 “陰生陽하고 陽生陰하여 其變無窮하니 理與書皆然也라(陰은 陽을 낳고 陽은 陰을 낳아

19)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下』, 전통문화연구회, 2019, 536쪽.

그 변화가 無窮하니 이치와 책(易)이 모두 그리하다”²⁰⁾라는 주석을 붙인 주희의 관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결국 “대대(待對)”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을 낳고 낳는 음양의 길항작용이자, 그 모든 대극(對極) 운동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일컫는 용어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등과 같이 동아시아의 전통 철학과 담론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개념으로 집약하고자 했던 서구 과학자들의 논의들 역시 이와 같은 테두리를 이룬다는 점에서²¹⁾, “대대”는 동아시아 전통 담론과 서구의 최첨단 과학 담론이 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탁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 中의 사유와 時中의 윤리학

20) 위의 책, 537쪽.

21) 프리츠프 카프리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덴마크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닐스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가 제시한 상보성(complementarity) 개념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정이천의 『주역』 “산화비” 괘 주석에서 등장하는 “對待”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그(닐스 보어)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두 가지 상보적인 기술로서의 입자상(粒子像)과 파동상(波動像)을 생각했으며, 이들 각각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고 제한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각 상(像)은 원자적 실재를 완전히 기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둘 다 모두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주어진 한계 안에서만 적용된다. (중략) 상보성의 개념은, 그 대립 개념과 상호간에 극성(極性)의-상보적인-관계에 놓여 있다는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고대 중국 사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했다.”(『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177쪽)와 같은 대목을 보면 닐스 보어의 “상보성”은 “對待”와 거의 똑같은 내포를 지닌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 보인다. 닐스 보어의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기술하는 장면은 “對待”의 번역어로 “상보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닐스 보어는 자신의 상보성 개념과 중국 사상 사이의 유사성에 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양자론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완전히 정립되었던 1937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고대 중국의 양극적인 대립자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중략) 닐스 보어는 그의 예복에 이러한 중국의 기호(太極圖)를 선택함과 더불어 Contraia sunt complementa(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라는 문구를 그의 예복에 새겨 넣었다. 이렇듯 그는 고대 동양의 지혜와 현대 서양의 과학 사이의 두터운 조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177-179쪽)

앞서 살펴본 “대대” 또는 “상보성”은 〈옥자〉에서 펼쳐진 무수한 이원적 대립 구도의 중첩에 깃든 이면적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계기와 비전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저 언표들은 실상 어느 한쪽의 편향적인 가치를 주장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간마다 새롭게 배치되는 관계의 구도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중(中)”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時中)의 윤리학을 발견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²²⁾ 〈옥자〉가 등장인물들이 맺는 이원적 대립 구도의 다양한 중첩을 통해, 일방적인 선/악의 이분법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무수한 아이러니의 요소들을 텍스트 곳곳의 장면들에 매설해 놓은 이유와 배경 역시 이와 같다.

『주역』을 위시한 동아시아 전통 철학에서 “천지만물”과 우주 삼라만상을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일컫는다면(“生生之謂易”), 그것의 원리이자 작용을 일컫는 “대대(對待)”는 근본적으로 “중(中)”의 사유와 담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대”가 상호 대립자를 자기 내부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中”이란 음과 양의 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相反者들의 균형있는 조화성, 대립하고 있는 양자의 관계가 〈不偏不倚 无過不及〉하게 〈어느

22) 『중용』에서 “시중(時中)”이 나타난 대목으로는 2장 “君子之中庸也 是 君子而時中이요 小人之(反)中庸也 是 小人而無忌憚也니라(君子가 中庸을 함은 君子이면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요, 小인이 中庸에 반대로 함은 小人이면서 忌憚이 없기 때문이다)”를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주희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君子之所以爲中庸者 是 以其有君子之德하고 而又能隨時以處中也요 小人之所以反中庸者 是 以其有小人之心하고 而又無所忌憚也라 蓋中無定體하여 隨時而在하니 是乃平常之理也라 君子는 知其在我라 (君子가 中庸을 하는 까닭은 君子의 덕이 있고 또 능히 때에 따라 中에 처하기 때문이요, 小인이 中庸에 반대로 하는 까닭은 小인의 마음이 있고 또 忌憚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中은 一定한 體가 없어 때에 따라 있으니, 이것이 바로 平常의 理이다. 君子는 이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大學·中庸 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20, 86-87쪽)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의 세력이 지나치게 크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조화성 자체”²³⁾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中은 일단 음과 양의 관계성에서부터 규정되어 지는 것이며”²⁴⁾, “中을 음양이라는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對極들의 형평을 유지시켜주는 原點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세계의 운행질서로서의 道의 근거가 된다”²⁵⁾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옥자〉 텍스트에서 이러한 “중(中)”의 요소들을 관객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듯하다. 또한 “미란도 그룹” 직원들에 의해 미국으로 끌려간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필사적인 추격전에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소녀 영웅이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거나, 질주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감을 타고 흐르는 험란하고 화려한 액션 장면들의 연쇄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관객들의 대다수는 〈옥자〉에서 형상화되는 인물들의 다양한 대립 관계 역시 단순한 선/악의 범주로 이해하거나, 아예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텍스트의 표면에서 초점화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미란도 그룹”과 “ALF(동물해방전선)” 조직이 벌이는 전면 투쟁이자 상극(相克)의 대립이며, 각각의 조직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차원의 대립 구도들은 저렇듯 빠른 속도감과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육박해오는 액션 장면들의 박진감과 흥미진진함으로 인해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음양대대적 구조와 증정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7쪽.

24) 같은 곳.

25) 같은 글, 89쪽.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근·현대문명의 비판적 성찰’이라는 표현은 <옥자>의 주제의식에 대한 타당한 분석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나,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그 안팎을 은은하게 휘감고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의 “대대(對待)”와 “중(中)”의 사유를 꿰뚫어 본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렇듯 보이지 않은 텍스트의 뒷면을 충실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옥자>의 마디마디에서 일종의 정지화면처럼 잠깐 스치듯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무수한 아이러니 장면들을 좀 더 섬세하게 매만질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란도 그룹”의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립 구도들을 촘촘하게 살피면, <옥자>의 의미구조를 “루시-낸시”로 표상되는 자본·권력의 상징적 흐름과 “미자-ALF”로 대변되는 자연·생태의 상징적 흐름이 맞서면서 일으키는 갈등과 투쟁, 곧 근대 자본주의 문명과 탈근대 생태주의 비전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환원하거나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옥자”의 호송 임무를 맡은 “김군”(최우식 분)이 자신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탄하면서 “미란도 그룹” 한국지사 정규직 간부인 “박문도”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사에 불이익과 불명예를 가져다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나, 캐스팅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느닷없이 출현하는 에필로그 장면에서 “옥자” 구출의 주역을 맡았던 “ALF” 단원들과 “김군”이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모습에 주목해보자. 이는 <옥자>가 지구 환경생태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의 증대와 물질주의 팽배 현상에서 찾으면서, 그것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강조하는 사회생태론을 일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텍스트 곳곳에서 나타나는 “미란도 그룹” 사람들의 “욕설”이나, 친환경 동물 박사라는 허명을 가진 “조니 월콕스”와 수행비서 “제니퍼”를 비롯하여 회사의 모든 직원이 빠짐없이 보여주는 기만적인 말과 위선적인 행동들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첨병이자 심장으로 기능하는 대기업의 철저한 물신주의 구조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인간성의 측면을 상징한다. 미국의 본사이든 한국의 지사이든, “미란도 그룹” 직원들 모두가 빠짐없이 보여주는 저 표리부동의 페르소나(persona)는, 저 측면이 결국 그들의 고용 불안정성과 자본주의 체제가 부추기는 물신주의적 탐욕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내비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미란도 그룹” 내부에서도 강(剛과 유(柔),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지사, 한국과 미국, 남성과 여성 등의 대립이 증첩됨으로써, 매우 복합적인 이원 대립 구도와 더불어 상호 모순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란도 그룹”의 총수 “루시/낸시”라는 쌍둥이 자매가 표상하는 자본주의적 양면성은 비단 강과 유의 대립만이 아니라, 근대적 기계·산업 문명과 (탈)근대적 원격·정보 문명 사이의 대립 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옥자>가 매우 증층적인 이원 대립 구도들을 텍스트 내부에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이원 구도들로 인해,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인공 “미자”가 할아버지 “희봉”에게 받은 “금돼지”를 “옥자”를 구출하기 위한 매개물이자 교환가치의 표식으로 “낸시”에게 내미는 장면은 그야말로 몇 겹의 아이러니로 둘러싸인 미궁(迷宮) 상태로 관객들

을 휘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장면을 자본주의의 체제 원리인 교환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사실에만 집중하여 그 이면에 도사린 역설적 의미구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자”가 “금돼지”를 교환가치의 표식으로 내밀자, 강고한 냉혈한이자 악의 표상처럼 보였던 “낸시”가 “고객을 잘 모셔다 드려! 물품 배송 철저히!”라고 말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장면을 다시 유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면은 “루시”의 미디어를 이용한 대중 기만술이나 이미지 마케팅보다 자본의 교환가치의 원리를 철저하게 구현하려는 “낸시”의 기업 운영 전략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을 아이러니 미학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에 갇든 통념적 단순성 자체를 해체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이렇듯 〈옥자〉 곳곳에 감춰진 무수한 아이러니 장면들은 이 영화가 생태주의 담론과 이념을 선전하고 유포하려는 계몽의 수사학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묘리(妙理)로 에둘러진 “중(中)”의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현시한다. 달리 말해, 동아시아 전통 철학의 심부에 자리한 “시중(時中)”의 윤리학을 소리 없이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영화가 그야말로 웅숭깊은 예술적 역설을 머금고 있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안목과 수준을 훨씬 더 복잡 미묘한 자리로 이끌어 올린다고 하겠다.

『주역』에서 “시중(時中)”이 등장하는 대목은 “산수몽(山水蒙)”괘 단전(彖傳)에서 찾을 수 있다. “彖曰 蒙은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

라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요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요 初筮告은 以剛中也요 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니 蒙以養正이 聖功也라(彖傳)에 말하였다. “蒙은 山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하고 그 친 것이 蒙이다. ‘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함이니, 때를 얻었고 中道에 맞기 때문이요, 내가 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童蒙이 나에게 구함은 뜻이 應함이요, 처음 묻거든 고해줌은 剛中하기 때문이요, 再三 물으면 번독함이니,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음은 蒙을 번독하게 하기 때문이니,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聖人이 되는 공부이다.”²⁶⁾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蒙은 山下危險”이고, 다른 하나는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요”라는 대목이다.

영화 <옥자>는 주인공 “미자”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가족이자 친구인 “옥자”를 구출하려는 데서 벌어지는 필사적인 추격전의 드라마이자 로드무비의 특질을 지닌다. 따라서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체에서 공간 이동은 핵심 모티프로 전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 아래의(“山下”) 험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危險”) 무사히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회귀의 서사가 응축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성장과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암시로서의 응답 제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불굴의 긍정성을 체화한 소녀 영웅 “미자”를 통해, <옥자>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자기 윤리의 중심을 잃어버린 어두운 몽(蒙)의 상태에서 벗어나 모두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이면적 주제 의식에도 고스란히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이는 <옥자>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려는 감독의

26)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 전통문화연구회, 2019, 233-235쪽.

궁극적인 메시지가 “시중(時中)”의 윤리학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객들은 <옥자>의 서사 구조 전체에 걸쳐 있는 “미자”의 추격극이자 “옥자”의 구출극을 동정 가득한 앵글로 지켜보게 되면서, 지구 전체의 환경생태의 문제에 대해 무지몽매(蒙)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생태주의자의 고뇌와 근심에 가까운 내면적 성찰과 정신적 성장을 수동적으로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중(時中)”이며, 이에 기초한 윤리적 감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중”의 윤리적 감각이란 “천지만물”의 옳고 그름이 미리 정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을뿐더러, 각각의 시간이 맺는 구체적 관계들의 양상과 변화에 따라 “중(中)”의 원리와 사유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복잡다단한 맥락을 온몸으로 체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나타나는 소녀 영웅 “미자”의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클로즈업 기법으로 포착하는 동시에 “시중”의 윤리학이라는 또 다른 뒷면의 앵글을 통해 “미자”를 제외한 그 모든 등장인물의 편향성을 풍자적 시선으로 형상화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저 앵글은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편향성이 결국 관객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듯한 내면적 성찰을 유도한다. 그것은 인류가 구축한 첨단 산업과 문명이란 지구상에 기거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의 살육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갖가지의 편향성이란 바로 관객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자>의 카메라에 내장된 “중(中)”의 우회적 앵글이 겨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편벽된 입장과 왜곡된 관점에 사로잡힌 관객

들 자신의 근원적인 성찰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시중”의 윤리학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편향성을 풍자적 시선으로 소묘하면서, 이를 주시하는 관객들에게조차 자기 성찰을 강제할뿐더러, 끔찍한 동물살육과 더불어 환경생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제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존재가 바로 관객들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어떤 곤혹 상태를 회피할 수 없는 까닭은, 저 동물살육과 지구 환경 파괴의 공조자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자괴감 또는 무의식적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역』 “산수몽(山水蒙)”괘 단전(彖傳)에서 나타나는 “시중(時中)”을 “所謂 亨道는 時中也니 時는 爲得君之應이요 中은 爲處得其中이니 得中則得時也라(이른바 형통할 道라는 것은 時中이니 時는 君主의 應을 얻음을 이르고, 中은 처함이 中을 얻음을 이르니, 中을 얻으면 때에 맞는다)”라는 말로 풀이한 정이천의 주석이나, 『증용』 제 2장에서 등장하는 “시중(時中)”²⁷⁾을 “君子之所以爲中庸者는 以其有君子之德하고 而又能隨時以處中也요(君子가 中庸을 하는 까닭은 君자의 德이 있고 또 능히 때에 따라 中에 처하기 때문이요)”로 풀이한 주희의 주석을 함께 참조해 보면, “시중”이란 결국 “故時措之宜也”라는 구절에 담긴 속뜻, “그러므로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행함에 의(宜), 적합하면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²⁸⁾ 이는 결국 “시중”이 각각의 시간의 마디들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상황

27) “君子之中庸也는 君子而時中이요 小人之〈反〉中庸也는 小人而無忌憚也니라(君子가 中庸을 함은 君子이면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요, 小인이 中庸에 반대함은 小人이면서 忌憚이 없기 때문이다.)”(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大學·中庸 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20, 86-87쪽)

28) 우응순, 『친절한 증용 강의』, 북드라망, 2020, 288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마땅함(宜)을 매번 다시 살피고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맹자』에 나타난 “권도(權道)”의 동의어이자, 이 말을 통해 좀 더 분명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비폭력을 외치고 동물애호가를 자처하는 “ALF” 단원들의 실천 활동 자체가 편향된 모양새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에 손톱만한 생채기도 남기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식량 생산 자체가 착취”라고 말하는 “실버”(테본 보스틱)나 “미란도 그룹”이 저지르고 있는 동물학대 현장을 폭로하기 위해선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옥자”의 희생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블론드”(다니엘 헨셜), “옥자”를 미국으로 보내기 싫다는 “미자”의 의사를 정반대로 번역하여 “ALF”에서 제명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케이”, “번역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케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ALF”에서 추방하겠노라는 선언을 하는 “제이” 등과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좀 더 섬세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29) “고故로 시조지의야時措之宜也라. 이때 ‘시’자는 뭘니까? 중용의 ‘용’(庸)과 통합니다. 항상, 때때로, 상황상황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조’(措)는 ‘놓을 조’자인데, 여기서 는 행하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행함에 ‘의’(宜), 적합하면 된다는 거죠. ‘의’자는 20장에서 ‘인자인야’(仁者人也), ‘의자의야’(義者宜也)할 때 나왔죠? ‘의’(義)자를 ‘의’(宜)로 풀었잖아요. 일상에서 상황에 따라 행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중’(時中)인거죠. 그게 바로 중용이고요.

이걸 맹자에서는 권도(權道)라고 하죠. 당시 제(齊)나라 선왕(宣王)때 수도 임치(臨淄)에 모인 일군의 지식인들을 ‘직하학파’(稷下學派)라 하는데요. 손우곤(淳于髡)이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손우곤이 물어요 남녀가 직접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예인데,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어쩔테냐? 하구요. 맹자가 대답하죠.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남녀의 예를 지키느라 손을 잡아 구해 주지 않는다면 시랑(豺狼)이라구요, 여기서 평소애 성인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지켜야 할 예이죠. 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다든가 비정상적인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녀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가 권도를 써야 할 때인거죠.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변형해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고집부리면 큰일 나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시각각 다른데 말이에요. 자, 때에 맞춰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같은 책, 288-289쪽.)

이들은 “옥자”를 구출하고 “미자”를 돕는 “ALF”의 임무에서 주역을 수행하는 캐릭터가 틀림없지만, 자기 조직의 기원과 전통과 실천 강령을 절대적 차원으로 숭앙하면서, 매번의 상황마다 달라지고 변환될 수 있는 마땅함(宜)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들을 동물애호가이자 학대받는 동물들을 탈출시키고 대기업의 동물학대를 폭로하는 위대한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맹신에 빠져 그 과정의 정당성을 살피거나 되짚어 보지 않는 편향성과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옥자>를 구성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세계의 부조리나 악과 맞서 싸운다고 자부하면서 활동하는 무수한 실천 조직과 활동가들이 빠져들 수 있는 자기중심주의의 모순적 태도와 나르시시즘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중(中)의 사유와 시중(時中)의 윤리학으로 에둘러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옥자>가 생태주의 세계관을 표방하고 그것과 합치되는 삶의 방향성과 실천의 윤리를 자신의 주제의식으로 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와 같은 실천이 수반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문제점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맥락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옥자>를 연출하고 그것에 궁극적 메시지를 아로새긴 감독의 의중의 심층에는 중(中)의 사유, 이 가운데서도 특히 시중(時中)의 윤리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옥자>가 시중일관 관객들의 예상과 기대와 판단을 뒤집으면서, 서사의 흐름과 스토리텔링 전체를 박진감 있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대립적인 동시에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상보성의 원리를 최대치로 활용하여 다양한 역설과 깊이 있는 아이러니의 미학을 곳곳에 배치한 데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결국 상보성의 원리란 우리가 앞

서 살핀 “감통(感通)”과 “인(仁)”, “대대(對待)”와 “순환(循環)”, “중(中)”과 “시중(時中)”이 더불어 엮는 의미의 그물인 동시에 『주역』의 세계관과 윤리학을 집약하고 있는 다른 언표이기 때문이다.

마. 결론을 대신하여 : 서구 생태주의와 『주역』 담론의 지평 융합

지구온난화'로 표상되는 지구 생태환경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을 생태주의 사유와 담론은 서구의 근대기계문명에서 비롯된 무수한 전쟁과 환경 파괴와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 나아가 성장과 발전을 최고선으로 승양하는 진보주의 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봉준호의 영화 <옥자>를 새롭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필수 불가결한 문제틀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도 불구하고, 서구 생태주의 담론은 <옥자>를 비롯한 봉준호 영화의 장르 혼종성이나 그 세부에 깃든 복잡성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감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근거와 섬세한 방향성을 마련해주지 못할 것으로 추론된다.

가령 “옥자”를 하나의 상품으로만 간주하여 소시지와 햄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는 “낸시”에게 “금돼지”를 매개로 자본주의적 교환이자 상품 거래를 요구하는 “미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텍스트의 결말 부분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적 자연환경으로의 회귀라는 모티프에 대한 평가는, <옥자>라는 텍스트를 생태주의 사유와 담론이라는 문제설정을 통해서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미궁으

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자는 “미자”라는 반자본주의적 소녀 영웅 역시 자본주의적 교환 체계라는 세계의 현사실성과 빈틈없는 조직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것이며, 후자는 유토피아적 회귀가 미학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환상성의 투영이라는 평가로 마무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함정을 넘어서, <옥자>를 비롯한 봉준호 영화를 좀 더 적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내장된 다양한 특질과 모순된 면모들을 특정한 하나의 담론이나 문제틀로 분석하고 수렴하려는 연구 태도와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이 <옥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 및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중차대한 가치를 함축하면서 계승되어온 『주역』 담론을 활용하면서도, 단지 그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구의 생태주의를 위시한 탈근대 담론과의 대비 또는 융합을 시도했던 이유와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이 논문이 시도한 『주역』을 통한 봉준호 영화의 해석과 담론 구축은 선행 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보인 것이며, 서구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성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문화사적 문제제기를 이룬 것은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시도한 해석의 틀 역시 봉준호 영화 전체를 섬세하게 해명할 수 있는 전일적인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봉준호 장르”, “뽕사리의 미학”, “봉테일” 등으로 표상될 수 있을 봉준호 영화의 혼종성과 크로스오버의 특질, 나아가 무수한 모순과 아이러니를 순식간에 하나의 돌발사태처럼 제시하는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법은 이처럼 단 하나의 전일적인 방법론을 통해서서는 제대

로 해명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리어 『주역』 담론과 생태주의 담론의 창조적 융합 과정을 통해, 또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어 온 “감응”과 “감통”을 자끄 데리다의 ‘원초적 에크리튀르’ 개념과 대비하고 융합하려는 시도 등을 통해 적실하게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자〉 텍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캐스팅 크레디트가 올라가기 전의 “미자” 가족의 생태주의적 유토피아의 저녁밥상 풍경이 아니라, “미란도 그룹”의 비정규직 운전수로 일하던 “김군”이 “ALF” 단원들과 함께 복면을 뒤집어쓰는 또 다른 아이러니의 강력한 발산 장면임을 다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옥자〉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의 미궁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논문에서 시도된 『주역』과 생태주의 담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창안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된 사례로 제시한다면, 서구 생태주의 담론에 깃들인 공생의 세계관과 『주역』 담론에서 연면히 계승되어온 “시중(時中)”의 윤리학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시도한 이러한 융합의 시도가 후속 논문의 집필 계기를 고취하고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감응의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남성과 여성 등등으로 표상될 수 있을 세계의 그 모든 이원 대립 구도들을 “중”의 사유와 “시중”의 윤리학으로 해명할 수 있는 보편주의 담론과 세계관이 정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가음, 「영화 〈옥자〉를 중심으로 봉준호 영화의 서사모델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 고영민, 「'옥자'와 바이오산업...육식의 종말은 가능할까?: 반려동물로 변신한 유전자 변형 '슈퍼 돼지」, 『지역정보화』 10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
- 김규훈·이원영·김효연, 「생태학 관점의 비판적 언어인식을 위한 매체 수용의 학습 활동 설계-영화 〈옥자〉의 생태언어학적 비평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161권, 한국어교육학회, 2018.
- 김상환, 「헤겔의 '불행한 의식'과 인문적 주체의 역설」, 『철학사상』, 제36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김상환, 「데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기호학 연구』 제29집, 한국기호학회, 2011.
- 김상훈, 「봉준호 영화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영화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 김영수, 「김영수의 의외로 쓸모있는 개념어 사전-영화 〈옥자〉로 본 육식에 대한 고찰」, 『이코노믹리뷰』, 2017. 07. 18.
- 박진후·임대근, 「봉준호 장르의 가능성: 〈기생충〉의 크로노토프 서사전략」, 『영화연구』 제84호, 한국영화학회, 2020.
- 박현정, 「영화 설국열차와 생태적 상상력」, 『문학과환경』 제14권제1호, 문학과환경학회, 2015.
- 성백효 역주, 『周易傳義 上』, 전통문화연구회, 2019.
- , 『周易傳義 下』, 전통문화연구회, 2019.
- 임정식, 「한국영화 속 괴물의 형상과 모험 서사의 변주-〈옥자〉와 〈미스터 고〉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3호, 한국어문학학술포럼, 2018.
- 장세영, 「영화 '옥자'에 나타난 만화적 미장센」, 『조형미디어학』 제23권 3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20.
- 진은경·안상원, 「영화 '옥자'에 나타난 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 『문학과환경』 제17권 제3호, 문학과환경학회, 2018.
- 최영진,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陰陽對待의 構造와 中正思想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한미라, 「봉준호 영화의 내러티브에 공간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 63호, 한국영화학회, 2015.
- 홍지수, 「영화 〈옥자〉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자코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옮김, 민음사, 2010.
- 프리츠포 카프카,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제4증보판, 이성범·김용정 옮김, 범양사, 2004.
- 후쿠오카 신이치, 『동적 평형』, 은행나무, 2019.

ABSTRACT

The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of Bong Joon-ho's movie "Okja" and its cultural historical significance reading in The I Ching: Book of Changes - Focusing on horizontal convergence with ecological discourse

Lee, Chan

This paper tried to reinterpret Bong Joon-ho's movie "Okja" by using the traditional discourse of Korea and East Asia, which is represented The I Ching; Book of Changes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Furthermore, the ecological worldview of "Okja" and Bong Joon-ho throughout the movie was interpreted as terms and discourse of the The I Ching; Book of Changes, and tried to merge horizons that could maximize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owever, such attempts do not mean a return to nationalism or egocentric traditions on a nationalistic level. Rather, it means that it tried to faithfully consider the modern interpretation and succession of The I Ching; Book of Change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 and convergence through "productive dialogue" with ecological discourse already emerged in Western society that it could be represented as a "sustainable development".

The horizontal fusion of The I Ching; Book of Changes and ecological discourse attempted in this paper can be seen as creating a new methodology to explore "Okja" and the films

of Bong Joon-ho. This can be exemplified in more detail by attempts to fuse the symbiotic worldviews embedded in Western ecological discourse with the ethics of the market that has been inherited from the interpretation discourse of the main character. It is hop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produced on a wider scale as attempts to fuse East-West philosophy and discourse attempted by this paper trigger various discussions. Only in the context of this succession can be derived to a universal discourse which based on the reason for “appropriateness”(中) and ethics of “appropriateness for the times”(時中), and it could be solved the myriad two-way confrontations of the world, represented by man and nature, Western and Eastern, central and peripheral, male and female majorities and minorities.

Key-Words: Bong Joon-ho, Okja, The I Ching; Book of Changes(周易), Correspondence(感應), The Complementary Base on The Opposite Side(對待), Appropriateness for The Times(時中), Principle of Complementariness

이 찬

전 자 우 편 : clandestin@daum.net

논문 접수일 : 5월 30일

심사 완료일 : 6월 15일

게재 완료일 : 6월 25일

한류의 원조: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영토 확장

박종범¹⁾·홍성걸²⁾

[국문 초록]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중심부의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K-스포츠 분야에서의 세계화를 통해 문화영토를 확장한 태권도의 동인과 세계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여 문화영토 확장에 대해 확인하였다. 태권도는 현재 국제 스포츠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였으며 민간 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잡았다.

태권도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써 외교적 수단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파견 사범들을 중심으로 민간 외교의 수단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세대 교체의 어려움, 지속적 영향력의 감소 등 현재 태권도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태권도는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가치를 보존하며 다양한 면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문화 영토를 확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권도, 세계화, 문화영토, 한류, K-스포츠

1) 국기원 연구소장

2)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가. 들어가는 말

2020-2021년, 세계는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팬데믹)에 신음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했고,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 대유행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도 193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대량 실업이 나타나고 있고, OECD 국가 평균 15%인 자영업자의 비중에 비해 2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 흐름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거세졌고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K-뷰티 제품의 수출이 주춤했지만, 무엇보다 종합예술이라는 영화부문에서 한국 영화계의 기념비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Parasite)>이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것이 봉준호라는 걸출한 인물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봉준호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예 정이삭 감독의 작품 <미나리(Minari)>가 2020년 제46회 LA 비평가협회상(여우조연)과 36회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비롯한 20여개의 각종 상을 수상했고, 예상대로 윤여정이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제 영화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영토를 개척한 <기생충>과 <미나리> 같은 영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

른다.

뿐만 아니다. K-팝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스타로 부상한 BTS(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공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빌보드 핫-100(Hot-100) 차트에서 여러 차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말로 부른 노래들을 전 세계 팬들이 따라 부르는 폐창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걸 그룹 블랙핑크도 BTS에 이어 빌보드 차트에 랭크되면서 이제 K-팝 현상이 하나의 천재에 의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 즉 한국 문화영토의 확장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주변부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중심부의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선두주자들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이 땅에서 1950년대 중반, 태권도에 의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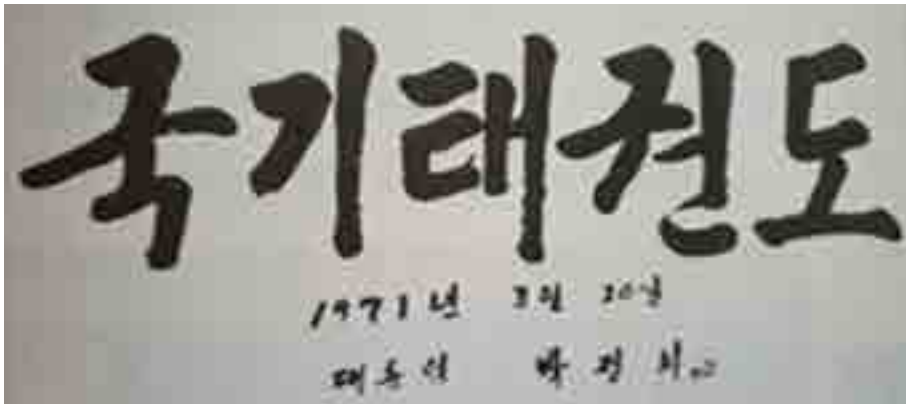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시절, K-스포츠 분야에서 세계화를 통해 선도적으로 우리 문화영토를 확장해 온 태권도의 동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동란의 폐허 속에 대다수 국민이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태권도가 세계화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무엇이 태권도에 의한 문화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다.

나.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 과정

1) 국기(國技)로서의 태권도

오늘날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國技)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써 준 휘호 “국기 태권도(國技 跆拳道)”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작 태권도가 국기라는 이름을 공식 획득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8년의 일이다.

[그림 1]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 ‘국기태권도’



출처 :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50년사”

2018년 3월 30일, 태권도는 실증법적 근거를 갖춘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공식 제정되었다(이동섭, 2019). 국회의원 225명이 발의하여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연합뉴스, 2018.04.02.).

[그림 2] 태권도를 국기로 공식 지정한 <태권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모르던 시절, 세계 곳곳에 코리아(Korea, Coreia)의 문화 바람을 일으킨 태권도는 문자 그대로 한류(韓流)의 원조라 할 수 있다(매일신문, 2017.12.11). 1950년대 중반, 내몰리듯 해외로 진출한 태권도는 이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왔으며, 마침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누렸다.

오늘날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됐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낮설지 않다. 지난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프랑스인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1%가 ‘한국하면 태권도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는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와 함께 태권도가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서성원, 2012).

유럽대륙에서 태권도 수련자가 가장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다. 프랑스는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종목 80kg이상 급에서 처음 동메달을 딴 국가이다. 이후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만 각 3개씩 따냈지만 아직 금메달이 없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획득을 목표로 15명의 선수를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하여 집중 훈련시키고 있다. 현재, 6,700만 명의 인구 중 약 6만 여명이 1,000여 곳의 교육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물론 53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유도나 24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카라테(空手)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태권도 수련자의 증가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향후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 프랑스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태권도가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청소년 범죄의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20.09.24.). 즉, 태권도의 문화영토 확장은 단순한 스포츠로서의 수단적 성격만이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을 통해 이민자가 많은 프랑스 사회에 기여하는 무도(武道)로서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의 위상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태동기부터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세계화의 역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태권도의 명칭 탄생

지금은 국기(國技)로 지정되었지만 태권도라는 이름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스포츠로 위세를 떨치는 태권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다른 설명

이 있다.

첫째는 태권도가 역사적 전통성을 갖는 고유 무예란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고대 수박(手搏)이라 불렸던 맨손무예가 고려 수박희, 조선의 권법, 택견을 거쳐 현재의 태권도로 계승되었다는 논지이다. 이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발간한 태권도 교본과(국기원, 2006) 대한태권도협회의 홈페이지에서³⁾ 나타난다.

둘째는 태권도가 일제강점기 류우큐우 당수(공수), 중국권법 등 외래 무예의 영향을 받았지만 택견의 전통을 회복한 민족 무예로 재형성되었다는 관점이다. 이 같은 논지는 양진방(1986), 김영선(1999), 서성원(2016) 등 태권도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는 태권도사관이다. 이 논문은 사실성이 강조된 두 번째 관점에서 태권도의 연원을 정리하기로 한다.

고대 삼국시대와 중세 고려시대에는 무예가 전투에서 뿐 아니라 무예 경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수박이나 수박희란 명칭으로 조선 중기 연산군 시대까지 계승되었으나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어 중국 명나라의 병장기 무예와 함께 권법이 전래되었다. 권법은 ‘무예도보통지’란 군사훈련 서적에 실렸다. 무예도보통지는 중국과 일본의 무예까지 총망라하는 무예 24반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발차기를 특기로 하는 민속무예 택견이 번창하였다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족문화 탄압으로 겨우 명맥이 유지되었다(국기원, 2019).

광복이 되자 그 동안 명맥을 유지하던 택견 혹은 당수도가 5대 기간도장(5대관)으로 형성되었다. 서울에서는 당수도 청도관, 조선연무관 권법부, 당수도(화수도) 무덕관, YMCA 권법부가 차례로 창

3) 대한태권도협회,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에서 발췌(2021.01.20.)

설되었다. 나머지 1곳은 개성에 설치된 당수도 송무관이었다(김영선·여인성, 2020).

당수도는 다국적 문화권인 류우큐우(오키나와)에서 중국, 한국(고려 및 조선),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체계화된 맨손무예였다. 당수도의 원래 이름은 토오데에[唐手]였지만 1930년대 일본 본토에 전승되어 외래문화 색채를 띤 ‘당(唐)’ 글자를 대체하여 카라테[空手]로 변경되었다. 카라테는 당수와 공수의 동일한 발음이었다(김용욱, 2013). 한편 권법은 만주계 중국무예가 YMCA 권법부와 무덕관에 전래되기도 했다(허인욱, 2006).

한국에서 발족한 5대관은 무예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한국전쟁 이후 통합 협회를 추진하였다. 당수도, 권법, 화수도, 수박도, 공수도 등 난립하던 명칭들이 마침내 ‘태권도’란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무예인 택견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당시 육군 장성 최홍희가 사단장으로서 부대의 상징 마크를 태권주먹으로 선정하면서 이후 태권도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태권도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3년 제주도에서 육군 제 29사단을 창설한 최홍희 장군이⁴⁾ 사단마크에 태권의 상징인 주먹을 그려 넣으면서부터다. 1954년 29사단이 제주도에서 강원도 용대리로 옮기면서 최홍희 장군은 “오도관”을 창설하였다. 그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 태권도 명칭을 정하기 위해 ‘명칭제정위원회’를 소

4) 최홍희(1918-2002) 장군의 경력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953년 11월 26일 제주도 제 29사단 창설 사단장. 1954년 6월 강원도 1군단 주둔(오도관 창설: 29사단 용대리 12사단 예하 연대본부). 동년 10월 16일 창설 4주년 기념 공수도 시범(이승만 대통령 관전). 1961년 전역. 1962년-1964년 말레이시아 대사. 1965년-1966년 대한태권도협회 3대 회장. 1966년 국제태권도연맹(ITF)창설 총재. 1972년 캐나다로 망명. 월북 사망 후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장(이신재, 2017).

집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 1955년이었던다는 점에서 태권도라는 명칭이 탄생한 것은 이 해가 분명하다. 태권도 명칭이 이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1955년 이후 29사단은 최초로 “태권”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민족의 고유 무도(택견에서 비롯)라 여겨진 태권도는 1955년 이후에야 공식 명칭이 태권도로 확정되었다.

[그림 3] 이승만 대통령께 당수도를 설명하는 최흥희 장군



출처 : 정순천(2020). “밖에서 본 태권도 史”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인해 와해되었다가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란 명칭으로 재발족되어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63년 제 44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태수도가 채택되었다.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되었고 이때부터 태권도란 명칭이 사실상 정착되었다(강원식·이경명, 2002).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경기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에

국기원이 건립되고 1973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되었다. 태권도는 1986년에 서울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거행되었고, 마침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7회 연속 정식종목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2018년에 국회본회의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의 개정으로 법정 국기(國技)로 지정되었고 세계적 무예스포츠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이호열, 2020).

3) 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1959년 3월, 최흥희 장군은 최초의 해외시범단을 조직했는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 베트남 고딘디엠 대령이 방한하여 국군의 태권도 시범을 참관한 후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 전역과 파월 장병의 태권도 교육을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1959년에 처음으로 시범단의 형태로 해외에 소개되었으며, 본격적인 태권도 세계 보급은 1960년대 중반, 베트남에 파병된⁵⁾ 군인을 위한 태권도 교관단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 3월, 태권도 최초의 해외 시범단인 “국군 태권도 시범단”이 파견되었지만, 여전히 태권도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았던 언론에서는 “당수시범단 파견”이라는 제호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조차도 “태(跆)”자를 못 찾아서 “태(胎)”자로 잘못 표기해 보도할 정도였다.

5) 1964년-1973년 베트남 파견 기간 중 태권도 수련인원은 총 229,913명(유단자: 2,916명 배출)이었다(이신재, 2017).

[그림 4] 태권도 해외시범단 보도: 시범단 및 시범내용



출처 : 정순천(2020). “밖에서 본 태권도史”

[그림 5] 태권도 해외시범단 보도: 시범단 및 시범내용



출처 : 정순천(2020). “밖에서 본 태권도史”

195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해외 국군 태권도 시범단⁶⁾은 이후 급속한 해외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최홍희 장군이 조직한 “구·아 시범단”(구라파, 아프리카) 순회 시범(40여일 간 12차례)과 함께 1966년 3월 22일 국

6) 1968년 월남의 고딘 디엠 대통령은 초대 월남 대사였던 최덕신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한창 국방체육의 일환으로 보급되던 태권도를 보고 월남으로 돌아간 후 국군태권도시범단을 1959년 정식 초청했다. 이 때 국방부는 최홍희를 단장으로, 남태희를 지휘관으로 임명해 고재천, 백준기, 우종립, 한차교, 차수영 등을 주축으로 한 국군태권도시범단(21명)을 월남에 파견, 월남 전역을 순회하며 시범을 선보였다(최초의 해외 원정시범임).

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이 조직되었다.⁷⁾ 최흥희 장군이 ITF 조직을 가지고 캐나다로 망명하자,⁸⁾ 1973년 국기원 주도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이 창설되었고,⁹⁾ 이후 WTF는 태권도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채택을 성사시킴으로써 스포츠 태권도의 주도적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4) 민간 및 협회 차원의 해외 진출

국군을 기반으로 한 태권도의 해외 진출과는 별도로 민간 및 협회 차원에서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사례는 1957년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태권도 클럽을 개설한 이준구 사범이었다. 이 사범은 1962년 6월, 워싱턴에 태권도장을 개설하면서 북미에서 본격적인 태권도의 지도·보급에 앞장선 선구자가 되었다. 이후 1962년에는 손덕성 사범이 뉴욕에서 태권도장을 개설하였고, 1963년 미국으로 진출한 심상규는 협회를 통한 해외 파견 태권도인으로서 처음으로 외무부 등록 제1호로 기록되었다. 1962년, 김용덕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나갔던 과테말라에서 태권도

7) 1966년 3월 22일 조선호텔 로즈룸에서 9개국협회 대표(월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독, 미국, 터키, 이태리, 아랍공화국, 한국)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창설됐다. 1967년 10월 27일 국제태권도연맹은 문교부 사회단체등록 *제27호)을 필했고, 이듬해인 1968년 11월 5일 외무부 민간 친선 외교 단체등록(제60호)을 마쳤다. 이후 최흥희 총재의 정치적 망명으로 1980년부터 ITF는 북한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초대총재: 최흥희, 2대: 장웅, 3대: 리용선(2015-현재)).

8) 최흥희 장군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위기감을 느끼다가 1972년 ITF 조직을 가지고 캐나다로 망명했다. 이후 1980년 월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2002년 사망했다.

9) 1973년 창립총회에 앞서 5월 27일 오후 1시 국기원에서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창설한 때에는 겨우 9개 회원국이었지만, 지금은 무려 210개 국 회원국으로 늘어났고, 회원들의 숫자는 1억 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태권도가 명실 공히 세계적인 스포츠로 도약을 한 것이다.

를 가르치면서 중미에의 진출이 시작되었고, 1964년에는 이범재가 에콰도르에 진출하였다. 이후 1966년 엘살바도르(최병호), 1967년 콜롬비아(이경득), 브라질(이우재, 이희섭), 1969년 멕시코(60년대 초반 황세진 이후 문대원 파견), 1970년 파라과이(김영균), 베네주엘라(이종구, 김흥기, 김흥기 형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정진영), 페루(이기형) 등이 진출하여 중남미 전역에서의 태권도 보급이 시작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진출도 활발히 시작되었는데, 1963년 말레이시아에 우재림, 최창근, 김종찬 사범 등이 진출하여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어서 김창용(1965), 장영호(1967), 양우협(1969) 등이 말레이시아에 2년 간격으로 진출했다. 1963년 싱가포르에는 김복만 사범이 처음 발을 디뎠으며, 이어서 이기하(1964), 이병무(1968), 이준재(1969), 한차교(1970) 등이 차례로 파견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1974년 7월 26일, 싱가포르 태권도협회가 결성되었다. 1965년에는 인도(조희일, 김양길), 1966년 홍콩(윤영구, 최광조, 김복만) 등이, 태국(배영기, 박동근, 박병훈, 허문선, 김명수, 이완주) 등에 진출했으며, 1970년에는 김복만이 필리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0년대 중반에는 유럽에서의 진출도 이루어졌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5년 최흥희 장군이 단장을 맡아 한국태권도시범단(5명)이 뮌헨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는 박선재가 유학생 신분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조용훈이 진출하여 태권도 해외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7년 네덜란드(이유선, 박종수), 1969년 영국(이기하), 프랑스(이관영, 이문호), 1975년 폴란드(이경명) 등으로 파견국가

가 늘어나면서 유럽에도 태권도가 널리 소개되기 시작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5년 윤복이 케냐에, 광기옥이 가나에 진출하면서 아프리카에도 태권도의 보급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1968년 코트디브아르(김영태), 우간다(김남석) 등에도 진출하였고, 이후 탄자니아, 튀니지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인의 활발한 진출이 계속 이어졌다.

〈표 1〉 태권도의 해외진출 사례 요약

시기	지역	사범(국가)
1950년대	아시아	최흥희(월남/초청): 국군태권도시범단(21명)월남 전역을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
	북미	남태희, 우종립(미국/유학): 도미 유학생으로 미국에 진출하여 미군에 당수도 지도
1960년대	아시아	배영기, 박동근, 박병훈, 허문선, 김명수, 이완주(태국/파견): 태권도 보급 우재립, 최창근, 김종찬(말레이시아/파견): 태권도 보급 김복만(싱가포르/파견): 태권도 보급 조희일, 김양길(인도/파견): 태권도 보급 윤영구, 최광조, 김복만(홍콩/파견): 태권도 보급
	북미	조시학(미국/유학): 1961년 뉴욕에 미주지역 최초 한인 도장 개관 이준구(미국/유학): 워싱턴에 도장 개관 및 정치인파 이소룡 등 유명인사의 태권도 사범 역임. 워싱턴D.C, 2003.6.28.을 <준리(Jhoon Rhee)의 날>로 지정 이행웅(미국/개인): 미국태권도협회(ATA)설립. 아카소주(州), 1984. 6.1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 문대원(멕시코/유학): 1969. 태권도 전국대회 및 1983. 문대원컵대회 시작 후 현재까지 매년 개최

	유럽	이관영(프랑스/파견): 프랑스 정부에서 초청으로 태권도 보급 권재화, 박중수 등(독일/초청): 태권도시범으로 보급 이기하(노르웨이/파견ITF):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를 보급 박선재(이탈리아/개인): 박영길(이탈리아/초청) 태권도 보급 전영태(스페인/개인): 태권도 보급
	아프리카	김영태(코트디부아르/사업): 아프리카대륙에 최초로 태권도 보급 김남석(우간다/의료봉사): 태권도 보급
	중남미	이우복(파라과이/이민): 태권도장 개관, 지도와 보급 노력 김한창(아르헨티나/이민): 태권도 보급, 기술부위원장 역임 이경득(콜롬비아/초청): 아메리카 대학의 특수체육교수로 태권도 강의. 콜롬비아육군사관학교, 보안성의 태권도 사범 역임
1970년대	아시아	김복만, 홍성천(필리핀/초청): 필리핀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정식과목 채택 김세중, 김용현(캄보디아/파견): 공공기관과 군인도장과 경찰도장에서 지도 김용호(말레이시아/초청): 태권도 기술지도와 새로운 품새를 교육
	북미	최홍희(캐나다/이주): ITF 서울에서 토론토로 옮김 이태은(캐나다/개인): WTF 캐나다태권도협회장 역임. 오타와시(市)와 온타리오주(州)는 각각 1997.5.31.과 2005.6.3.을 ‘이태은의 날’로 지정
	유럽	서윤남(독일/초청), 이경명(오스트리아/초청): 태권도 시범을 대대적으로 기획하여, 태권도를 알리는데 기여 서명수(네덜란드, 벨기에/파독광부): 3년간의 계약이 끝난 파독광부에서 네덜란드에 정착, 벨기에도 태권도를 보급 신부영(독일/광부): 태권도 보급 황대진(핀란드/개인): 태권도 보급 이영래(스페인/초청), 김제원(스페인/개인), 조용훈(스페인/유학): 태권도 보급 이경명(폴란드/초청) 태권도 보급

	아프리카	윤창영, 이용근(모로코/유학): 태권도 전파 노승욱, 조경행(이집트/유학): 태권도 보급 이용기, 김명옥(모로코/초청): 모로코 왕실 경호 및 태권도 전파 강문현(리비아/파견): 태권도 전파 윤목(케냐/파견): 태권도 전파
	중남미	조상민(브라질/이민): 태권도 처음 보급 권금준, 이우재, 방건보, 김상인, 신광수(브라질/초청): 태권도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김용민(브라질/초청): 무술연맹초청으로 진출하여 브라질태권도협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22년 간 협회 회장 역임 변중찬, 박봉서(브라질/파견): 대한태권도협회가 브라질에 태권도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의황(페루/파견): 정부 차원 최초로 페루 수상의 요청과 북한의 스포츠 외교로 인해 한국의 페루 내 외교 역량 강화 목적 파견
	기타	*국제태권도연맹의 초기 해외 진출 활동: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13개국 시범도미니카, 콜롬비아에서 시범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국제적 대회 개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유고 등 공산권 국가에 태권도 시범단 파견 *세계태권도연맹의 초기 해외 진출 활동: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 GAISF)가입
1980년대	북미	제재신, 안대섭(미국/초청, 이민) 권재화(이민): 어린이들의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에 좋아 동양무술이 미국 어린이들에게 인기
	유럽	김재화(노르웨이/이민): 태권도 보급 고태경(덴마크/초청): 태권도 보급 김홍영(독일/초청): 태권도 보급 김두만(터키/파견): 태권도 보급 임지표(스웨덴/이민): 태권도 보급 허홍택(네덜란드/개인): 태권도 보급(사례연구 참조) 황수연(필란드/초청): 태권도 보급

	유럽	조운섭(노르웨이/이민): 태권도 보급 진운섭(벨기에/초청): 태권도 보급 신봉희(오스트리아/초청): 태권도 보급
	아프리카	나화련(케냐/파견): 태권도 보급 김철오(수단/파견): 태권도 보급 김범수(중앙아프리카공화국/파견): 태권도 보급 박남현(가봉/파견): 태권도 보급 정성홍(이집트/파견): 태권도 보급 최태암(시에라리온/파견): 태권도 보급 이상진(세네갈/파견): 태권도 보급 박정래, 김무천(나이지리아/파견): 태권도 보급
	중남미	조남수, 김승환, 김한노(칠레/초청): 칠레에서는 군과 경찰에서 태권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범들을 초청
	기타	*국제태권도연맹의 초기 해외 진출 활동: 이석희, 이기하 등 한국인 8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북한에 파견 태권도 사범요원교육을 위해 북한에 소속 사범 파견. *세계태권도연맹의 초기 해외 진출 활동: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83차 총회에서 태권도의 공식단체로 승인 서울올림픽대회 시범종목 참가
1990년대	아시아	최용석(캄보디아/파견): 경찰학교, 국립체육사범대학 등 태권도 지도
	유럽	이상진(러시아/KOICA): 태권도 보급
	아프리카	이병호(나이지리아/파견): 태권도 보급 이은우(남아프리카공화국/개인): 태권도 보급 박노원(에티오피아/개인): 태권도 보급 박익수(세네갈/파견): 태권도 보급 강철(케냐/파견): 태권도 보급 박수철(에티오피아/초청): 태권도 보급
	중남미	오창훈(브라질/개인): 태권도시범단 활성화
	기타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시범종목 참가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파리총회에서 2000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2000년대	아시아	권영달(네팔/파견): 경찰청 태권도지도 및 대표팀 감독
	유럽	김호(불가리아/파견): 태권도 보급 김용덕(터키/파견): 태권도 보급
	아프리카	조정현(남아프리카공화국/파견): 체육부 지방순회 태권도 코치 및 군 태권도 사범 등 박노철(에티오피아/파견): 태권도 보급
	중남미	김요준(브라질/이민): 상파울루협회 회장 국제협력단(KOICA)(파라과이/파견):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에서는 봉사단원 사업 인원 확대
2010년대	아시아	신승준(인도네시아/파견): 협회 대표 품새팀 감독
	북미	김준식(멕시코/파견): 한국문화원 태권도 지도
	유럽	이연재(체코/파견): 국가대표 품새 감독 박상현(불가리아/파견): 협회 심사위원장
	아프리카	장호성(튀니지/파견): 품새 대표팀 코치
	중남미	김호석(온두라스/파견): 대한민국 대사관 태권도 사범(행정원 신분)

출처 : 강기석(2001). 국기원(2021). 태권도진흥재단(2010 ; 2012).

이렇듯 태권도의 세계화는 진출 초기에는 민간 차원에서 소수의 태권도인에 의해 개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다가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발족하면서 이후 파견 형식을 취하여 대상국가와 지역이 급속히 늘어났다. 사범들은 해외이주, 유학, 봉사, 또는 광무 등으로 취업 후 현지 정착 등 다양한 경로로 초기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의 해외 네트워크가 활발히 개척되고 이후 국내와의 연계 속에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파견(봉사단 포함)이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1985년 제90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하였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그토록 노력했던 정식종목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세계진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국제행사들도 개최되었다. 1972년 8월, 독일 뮌헨 올림픽에 앞서 열렸던 태권도 시범대회에 대한태권도협회의 김운용 회장과 엄운규 사무총장, 이종우 기술심의위원장 등이 참관하여 각국 선수단 및 관람자들에게 태권도 관련 소책자와 영화 필름 등을 증정하였고, 독일과의 태권도 기술협정을 체결하는 등 세계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1973년 5월25-27일 간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입증하면서 태권도 세계화의 길을 여는 효시였다고 할 수 있다(강원식·이경명, 2002). 이어서 1974년 서울 국기원에서 제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1975년에는 WTF가 국제경기연맹에 가맹할 수 있었으며, 1976년에는 국제군인체육회에서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게 만들기도 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결성된 태권도연맹들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973년에는 아시아태권도연맹, 1976년에는 유럽태권도연맹이 결성되었고, 1978년에는 팬암태권도연맹과 아프리카태권도연맹이 만들어지면서 태권도의 국제 네트워크가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즉, 1970년대 초반부터 협회와 국기원 차원의 세계진출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활발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태권도의 국제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에서도 태권도를 세계화의 첨병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천명

한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도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고, 1993년 탄자니아(박인덕), 세네갈(박익수), 1994년 튀니지(임봉덕)에 KOICA 파견 태권도 사범들이 진출하였고, 봉사단 사업에서도 태권도 분야의 봉사단원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는 초기 정부, 특히 국군의 해외시범단 형태가 효시였지만, 본격적 진출은 시범단을 계기로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의 초청이 이루어지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최홍희 장군은 정치적 이유의 망명으로 캐나다 진출을 선택했지만, 1960년대 이후 대다수 태권도인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이주나 유학 등의 형태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초기에 진출한 사범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태권도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국내에서도 협회와 국기원 등의 조직이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한국 무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해외진출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는 민간차원의 해외진출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태권도 사범의 해외파견 사업은 문화체육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1981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태권도 사범 해외진출 사례연구: 허흥택 사범(네덜란드, 미국)

허흥택 사범

1970년대 초 네덜란드, 이후 미국에 진출. 2008~2012년 대뉴욕지구 태권도 협회장, 2012~2014년 USAT-MAC 미국 태권도 협회 무도 위원회 회장

인터뷰

2021년 1월 27일 12:30-12:50, 세종특별자치시 보듬8로 31. CAFE내

해외진출 동기는?

할아버지께서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라셨고 어린 나에게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외국에 대한 욕망이 점점 강해질수록 태권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의 욕망이 첫 현실이 되는 시간이 월남참전 지원이었다(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베트남은 어떻게 생긴 나라인가? 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제대 후 짧은 청와대 경호원 생활을 마치고 난 후 1973년 7월, 네덜란드 3인이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참무관 관장님을 찾아왔고 당시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았기에 관장님의 소개로 인해 1개월간 지도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네덜란드인들이 나를 태권도 사범으로 초청하게 되었다.

1974년 4월 27일 첫 네덜란드 생활이 시작 되었고 문화, 언어, 음식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9개월 만에 10kg이 빠졌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 그 힘든 시련 속에서도 나는 태권도의 무도 정신을 되새기며 많은 역경을 이겨 낼 수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태권도 보다는 일본의 가라테가 더 인지도가 높았기에 태권도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어느 때라도 주, 야 휴무 제약 없이 활동 하였고 마침내 1976년 네덜란드어로 최초의 태권도 교본을 발행하여 누구라도 쉽게 태권도를 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지도를 함에 있어 세 가지의 철학이 있다. 첫째 예의, 둘째 약속, 셋째 언행일치이다. 이 세 가지의 신념에 대해 상대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 왔고, 그런 나의 노력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나에게 대한 많은 신뢰도 보내 주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옮긴 이유는?

14년간의 안정된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가게 된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오후 6시만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개인생활

또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냈다. 그 점이 나에게는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왜 현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 나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였기에 (3살,5살)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큰 도시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수 있게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의 뉴욕city를 선택했다.

1987년 9월 플러싱에서 첫 도장을 열고 관원을 모으기 위하여 새벽4시에 일어나 주차된 차에 광고지를 돌리며 노력한 끝에 5년 후 좀 더 큰 도장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리틀넥으로 두번째 도장을 열고 은퇴하기 전까지 활동하였다. 미국에서 30년간 태권도를 지도하며 회장 임기 중에 미국태권도 선수권대회, 품세 세미나, 국기원 컵 대회를 주최 하였고 1988년~현재까지 네덜란드 태권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미국에서 한의대를 입학하다

태권도를 하면 부상이 잦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고 침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외진출 전인 1972년 당시 종로 5가에 있던 동인침술학원을 다녔으며 학문을 더 배우기 위해 1994년 메릴랜드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침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료가 아닌 면허증이 필요하였기에 왕복 730km 거리를 운전하며 3년간 공부 하였다. 정규 교육 기간은 4년이나 나는 한국에서 배운 침술 수료증이 인정되어 3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다(당시 한국에서는 침술분야는 수료증만 있어도 침술행위가 가능했었음).

많은 이들이 태권도 보다는 침술로 돈을 버는게 더 쉬울 텐데 왜 굳이 힘든 태권도를 계속 하냐고 묻는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침술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좀 더 인체에 대해 알면 태권도 수련에 도움이 많이 되기에 배운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나에게 있어 도전이고 운명과 같은 것이다.

관원들과 겨루기시범 (1975)	격파시범(1976)	관원들에 침 시술(1975-76)
		

5)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사업의 주요 내용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사업은 정부에서 선발한 태권도사범을 세계 각지로 파견해 체계적인 태권도 품새, 겨루기 등의 기술 보급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제스포츠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국기원의 태권도 파견 사범들은 파견국 국가대표 감독 및 경찰, 청소년 대표 팀을 지도하며 파견국의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많은 파견 사범들이 파견국 국가대표 감독 및 경찰,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하며 파견국의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초기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사업은 외교통상부와 중앙정보부(1981년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각기 진행되었다. 1991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사업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KOICA의 대외무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시작했던 해외 파견 사업은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로 지역과 인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각자에 파견된 태권도사범들은 경호원, 군인, 경찰훈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고의 실력과 인격을 갖춘 태권도 인재들로 구성된 파견 사범들은 파견국가에 태권도 정신, 철학, 지식, 기술, 경험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서의 시범종목 채택,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정식종목 채택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전 세계 210개에 가까운 나라들에 태권도와 그 무도정신

을 보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태권도는 파견 사범들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다양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민들을 도와주고 태권도를 통해 인연(스승과 제자)을 맺은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태권도의 나라,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두고 한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인 사범들은 외교관이 못하는 일을 해 낸다. 이것이 바로 민간외교” 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서성원, 2012).

〈표 3〉 태권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종류와 내용

종 류	내 용
용품 및 훈련비용 지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태권도 용품과 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비(숙박비, 식비, 차량 임대비 등) 지원
태권도 평화봉사단	세계태권도연맹에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 및 전략적 필요 국가를 대상으로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단 파견
태권도 인재 초청	국기원에서 2009년부터 태권도 친선 연수 프로그램 ‘하나 되는 태권도인’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태권도 인재를 국내로 초청해 참가국의 태권도 활성화 및 태권도 인재 육성 지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계획’

태권도사범 파견은 2009년부터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국기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사실 국기원에서는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사업 외에도 태권도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오래 전부터 수행해왔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그리고 태권도가 올

림픽경기대회 종목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기원뿐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World Taekwondo Peace Corps)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사범 및 봉사단 파견, 용품·장비 등을 지원해 왔다.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사업은 태권도 ODA 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1회성 공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전문가가 장기간 해외 국가에 파견되어 태권도를 보급한다는 점,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태권도 보급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 그 차이점이 있다.

〈표 4〉 시대별 정부파견사업의 주체, 유형, 및 특징

구분	1970-80년대	1990-2000년대	2010년대 이후
파견주체	외교부/안기부	KOICA('91)	문체부('09)
	공공외교	공공외교	스포츠/민간외교
정부 사업목적	태권도를 통한 외교 채널 확보 및 교도보마련	태권도 세계화를 통한 올림픽 정식 종목 구축	올림픽 정식종목 정착화/제도화
태권도 보급방향	태권도 소개, 태권도장 개설, 유단자 배출, 지도자 양성	선수육성, 국제대회 참가 군/경/정부기관 보급	해외네트워크 구축, 학교정규과목, 문화사절

출처 : 국기원 국제사업팀 나영집 팀장, 이윤우 사원 인터뷰 정리, 2021.01.29.

6) 태권도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태권도분야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는 1979년 최흥희 중심의 ITF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1981년 ITF는 해외한인사범 8명을 주축으로 한 15

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국내에서의 최초의 남북한 간 태권도 교류는 2002년 5월29-31 일 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태권도학술회의였다. 남한의 대표단 (단장 정종택 충청대 학장) 11명은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위원장 황봉영)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2002년 6월 15일, 최홍희의 사망에 따라 북한의 장웅 IOC위원 이 국제태권도연맹(ITF)에 총재직 승계하였다. 동년 9월, 남측 태 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에 이어서 10월에는 북측 태권도 시범단 이 서울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처음으로 북한 태권 도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었다.

2003년 8월 20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김운용-장 웅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태권도의 기술과 행정체제의 통합을 위 한 통합기구 마련'을 위해 2003년 10월 말 경, 중국의 베이징에서 WTF와 ITF 대표단 사이에 첫 번째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 용으로는 '첫 번째 회담 후, 적절한 시기에 두 번째 회담을 위해 김 운용 총재가 평양으로 초대'될 것이라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 화합,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스포츠 교류 실시', '2004 아 테네올림픽 개막식의 동시입장', '단일팀 구성을 위한 양국 NOC의 노력에 협조 한다'는 것이었다.

2005년 6월 3일 조정원 총재가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본부에서 자크로게 IOC 위원장의 권유로 ITF 장웅 총재와 회동을 가져 기술적 행정적 사안과 태권도 통합 실무 회담 재개했 지만 구체적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2008년 9월 WTF와 ITF 제 5차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그 후, 더 이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장웅이 이끄는 ITF를 탈퇴하면서 ITF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2015년 첼랴빈스크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ITF 시범단원이 개최식에 초청되어 시범을 보이며 연결의 끈을 이어갔고 2021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북한에서 출전 의지를 표명하며 분열이 아닌 하나의 태권도로의 통합의 발자취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후 남북 간의 태권도 분야의 실질적 교류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현재까지 실질적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권도의 세계화도 남북 각각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6]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공연(2002년 10월)



출처 : www.mookas.com

다. 태권도 세계화를 통한 문화영토의 확장

1) 무예를 넘어 문화로

이제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였고, 한국의 민간외교를 담당하는 주요한 축이 되었다. 태권도는 국가의 외교활동에서, 작게는 스포츠분야의 국제 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유용한 콘텐츠로, 태권도 시범은 국제 교류행사의 부대 이벤트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태권도 시범 자체가 어떤 수익을 가시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권도 시범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호의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현장 분위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기 좋은 콘텐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꼽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문화 콘텐츠에 비해 역사가 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견고하다. 이는 해외에서 불굴의 투지로 온갖 역경을 뚫고 태권도를 뿌리내리게 한 파견사범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외교적 수단으로서 지닌 가치를 개별적 특성으로 정리하면 접근성, 경제성, 흥미성, 확정성 등 크게 구분된다(김두한·서현석, 2017).

첫째, 접근성은 심리적이고도 사회적인 접근성을 의미한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그 덕분에 이제

한국 중심의 국제행사에 태권도가 활용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둘째, 경제성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호응이나 추후 성과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활동의 주 행사 또는 부대 행사를 기획하는 주체들에게 태권도는 대단히 매력적인 콘텐츠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셋째, 흥미성은 태권도 시범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목이 집중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말한다. 태권도의 기술 체계가 발전하면서 태권도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태권도 시범이다. 언제 어디서나 활력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 넘치는 재미와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태권도 시범은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와 한국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넷째, 확장성은 태권도의 경우,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해당 국제행사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행사의 규모나 성향에 따라 태권도 시범, 공연, 지도자 파견 등 외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쉽게 변형하여 해당 국가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시범문화 패러다임을 통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태권도

태권도는 효과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국가 간 교류 또는 다양한 민간 교류에 있어 환경과 형태에 대응력이 클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파견사범이 파견국의 군대와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도

하고 있어 스승과 제자의 연을 유지하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외교 사절단으로서 파견국의 주요 인사와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미 구축된 사범들의 영향력은 다양한 형태의 외교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파견 국가는 한국에 우호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 한국과 파견국가의 외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7] 태권도 시범단 활동: IOC본부 방문 시범 후(1987)



출처 : 국기원(2012).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40년사”(앞줄 중앙, 사마란치위원장, 김운용부위원장)

국기원과 강남구는 국기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28일부터 국기원에서 ‘태권도 상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월~금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 공연은 태권도 시범이 종합예술공연으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시키며, 대표 태권도 관광의 핵심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태권도 상설공연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선도 역할을 했다. 태권도 동호인의 증가와 태권도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 및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태권도시범의 정기 공연화와 관광 상품화 등 태권도 시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다.

국기원은 태권도 종주국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통 태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기본 동작은 물론 태권도 호신술, 격파 등 외국인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기원은 앞으로도 태권도를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발전시켜 외국인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물론 우리 고유문화인 태권도를 전 세계인이 가슴속에 꽃 피울 것이다.

3) 해외 세미나와 세계태권도 지도자 포럼을 통한 문화영토 확장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통일된 태권도의 기본동작 및 품새를 보급시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태권도 수련자들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교육 세미나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림 8] 세계태권도 지도자포럼(서울그랜드힐튼호텔), 2012



출처 : 국기원(2012).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40년사”

이를 통해 국기원은 해외 태권도인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승품·단 심사 절차 등 행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각 국가 태권도 협회와 해외 태권도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태권도인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구축과 태권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통 품새 등의 교육을 통해 겨루기 위주가 아닌 태권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정신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 태권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기원은 앞으로 저개발국 등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태권도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외 현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 태권도의 가치 제고와 태권도 정신 및 국기원 공인 품새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지도자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

깨 태권도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자포럼은 태권도의 미래가치 발견 및 비전 확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태권도 지도자들의 학술적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태권도인 네트워크화와 미래 가치를 창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기원은 이 지도자 포럼을 세계 최고의 태권도 학술 교류 및 태권도의 미래 가치 창출의 장으로 확대하고, 또 전 세계 태권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과 화합, 태권도 학술 및 브랜드 가치 제고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라. 맺음말 : 과제와 전망

한국의 근현대화 시절부터 한류브랜드의 원조인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하나의 스포츠분야의 국제 활동을 넘어 한국의 민간외교를 담당하며 국가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 토대를 마련하고 개척한 일등공신은 바로 태권도 사범들이다.

해외에 파견되거나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은 순수한 목적의 유학이나 이민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의 1인당 GNP는 67달러였고 70년이 되었을 때도 겨우 243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빈곤한 삶 속에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권도의 정신으로 터전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노력으

로 향후 민간차원에서의 진출과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의 초청 및 파견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의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로써 단순한 스포츠적인 성향을 넘어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무도적 가치에 기인한 특수성으로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더해지면서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발족과 위상의 강화는 이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었으며, 이런 기관과 단체의 관심과 보호는 해외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과 파견될 사범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태권도가 더욱 더 세계화로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태권도인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으며, 그들의 해외진출 동기가 ‘개인적’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 무도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로서의 태권도를 세계인이 공유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적지 않은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인의 해외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2000년대 이후 현지인 사범이 급증하고 파견사범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정체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현지 한인 사범들의 평균 연령대가 50대가 넘어서고 있어 세대교체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태권도계의 발전 동향이나 품새, 시범 등에서 ‘새로움’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문화로서의 태권도의 지속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드니 올림픽 이후 태권도의 세계화와 기술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사범 파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고, 일부 선배 사범들의 해외진출 실패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후 해외진출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⁰⁾

아울러 당초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정부주도의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한류 문화예술 상품의 급증과 보편화로 인해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2009년 이후 문화체육부로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는 파견 목적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파견 사범의 활동이 오히려 현지 태권도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견사범 선발 시 응시자의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태권도 전공자들로써 세계 태권도 시장변화나 파견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¹¹⁾ 선발기준도 실기(기술) 평가와 어학(현지어)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어 파견 시 담당업무(예: 대표팀 지도, 군경 등에 대한 교육, 학교나 일반인 교육 등)에 따른 지도 매뉴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파견국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선발된 파견 사범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견사범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사범파견 사업은 신분과 처우, 보수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파견사범들은 국기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으로 국기원의 취업규

10) 일단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한 사범들의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조기 귀국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외에는 실패사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실패사례는 파견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행정협조의 미흡, 담당자의 변경이나 요청국의 일방적 파견 취소 등으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파견형식과 기간, 여권발급과 비자신청의 일원화 등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국기원 국제사업부).

11) 이하의 내용은 국기원 국제사업팀(나영집 팀장, 이윤우 사원)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2021.01.29. 실시)

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파견기간에 따라 2년 단위로 갱신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특수근로자로 별도의 시행지침을 따르고 있어 계약의 종류, 신분, 비자 등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고 처우도 열악하다. 보수의 경우,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임차료, 휴가비, 퇴직금 등 정부파견 때와 비슷한 경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견 국가나 업무의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견 국가의 물가 수준이나 치안상황에 따라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파견사범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파견사업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파견사업의 목표와 수행전략, 그리고 파견국가의 태권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외진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유 무술을 세계화시킨 한류의 선도적 사례이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함께 운동하는 세계의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문화영토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같은 격투기 종목이지만 유도나 카라테에 비해 여전히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더 많은 세계인이 태권도를 함께 하며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구촌 이웃으로 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 증진에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세계화가 지향하는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은 도쿄올림픽은 태권

도 종목에서 비록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지 못한 첫 대회였지만,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많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태권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첫해가 되었다고 하겠다.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함께 즐기고 이를 통해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성과 도덕성을 함양하여 세계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더욱 태권도인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태권도의 가치를 보존하여 국가인지도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더욱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한 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세계인이 공유하는 스포츠와 문화콘텐츠로서의 입지를 더욱 더 굳히고 나아가 문화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 태권도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석(2001). 「태권도 반세기」. 서울: ㈜케이디미디어.
- 강원식·이경명(2002). 「우리 태권도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 국기원(2006). 「태권도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 국기원(2012).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40년사”, 국기원.
- 국기원(2018a). “2018국기원 태권도사범 해외파견사업 백서”, 국기원.
- 국기원(2018b). “2018태권도 교육백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 국기원(2019). 「태권도 역사」. 3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재.
- 국기원(2021). “태권도사범 해외파견사업”, 국제사업부.
- 김두한·서현석(2017). “외교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의 활용가치와 지속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15(1): 635-644.
- 김영선(1999). “태권도 역사 서술에 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태권도 역사·철학·정신의 가치 창출을 위한 태권도 학술세미나 논문집. 19-35.
- 김영선·여인성(2020). “현대 태권도의 원류, 무덕관의 개설 시기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11(2): 1-14.
- 김용옥(2013).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50년사”, 대한태권도협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계획”.
- 서성원(2012). 「태권도연」.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 서성원(2016).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 서울: 애니빅.
- 양진방(1986).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 경기 태권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서울: (주)영진문화사.
- 이신재(2017). “베트남 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43-47.
- 이호열(2020). 태권도의 역학적(易學的) 탐구 : 太極·八卦와 태극품새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순천(2020). 「밖에서 본 태권도史」, ITF 태권도 연구소.
- 태권도진흥재단(2010a). “태권도 해외 보급(진출)역사 연구(미주지역) 결과보고서”,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분과학회.
- 태권도진흥재단(2012b). “태권도 해외 진출 역사 연구(유럽, 아프리카지역) 요약보고서”,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분과학회.
- 허인욱(2006).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동아일보(2020년 9월 24일)
- 매일신문(2017년 12월 11일)
- 연합뉴스(2018년 4월 2일)
- www.mookas.com
- www.kukkiwon.or.kr
- www.taekwondoroadtour.com
- www.tpcorps.org

ABSTRACT

Original Korean Wave : Globalization of Taekwondo and Expansion of Cultural Territory

Park, Jong-beom · Hong, Sung-gul

At a time whe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becoming a general response in the center, interest in Taekwondo, which has l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decreasing. In this paper, the drivers, globalization processes, and results of Taekwondo, which expanded cultural territory through globalization in the K-sports field, were analyzed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to confirm the expansion of cultural territory. Taekwondo has entered the international sports world stably and has become a major axis in charge of civilian diplomacy.

Taekwondo has high value as a diplomatic means as a sports culture content, and has also shown excellent results as a means of civilian diplomacy, centering on dispatched instructors. Currently, tasks given to Taekwondo, such as difficulties in generational change and a decrease in continuous influence, still have a lot of concerns. Taekwondo should consistently preserve its value, seek various aspects, expand cultural territory, and study way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Keywords: Taekwondo, Globalization, Cultural Territory, Hallyu,
K-Sports

박종범

전 자 우 편 : jb1907@hanmail.net

홍성걸

전 자 우 편 : sghong@kookmin.ac.kr

논문 접수일 : 5월 30일

심사 완료일 : 6월 15일

게재 완료일 : 6월 25일

스터디코리아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박선옥¹⁾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테리코리아 웹사이트의 K-POP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POP 한국어 교육 콘텐츠는 초급 7개, 중급 10개, 고급 16개로 모두 33개이다. 이 교육 콘텐츠는 교수자의 영어 설명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 자료는 가사보기, 문법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노랫말에 부기된 발음 표기는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문법과 어휘가 학습 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문법과 어휘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고, 제시 형태도 일관성이 없으며, 중복되는 요소가 많고, 설명 또한 사전식으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K-POP 학습 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 교수자의 설명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것, 학습 동영상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등장하도록 해야 하는 점, 학습 내용과 자료를 정확

1)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학습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위한 학습 보조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K-POP, 노래, 한국어 교육 자료, 스테디코리안, 한류

1. 서론

한국어 교육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5년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교원이 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이후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되는 곳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시간에 비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는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와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다. 세계 여러 국가와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물적, 인적 교류 외에 문화적 교류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문화적 교류는 한류(Korean wave)에 의한 문화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를 얻고 소비되는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전후부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방송되면서 한국의 연예인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타이완[臺灣]의 언론이 이를 한류 열풍(Korean wave fever)이라고 하였다.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현상을 한류라고 하고 있다.²⁾

2) 한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892>)

한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작되어 가요, 음식, 뷰티, 패션, 게임 등으로 확대되면서 K-뮤비, K-드라마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대중가요는 K-POP으로 불리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K-POP을 접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³⁾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1,683명에 달하는데 10년 전 외국인 유학생 수가 1,209명일 때와 비교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K-POP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K-POP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또한 노래는 교재 중심의 학습보다 유연한 마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테디코리안 웹사이트(STUDY KOREAN, <http://study.korean.net/>)에서 제공하는 K-POP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대하여 분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유아와 청소년층이 많고 이들 역시 K-POP을 좋아하고 향유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보니 스테디코리안에서는 한국 문화 영역의

3) “K팝듣다 유학 왔어요”...국문과 대학원생 39% 외국인’(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63622/>, 2021.05.13.)

하나로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K-POP 활용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살피고 3장에서는 스테디코리안의 K-POP 학습 콘텐츠를 분석한 후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4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K-POP 활용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연구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웹사이트 스테디코리안의 학습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므로 본 연구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한 웹 교육자료의 체계화와 정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에서 K-POP의 활용

K-POP은 Korean Popular Music을 줄여 일컫는 용어로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 정도로 폭넓게 인식된다.⁵⁾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댄스음악 중심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 그 노래는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K-POP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 정도로 좁게 해석되기도 한다.

K-POP의 인기는 한류(Korean wave) 현상의 하나이다. 한류란

4)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손만복(2021),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혁(2017),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2020),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관(2014), K-POP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필연근(2013),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방법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민·김용하(2018), K-팝 가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현대문법연구> 97. 203-224쪽. 이세인(2020), BTS콘텐츠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학용 교재 개발의 실제, <한국언어문화학> 17(3), 135-168쪽.

5) 케이팝 [Korean Popular Music(K-Pop)]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8624&cid=46662&categoryId=46662>)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문화 현상⁶⁾으로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등의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아이돌 그룹 HOT, NRG, 클론 등이 중국에, 가수 보아가 일본에 진출하여 인기를 끌게 되면서 K-POP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중동, 그리고 미국 지역으로 K-POP의 열풍은 더해 가는데, 2000년대 후반 가수 비와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미국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K-POP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발전은 K-POP의 확산을 더욱 가속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K-POP을 향유하며 팬덤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TT’와 ‘라이키(LIKEY)’ 그리고 ‘What is Love?’ 뮤직비디오는 5억 뷰를 돌파했으며⁷⁾,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는 16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는 조회수 13억 회를 넘어섰다.⁸⁾

아이돌 그룹 BTS의 인기와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BTS는 2018년에 ‘LOVE YOURSELF 轉 Tear’로 빌보드 200위의 1위를 차지

6) 양승국 외(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30강』, 박이정.

7) 김현식,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 뮤직비디오 억뷰 돌파”(《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29052528&mediaCodeNo=258>, 2021.5.25.)

8) 양송영, “블랙핑크,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13억뷰 돌파”(《매일경제》,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1/05/493769/>, 2021.5.22.)

하고 이후 ‘LOVE YOURSELF 結 Answer’, ‘MAP OF THE SOUL : PERSONA’, ‘MAP OF THE SOUL : 7’ 등이 빌보드 200위 1위를 기록하였다. ‘Dynamite’와 ‘Life Goes On’ 등은 빌보드 핫 100의 1위를 차지하였다.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하고 ‘BUTTER’ 뮤직비디오는 공개 나흘 만에 2억 뷰를 달성⁹⁾ 하는 등 한류의 열풍의 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TS의 노래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가사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어 학습자로 거듭나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 특히 BTS 노래의 가사는 무의미한 랩과 자극적인 가사 대신 우리 시대의 고민을 담은 스토리텔링과 메시지의 서사를 구축¹⁰⁾하고 있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K-POP을 한국어 교육의 주요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아름(2015:10-11)에서는 노래의 특징에 대하여 정의적 측면, 언어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정서적 상태나 태도가 언어의 여과 장치 기능을 하는데 노래는 정서적 상태나 태도를 안정적으로 하여 언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낮추며, 노래의 오락적 요소가 지루함을 줄이고 흥미롭게 하여 학습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언어적 측면에서 노래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실제 발화 속도를 익히고, 관용표현이나 추상적 표현, 반복되는 표현을 쉽게 익

9) “4일 만에 2억 뷰 도파한 BTS ‘버터’ 뮤비... ‘자체 신기록’”(JTBC 뉴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28, 2021.05.25.)

10) 권상집, “BTS의, BTS에 의한 한국형 혁신”(《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0847>, 2021.05.31.)

힐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 노래는 사회적 상황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문화요소로서 문화 이해 능력 및 상호문화주의적 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류희정(2011)에서는 정의적, 언어적, 문화적 측면 외에 인지적 요인으로 좌뇌와 우뇌를 종합적으로 활용되므로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노래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K-POP을 한국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용함은 실제적인 언어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K-POP 가사에는 일상적 표현, 구어체 표현, 준말이나 생략이 있는 부분, 비격식적인 표현, 감정이나 느낌과 같은 표현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한국어 교육용 교재는 비교적 정제된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많은 K-POP 가사에서 ‘네가’는 ‘니’ 또는 ‘니가’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실제 생활에 가까운 언어 표현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POP을 활용한 노래 수업이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데 머물지 않고 발음, 어휘, 문법이나 문화 등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노래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운 마음은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김덕경(2017)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체험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K-POP 노래는 뮤직비디오와 함께 콘텐츠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뮤직비디오를 활용하게 되면 한국 사회 문화와 정서 등에 대하여 더 잘 이

해하고 상호문화주의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스티디코리안의 K-POP 한국어 학습 콘텐츠 분석

1) 스티디코리안에 대한 이해

스티디코리안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재외동포란 통상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 이해되는데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인’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된다. 거주하는 지역명을 넣어 ‘재일동포, 재미한인, 재중동포,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식적 호칭은 ‘재외동포’이다.(재외동포재단법, 1997.3.27. 제정)¹¹⁾ 재외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인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그 인원은 약 750만 명 정도가 된다.¹²⁾

재외동포재단¹³⁾에서는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정

11)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12) 재외동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7,493,587명이다.(코리아넷, <http://www.korean.net/>)

13)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97.3.27) 제1조)

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¹⁴⁾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교사 육성, 민족교육 육성이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글학교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재외 거주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외동포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한글학교는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학교 수는 총 1,366개이고 학생은 총 73,381명이며, 교원은 11,549명에 달한다.

〈표1〉 한글학교 현황(교육부, ‘2019년 재외한국교육원 현황’, 2019.09.30.)

지역	학교 수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일본지역	141	6,603	464
미국지역	798	40,894	8,198
러시아지역	73	3,350	259
CIS지역	82	5,038	196
기타지역	272	17,496	2,422
합계	1,366	73,381	11,549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별히 한국어 교육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스테디코리아이다. 사이트는 ‘교사, 수업용 자료, 학생, 한글학교, 참여·알림, 자료실’의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 영역에서는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¹⁶⁾과 한글학교 한국어

14)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에 의거한 사업이다.

15) 김경근 외(2008).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16) 한글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정은 정

활동지·시사용어·신조어, 한복이나 손가락 젓가락 및 화폐 등과 같은 한국 문화 주제별 자기학습, 역사문화연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수업용 자료’에서는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수업 지침서, 한글학교 한국어 활동 자료, 역사(이민사, 한국사 및 지식채널e) 자료, 문화(동요, 만화, K-POP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코너에서는 ‘3분 K-culture’(한국인이 좋아하는 APP, 1인 가구, 한국의 편의점 이용, 명절 등)와 ‘EBS 콘텐츠’(한글이 야호, 수학이 야호, 속담이 야호, 최고의 요리비결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에서는 스티디코리안 한글교실(유아),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입문, 중급, 고급),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초급), 성인을 위한 한국어학습(기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학교’ 코너에서는 한글학교 소식과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대한 안내와 연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알림’ 코너에서는 스티디코리안에 대한 소개와 새소식, 공지사항, 질문과 상담, 이벤트, 뉴스레터 및 해외통신원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국가, 지역의 한글학교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료실’에는 재외 주말 한국학교용 한국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교재와 역사교육 자료 및 연수자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자료실과 한국어문화 교육 관련 학술자료, 한국어교육 관련 단행본 및 학습자용 교재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연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K-pop 한국어 교육 자료 분석

스티디코리안의 학습자료 중 문화 영역¹⁷⁾으로 분류되어 있는

규과정(현 한글학교 소속 교사)과 활용과정(스티디코리안 회원 누구나)으로 구분되며 과정 이수율 하계 되면 이수증을 발급한다.

17) 수업용 자료로 문화 영역에는 K-POP 한국어 외에 동요와 만화도 있다.

K-POP 한국어 코너의 교육 자료는 모두 33개이다. 초급 학생을 위한 K-POP은 7개, 중급을 위해서는 10개 그리고 고급을 위해서는 16개가 제공되고 있다.¹⁸⁾

K-POP 한국어 교육은 동영상과 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뮤직비디오와 ‘곡 설명, 가사보기, 단어 학습, 문장 학습’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다. 초급의 ‘성시경-너에게(To You)’와 중급의 ‘이적-Lie Lie Lie’, 고급의 ‘다비치-The Letter’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서 영상은 뮤직비디오만 있을 뿐 교수자의 구두 설명은 없다.

〈그림1〉 ‘성시경-너에게(To You)’ 콘텐츠 화면



18) 〈표2〉 참조.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 구성은 동영상 아래에 학습할 내용을 담은 자료 ‘곡 설명, 가사보기, 단어학습, 문장학습’이 있고, 상단 ‘인쇄’에서 학습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다. 즉 학습 내용에 대한 구두 설명 영상은 없는 대신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자료 제시에 의의를 두고 있다.

초급 K-POP 학습 노래인 ‘너에게’(성시경, 2013)의 학습 콘텐츠를 보면 동영상은 이 노래가 OST로 사용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곡 설명’에서는 제목과 발매일, 음악 장르,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의 기본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노래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되어 있다. ‘가사 보기’에서는 한국어 가사를 제시하는데 발음을 영어 알파벳을 활용하여 덧붙이고 있다.¹⁹⁾

(1)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neoui maldeul-eul us-eo neomgineun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nauí ma-eum-eul neoneun moleugessji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neoui modeun geol joh-ahajiman

(1)은 ‘가사보기’의 일부이다. 음성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조하고자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웃어’를 ‘us-eo’로, ‘마음을’은 ‘ma-eum-el’로 표기하였

19) 33개 곡 모두 한국어 가사 아래에 알파벳을 활용한 발음 방법이 덧붙여 있다.

는데 기호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음절을 나누는 기호도 아니고 장음으로 소리난다는 의미도 아니다. ‘좋아하지만’은 ‘joh-ahajim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ㅎ’음은 묵음이므로 ‘h’가 없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 표기법이다.

‘단어학습’에서는 가사에서 주요하게 학습할 것으로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단어나 구절에 대한 설명이 사전적 설명에 해당하거나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²⁰⁾

웃어넘기다 :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음으로 지나쳐 보내다.

[예문] 이 일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앞서

두려움이 앞서다 :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

[예문] 두려움이 앞서서 해 볼 용기가 없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가로막다 : 말이나 행동, 일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다.

[예문]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을 때로는 외면하고

외면하다(≡얼굴을 돌리다, 시선을 돌리다) :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다.

20) 실제 자료에는 학습할 단어나 구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글자 모양을 진하게 하고 강조점을 넣었음.

[예문]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지나갔다.

얼굴을 돌리는 걸 년 느끼니

얼굴을 돌리다(≒외면하다, 시선을 돌리다) :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다.

(2)를 보면 ‘웃어넘기다’에 대한 설명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음으로 지나쳐 보내다.’인데 ‘지나쳐 보내다’는 설명 문구는 다시 또 설명이 필요할 만큼 초급 학습자에게 어려운 어휘이다. ‘두려움이 앞서다’에 대한 설명 어휘 중 ‘생기다’, ‘가로막다’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대로, 방해’와 같은 단어가 초급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가로막다’에 대한 설명이 동어반복에 해당하는 ‘~ 막다’가 되어 설명력이 부족하다. ‘외면하다’와 ‘얼굴을 돌리다’에서는 유의어로 ‘시선을 돌리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초급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이다.

다음으로 ‘문장학습’ 영역에서는 교사의 나레이션을 글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고 있다.

(3) ‘너에게’의 마지막 가사인 ‘네 순수한 마음 난 변치 않길 바래.’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바래’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바라다’에 어미 ‘-아’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은 ‘바래’가 아닌 ‘바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보다는 ‘바래’의 형태로 사용하다보니 ‘바래’가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래

가사이니 만큼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평소에 사용하실 때 잘 몰라서 틀리는 것이라면 바르게 고쳐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시적 허용 :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문법적인 허용. 시는 시인 또는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하여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정서를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때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주고, 강조, 변화, 아쉬움, 미련, 동정, 애착 등의 느낌을 주는데, 이런 표현 방법을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3)에서는 문장학습으로 ‘바라다’의 활용형 ‘바래’가 잘못된 표현이고 ‘바라’가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적허용’에 의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초급 학습자를 위한 K-POP를 활용한 한국어 문장학습의 확장 요소로 적절한지는 되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학습 유형은 동영상으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3곡을 제외한 30곡이 이에 해당한다. 교수자의 학습 진행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로 설명을 하고 K-POP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제시하면서 학습 요소별로 설명을 하는 형태이다. 학습 동영상 시간은 약 7분~1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 ‘Infinite-Man in Love’ 콘텐츠 화면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과 함께 상단 오른쪽에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 자료는 ‘가사보기’와 ‘문법학습’, ‘단어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구성은 뮤직비디오의 일부를 가사와 함께 제공하면서 ‘꼭 알아 두어야 할 표현’이라는 제목 하에 문법과 단어 학습 내용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뮤직비디오 전체를 감상하도록 되어 있다.

K-POP ‘Infinite-Man in Love’를 예로 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노래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한다. ‘남자가 사랑할 땐(Man in Love)’은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라는 주제를 설명한다. 그리고 ‘꼭 알아 두어야 할 표현’의 첫 번째로 문법 표현 ‘-(으)ㄴ 때’가 나타나는 가사가 포함된 부분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문법 표현을 제시한 뒤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앞서 보여준 뮤직비디오 부분을 다시 보여준 뒤 ‘남자가 사랑할 때’ 어떻다고 하는지 질문을 하고 ‘결에 머물다’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들을 때 단어 표현인 ‘사랑하다’의 의미와 비슷한 표현을 찾아 보도록 한다. 그리고 난 후 ‘사랑하다’와 유의한 표현으로 ‘사랑에

빠지다' 표현 학습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에 빠지다'와 '-에게 빠지다'의 차이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한다. 그리고 '삶'은 '인생'의 의미이며 '맘'은 '마음'의 준말, '바래'는 '바라다'의 활용형인데 한국에서 이상표현으로 '바래'라고 사용하지만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학습한 문법과 표현이 있는 가사와 그 발음 표기가 자막으로 드러나는 뮤직비디오의 일부를 보여 준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할 때 다른 것 같으냐는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가사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체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도록 한다.

첫 번째 학습 콘텐츠 유형과 두 번째 학습 콘텐츠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이지만 교수자가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두 학습 콘텐츠의 공통점은 문법과 단어 및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한국어 등급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학습 내용이라는 점이다.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K-POP 학습 자료는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 학습 자료가 초급, 중급, 고급의 수준에 적절한지, 제시 방식이나 기타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2〉 스타디코리안의 K-POP 학습 콘텐츠

<div style="text-align: center;"> 항목 등급 </div>	가수 - 제목	문 법 ²¹⁾	단 어
초급	성시경 - 너에게 (To You)	• 바라다의 활용형 '바라'(바라다 2급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어 넘기다 (웃다 1급, 넘기다 4급) • 두려움이 앞서다 (두려움 4급, 앞서다 4급) • 가로막다 (4급) • 외면하다 (4급) • 얼굴을 돌리다 (얼굴 1급, 돌리다 2급)
	Infinite - Man In Love	• 때/-(으)르 때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에 빠지다 (사랑 1급, 빠지다 2급) • 맘 (마음 1급, 맘 4급) • 바래 (바라다 2급)
	Apink - No No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b-지 마(3급) • 아냐²²⁾ • 되다 (1급 단어) • 아/어하다²³⁾ • 어떻게²⁴⁾ • -(으)르게요(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오다 (4급) • 기대다 (3급) • 가끔 (2급) • 힘들다 (1급) • 슬프다 (1급)
	Apink - Mr. Ch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싶다 (1급) • 동사-아/어/여 놓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 두 번, 세 번(번 1급) • 안다 (2급) • 커플링²⁵⁾ • 반지 (2급) • 끼다 (2급) • 풀리다 (3급) • 흔들다 (2급) • 눈이 감기다 (2급)²⁶⁾ • 몰래 (3급) • 살짝 (3급)
	에픽하이 - 신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면 (2급) • -(으)르게 (2급) 	
	전효성 - 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르 수 없다(1급) • -(으)르까 봐(2급) 	

	허각, 정인 - 동네술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려 하다(1급) • 홀로 (5급 어휘) • 애쓰다 (4급 어휘) 	
중급	이적 - Lie Lie L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잖아(요)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끄러미 (6급) • 웅크리다 (6급) • 하염없다 (6급) • 새하얗다 (5급)
	세븐 - 내가 노래를 못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도/어도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가 처지다 (어깨 2급, 처지다 6급) • 고개를 떨구다(고개 2급, 떨구다 6급)
	씨크릿 - YooH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 • -나 보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다 (2급) • 끌리다 (4급) • 보이다 (2급)
	허각 -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며 (4급) • Noun-을/를 위해²⁷⁾ • 았던/였던/였던 (5급) • -다면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회 (3급) • 수백 번 • -씩 (3급) • 떠나다 (2급) • 맞다 (1급) • -는가 보다 (3급 문법) • 잇다 (2급) • 이제 (2급) • 곁 (3급) • 아직 (1급)
	씨크릿 - I'm in lo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에 (2급) • -았/였다(가) (2급) 	
	에이핑크 (A-pink) - LU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았/였던 (5급) • -고 싶다 (1급) 	
	이하이 - 한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르 때까지 (-을 때 2급) • -아/어 봐요 (-어 보다 2급) 	
	허각 - 모노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 버리다 (4급) • -(으)면서 (2급) 	

	PSY(싸이) -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도 (3급) • -지 말다 (2급) 	
	2NE1 - 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말다 (2급) • -(이)라도 (4급) 	
고급	다비치 - The Le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듯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난하다 (4급) • 싸늘하다 (6급) • 낮설다 (3급)
	악동뮤지션 - Give Lo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운하다 (4급) • 섭섭하다 (2급) 	
	씨크릿 - I Do I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레다 (4급) • 떨리다 (3급) 	
	태양 - 눈, 코,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여 줘 (2급) • -던 (3급) 	
	허각·정은지 - 짧은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 보이다 (3급) • -(으)ㄴ (2급) • -지 않다(1급), • -지 말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리 (2급) • 모습 (2급) • 참 (1급) • 한 없이²⁸⁾ • 함께 (1급) • 쌓일²⁹⁾ • 웬지 (4급) • 짧다 (2급) • 하얗다 (2급) • 셔츠 (3급) • 체크³⁰⁾ (3급) • 넥타이 (2급) • 멋지다 (3급) • 짧게 자르다 (2급) • 변화 (3급) • 너무나도 (4급) • 사랑스럽다 (4급) • 변하다 (2급)
	Apink - Re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럼 (2급) • -듯이 (4급) 	

허각 - 사월의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려나 (5급)³¹⁾ • -(는/은/ㄴ) 듯 (5급)³²⁾ 	
소나무 - CUSH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 하다 (3급) • -지만 (1급) 	
빅뱅 - LO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은/ㄴ) 척하다 (5급) • -게 되다 (2급) 	
빅뱅 - We like 2 pa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르래? (2급) • -기에 (4급) 	
티아라 - Sugar F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가 보다/-나 보다 (3급) • -(으)르수록 (4급) 	
악동뮤지션 - 얼음들(Mel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았/었으면 하다 (3급) • -았/었으면 하다 (3급)³³⁾ 	
다비치 - 녹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는 줄 알다 (4급) • -는 중이다 (3급) 	
NELL - 지구가 태양을 네 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동안 (2급) • -는 중이다 (3급) 	
WINNER - 컬러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있다 (1급) • -았/었더라면³⁴⁾ 	
B.A.P - 빗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잠기다(5급 단어) • -다(가) -다(가) (2급) 	

21) <표2>에서 '문법'과 '단어'의 표제어 옆 괄호 안에 제시한 등급은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이하 '국제통용')에서 설정한 등급으로, 참고 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다.

22) '아니야'의 준말로 국제통용 어휘 목록에는 없다.

23) '-어하다'는 국국제통용 문법 목록에 없다.

24) '어떻게'는 '어떻다'의 부사형으로 국제통용 어휘 목록에 없다.

학습 자료는 문법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과 단어의 구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문법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어떻게, 홀로, 애쓰다, 니, 서운하다, 섭섭하다, 설레다, 떨리다’ 등은 어휘이고 어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는가 보다’는 문법이다.

다음으로 문법 항목 제시 형태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Verb-지 마’, ‘아/어하다’, ‘-(으)르세요’와 같은 경우이다. 어미는 의존형태소이기에 실질형태소가 결합되는 자리에 ‘-’ 표시를 사용한다. 그런데 ‘아/어하다’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다. 그리고 ‘-지’에 선행하는 단어의 품사가 동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Verb’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 문법에서만 품사 표시를 하고 있다.

문법 항목 제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형태 표시가 일관되지 않은 점이다. 예를 들어 ‘-아/어 버리다’와 ‘-아/어/여 줘’가 있다. 어미 ‘-아/어/여’는 결합하는 어간의 형태에 따른 것인데 ‘하다’형의 어간과 결합하는 ‘-여’의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는/은/ㄴ) 듯’과 ‘-(으)ㄴ/는 줄 알다’도 마찬가지이다. 선행하는 요소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에 따라 다르며, 동사의 경우 현재형과 과거형의 의미에 따라 다르기도 하므로 학습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
- 25) ‘커플링’은 외국어로서 국제통용 어휘 목록에는 없다.
 - 26) ‘눈을 감다’는 국제통용 2급 어휘에 해당한다.
 - 27) 문법이 아니라 연어적 구성 형태이므로 국제통용 문법 목록에 없다.
 - 28) 부사 ‘한없이’는 국제통용 어휘 목록에는 없다.
 - 29) 신조어 ‘쌍얼’은 국제통용 어휘 목록에는 없다.
 - 30) ‘체크무늬’가 국제통용에서는 3급 어휘로 제시되어 있다.
 - 31) 국제통용에서는 ‘-으려나 보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 32) 국제통용에서는 ‘-는 듯하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 33) 국제통용에서는 ‘-으면 좋겠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 34) 국제통용에서는 문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관되게 표시하는 것이 알맞다.

그리고 중복되는 어휘나 문법 요소가 꽤 있다. ‘-(으)르게’는 ‘Apink-No No No’와 ‘에픽하이-신발장’에 동일하게 제시된 학습 요소이다. ‘씨크릿-YooHoo’에서는 단어 ‘보이다’가 중복으로 제시되는 오류가 있다. 중급의 ‘수백 번’ 어휘의 설명에서는 초급 ‘Apink-Mr. Chu’에서 이미 학습 요소 제시한 ‘번’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에이핑크(A-pink) - LUV’의 문법 ‘-았/었던’은 ‘허각-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에서 학습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고 싶다’는 ‘Apink - Mr. Chu’에서 다른 문법이다. 고급의 ‘허각·정은지-짧은 머리’에 제시된 문법 ‘-지 말다’는 초급의 ‘Apink-No No No’와 중급의 ‘PSY(싸이)-아버지’에서 이미 다른 문법이다. 고급의 ‘허각-사월의 눈’의 ‘-(는/은/ㄴ) 듯’은 ‘다비치-The Letter’에서 제시된 문법이다.

다음으로 오기의 문제가 있다. ‘2NE1-아파’의 문법 ‘-지 말다’는 오기이다. 학습 동영상에서는 ‘-잖아(요)’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악동뮤지션-얼음들(Melted)’의 첫 번째 문법 ‘-았/었으면 하다’는 ‘-(으)ㄴ 텐데’를, ‘NELL-지구가 태양을 네 번’의 ‘-는 중이다’는 ‘-같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법이나 어휘가 등급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통용의 어휘와 문법 등급별 목록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표2>를 보면 초급에서는 상당수의 3급, 4급 문법과 단어가 학습 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중급에서도 5급과 6급의 학습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에서는 오히려 1급과 2급의 학습 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가 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4. K-pop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선 방안

스터디코리안의 K-POP 한국어 학습 콘텐츠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하고 교육자료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 자료로서 K-POP을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K-POP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2>에서 정리한 K-POP 목록을 보면 최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나 블랙핑크의 ‘뚜두 뚜두’, BTS의 ‘Dynamit’와 같이 큰 인기를 얻고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K-POP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교수자의 설명을 한국어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는 교수자가 영어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 스터디코리안은 재외동포와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학습 사이트이다. <표1>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글학교 수와 학습자 수는 미국지역에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일본, 러시아, CIS 및 기타지역에도 많은 학교와 학생이 있다.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는 그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로 교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셋째, 학습 동영상에 교수자와 학습자를 등장시키는 방안이 있다. 교수자가 설명을 하고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커질 것이다.

넷째, 학습 내용과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장에서 K-POP 학습 콘텐츠 분석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학습 내용,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문법이나 어휘의 구분, 형태 제시의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습 내용과 자료는 학습자 한국어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학습 내용이 중급, 고급의 수준이라면 학습자의 이해도는 떨어지게 되고 K-POP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여섯째, 학습 활동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법과 어휘 중심의 학습 내용으로 일관된 현재의 내용 외에 실생활 표현, 구어체 표현, 발음과 문화 학습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실제적인 발음을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구어체와 실생활 표현 학습을 통해 교재 중심의 학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를 활용하여 문화적인 학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실생활 표현 능력의 향상 외에 상호문화주의적 지식과 태도도 기르도록 한다.

일곱째,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활용하여 K-POP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보조 자료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학습 동영상 시간은 7분에서 10분 정도인데 동영상의 시간을 늘리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 학습은 10분 정도의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확장 학습 및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 보조자료를 제시하여 교수자가 실제 수업에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수업 보조자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테디코리안의 K-POP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은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교사 육성 및 민족 교육 육성이다. 스테디코리안은 재외동포 교육의 중심점인 한글학교의 운영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며 한국어 교육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화 영역의 K-POP 한국어 교육 콘텐츠는 33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교육 콘텐츠는 교수자의 영어 설명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 자료는 가사보기, 문법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노랫말에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발음 방법이 부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기법이 아니어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문법과 어휘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고, 제시 형태도 일관성이 없으며, 중복되는 요소가 많고, 설명 또한 사전식으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어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문법과 어휘 요소를 학습하도록 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첫째, K-POP 학습 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교수자의 설명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것, 셋째, 학습 동영상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등장하도록 해야 하는 점, 넷째, 학습 내용과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학습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 일곱째,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위한 학습 보조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안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 외(2008).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덕경(2017),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노래 활용 수업지도 방안 연구, 남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15),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성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관(2014), K-POP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2020),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혜민·김용하(2018), K-팝 가사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현대문법연구> 97. 203-224쪽.
- 류희정(2011),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만복(2021),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국 외(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30강』, 박이정
- 이세인(2020), BTS콘텐츠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학용 교재 개발의 실제, <한국 언어문화학> 17(3), 135-168쪽.
- 이인혁(2017), K-POP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필연근(2013),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방법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웹사이트

스터디코리아안(STUDY KOREAN, <http://study.korean.net/>)

인터넷 기사문, 백과사전은 각주로 대신.

ABSTRACT

A Study on How to Improve K-POP Korean Content on the Study Korean Website

Park, Sun-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POP Korean education contents of Study Korean operated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o derive problem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ere are 33 K-POP Korean educational contents, 7 for beginner, 10 for intermediate, and 16 for advanced. This educational content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ere the instructor's English explanation is provided as a video and the English explanation is not provided as a video. Learning materials consist of song lyrics, grammar and vocabular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onunciation of the song lyrics is not accurate. And there is a problem that grammar and vocabulary are not appropriate for the learning grade. Also, the division between grammar and vocabulary is ambiguous, the form of presentation is inconsistent, there are many overlapping elements, and the explanation is also presented in a dictionary for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learners to underst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K-POP learning materials should be diversified. The instructor's explanation should be in Korean. Instructor and learner

should appear together in the learning video. The content and materials to be studied must be presented accurately. Learning activities should be diversified. Teaching aids should be provided for use by instructors in the classroom.

Keywords : K-POP, Songs, Korean Educational Materials, Study
Korean, Korean Wave

박선옥

전 자 우 편 : psunok01@naver.com

논문 접수일 : 5월 30일

심사 완료일 : 6월 15일

게재 완료일 : 6월 25일

문화영토연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2.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연구 및 지원
4.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 ①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1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 ② 이사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5.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8.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6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 및 권한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2.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업무와 활동

제7조 (업무)

-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성립)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②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전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전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1조 (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 ①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 ②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절차)

- ①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 ②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④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 ⑥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⑦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 ⑧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 ⑨ 심사 결과 ‘수정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⑩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14조 (심사기준)

- ①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②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2.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3.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4.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5.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③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④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 ①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 ②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이의 신청)

- ①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③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 ①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2.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3.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4.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 ②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제4조 연속투고 금지

- ①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 ②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 ①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 ②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다.
- ③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 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 ①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 ②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게재 시 한국연구재단 보고용)를 명기한다.
- ③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부호의 사용

- ① 각주 및 참고문헌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연도, 면수.
 2.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면수.
단,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체제도 인정한다.
 1.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면수.
 2.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면수.
- ②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책: (자판 입력)접낫표(『』)
 2. 작품: (자판 입력)낫표(「」)
 3.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꺼쇠표(<>)
- ③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저자의 표시

- 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②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9조 원고의 투고

- ①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고논문의 투고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kish1691@naver.com]
- ③ 투고와 관련된 입회비, 연회비, 심사료 등은 모두 면제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 ₩500,000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10조 투고료

- ①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 ③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④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인한다.

제12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 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실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 ①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 ①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②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

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①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 ③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심의요청)

- ①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원장은 ①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 ① 위원회는 제7조 제①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 ①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 ②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 ②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1.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 ③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 ③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가 의심되는
논문에 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권 1호 논문 심사 경위

투고 마감일	2021년 5월 30일
총투고 논문 수	8편
심사위원 수	편당 3인 이상
심사 마감일	2021년 6월 15일
수정 논문 접수	2020년 6월 20일
총 게재 논문 수	5편
논문 게재율	62.5%

임원 명단

이사장	홍일식
이 사	조경길, 손대오, 박종렬
감 사	이대명
편집위원장	홍성걸(국민대) · 김정우(고려대)
편집위원	윤애경(창원대), 김찬기(한경대), 최영희(서울과기대), 장은진(경성대), 장만호(경상대), 홍성구(경북대), 조은하(강원대), 오재혁(건국대), 김공숙(안동대)

(재)文化領土研究院은 문화영토론의 이론적 발전과 문화영토 현상에 관한 학문적 이해 증진,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가치 선양, 한국 효 문화의 세계화, 다양한 세계 문화의 한국화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영토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및 행사 지원사업

-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 연구
- 효 문화의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 전통문화 발전 및 확대 재생산 관련 연구 및 사업

문화체험교실 운영

- 전통문화교실 :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포럼, 및 체험교실
- 청소년 문화교실 : 청소년 대상 효 문화 포럼 및 체험교실
- 문화행사: 문화영토론 교육과 관련 포럼 및 체험교실 운영

장학사업

- 다문화가정, 조선족 및 고려인 가정, 탈북동포 가정 청소년 대상 효행 장학생 선발 및 지원

학술지원 및 우수연구논문 시상

- 문화영토 관련 학술행사 지원 : 소정 양식을 통한 신청 시 지원
- 학술지 발간 : 학술지(가칭 『문화영토연구』) 창간 및 정기적 발간
- 우수연구논문 : 1년 간 문화영토 관련 학술연구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발 시상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9 772765 747001
ISSN 2765-7477